



탐라는 제주행성 탐방기

2016.06.01.~06.19



♥ 목차 ♥

일정표

탐나는, 탐라는 제주도 알고 가기
탐나지? 든든한 우리 모듬
삶의 행복, 탐나는 식단표
제주에서 우리는: 탐라는 제주행성을
향해

타대안 학교 탐방/ 소감

꽃피는 학교, 실상사 작은 학교, 배움터
길, 산돌학교, 성미산 학교, 온새미 학교,
거침없는 우다다, 불이학교
움직이는 학교를 마치며

일정표

날짜	주제	시간별 일정			숙소
		오전	오후	저녁	
6.1수	출발 제주도!	각자 김포로 출발	pm 1:30 김포공항 집결 제주항공 7c155편 15:25	일도국수, 숙소로	절물 자연 휴양림 (제주시 명림로 584번지)
6.2목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역사'	4.3평화공원 (예술과 문화로 만나는 4.3)	제주 도립 미술관		
6.3금	신의 선물 '사려 니 숲'	'사려니 숲길' 느끼고 누리고	이중섭 미술관	조별 자유일정 기획	동광 청소년 수련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6번지)
6.4토	오늘 나는 자유인	모듬끼리 자유일정 - 제주를 즐기자		자유일정 소감 발표	
6.5일	제주의 젓줄 '논짓물'	휴식	이곳이 제주! 논짓물	고기파티	안덕 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850번지)
6.6월	'비치코밍' 쓰레기가 예술로	재주도 좋아? 재주도 좋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길 9)			
6.7화	느껴라 제주 풍경	올레길 8코스	김영갑 갤러리		지구마을평화 대학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1725 번지)
6.8수	잊지말자 기억하자 '우리의 역사'	통오름	기억공간 Re:bon/황용운 선생님	'나쁜나라' 공동체 상영	
6.9목	제주와 마무리	하도해변	신나게, 찐하게, 플고 나누고 놀자! 고기파티		
6.10금	육지로, 집으로	제주항공 7C112편 am11:45	육지 도착!		
6.11토	짐풀고 다시 싸자!	여독 풀고! 다시 타대안 갈 준비			
6.12일	타대안 탐방	타 대안학교에서 뭐했어? 사진도 찰칵찰칵 좋은 추억 가득 안고 돌아오길.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마무리모임	오전 수업 후 출 발!	휴식	쌤들이 준비 한다!	산 어린이 학 교
6.18토	무빙에서 무엇을 했나요?	발표준비	우리끼리 움직이는 학교 발표회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		
6.19일	안녕				

빠빠바라바빠반의 움직이는 학교

1. 전체일정

▶기간 : 6월 1일 (수) - 6월19일 (일) 18박 19일

▶일정 장소 : 6/1 - 6/10 제주도 9박 10일

6/12 - 6/16 타대안학교 4박5일

6/16 - 6/19 마무리 모임 (산 어린이 학교에서 mt)

2. 함께 한 사람 : 김승훈 김예현 류소정 오다민 오승택 유한울 이영경 이재형 이창범 이한결 장경재 전하늘 전하진 최문형 최민정 최유경 김은지T 황선호T 정동석T

3. 생명의 동아줄 :)

은지선생님 연락처 010-9093-2714

선호선생님 연락처

동석선생님 연락처 010-7250-9940

4. 타대안 학교

학교	이름	주소	연락처
산돌 학교	이창범 전하진 최민정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357번지	031-511-3295
꽃피는 학교	김승훈 류소정 장경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2길 15-3번지	02-766-0922
배움터 길	이영경 최유경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1길43	
성미산 학교	전하늘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56-31번지	02-3141-0537
불이학교	오다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74	031-979-2012
거침없는 우다다	이한결 최문형	부산시 금정구 청룡예전로84	051-514-8812
온새미학교	오승택 유한울	부산 동래구 동래로79번길 19	051-256-3431
실상사 작은 학교	김예현 이재형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806	063-636-3369

탐나는, 탐라는 제주 알고 가기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며, 한국, 일본, 중국 등 동, 북 아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총면적은 1,849.2km², 부속섬은 8개의 유인도와 82개의 무인도가 있다. 인구는 약 56만 명 정도이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화산섬이며, 섬의 중심에는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은 강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구멍이 많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해안에서 용천으로 솟아오른다. 중산간에는 오름과 광활한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마을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에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2개의 시가 있으며, 7읍 5면이 있다.

제주 움직이는 학교 모듬 소개

의욕없조 - 오다민(조장) 전하늘 이창범 최민정



냉장고 나라 - 장경재(조장) 전하진 이재형 최유경



한울삼 - 김예현(조장) 오승택(조장) 유한울(조장) 최문형(조장)



이건뫼조 이영경(조장) 김승훈 류소정 이한결



식단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6/1		제주도 도착	제주 일도국수
6/2	이건뽕조- 동그랑땡, 콩나물국	도시락	냉장고나라- 닭볶음탕
6/3	한울쌈- 간장밥	마농치킨	의욕없조- 육군백마 부대 찌개
6/4	냉장고나라- 밀반찬, 밥	도시락	외식
6/5	의욕없조- 물 만둣국	도시락	고기파티 (한울쌈-돈육 김 치볶음)
6/6	냉장고나라- 주먹밥	한정식 외식	이건뽕조- 060특수부대찌 개-
6/7	한울쌈- 샌드위치	도시락	
6/8	의욕없조- 토스트	도시락	이건뽕조- 돈육 김치찌개
6/9	이건뽕조- 김치 볶음밥	물회, 바다 친구들	마지막 저녁은 고기다!!
6/10		육지로	

제주에서 우리는 : 탐라는 제주행성을 향해

찰칵 소리와 함께 담긴 너의 모습.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너. 너는 언제나 하염없이 주기만 하였다. -20160603 사려니 숲, 소정의 시 中

그렇게 짧고 굵었던 무빙은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듯하다. 나중에 내가 성장해온 과정들을 되돌아 볼 때 이 무빙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60720 한결의 제주 보고서 中

6/1 출발! 제주도

김포공항 집결, 제주로 도착, 일도국수, 절물 휴향림









1일차

다민- 비행기를 타고 왔다. 줄을 오래서고 버스를 오래타서 힘들었다. 도착해서 일도국수를 먹으로 갔다. 고기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를 먹었다. 먹고 나서는 버스를 타고 첫 번째숙소인 절물 휴양림을 갔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나르고 짐을 풀고 하루나누기를 하였다. 한건 없지만 힘들었다. 제주도 온게 실감이 안났다.

민정- 6월이 시작되는 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
쉬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일찍 제주도로 출발하는 일정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무빙을 통해 14아이들과 더 친해질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빙을 시작 해야겠다

소정- 제주도에서의 첫날이다. 다행히도 크게 움직이는 일정이 아니었긴 하지만 아침 일찍 준비하고 기차를 타느라, 여러번 버스를 타느라 벌써부터 조금 몸이 지치긴 했다. 그렇지만 기분은 매우 들뜨고 좋다. 출발하기 전엔 나만 가방이 크면 어찌지, 검색대에서 걸리면 어찌지 하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바다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 여기가 제주도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내일 아침밥은 우리조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몹시 귀찮다.

영경- 일단 공항에 10분 늦었다. 왜냐하면 국내선이 아니라 국제선공항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유경이 더 늦어서 꼴찌는 아니었다. 제주도에 도착했더니 바람이 엄청 불어서 좋았다. 일도국수는 양이 많아서 좋았지만 기대했던 멸치국수가 아니어서 슬펐다. 아직 제주도에 온 기분도 안난다. 그리고 숙소가 맘에 든다.

예현- 14학번 아이들과 6월의 시작에 제주도를 왔다.
우리반끼리 시간을 갖는게 정말 오랜만이여서 즐겁게 비행기에 탔다. 이틀만에 보는 건데도 웃음기가 가득한 우리반... 비행기 안에서 잘애들은 자고 놀 애들은 놀았다.나.소정.승훈은 제로 게임을 했는데 심심하진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내 발밑 가방에 있는 여우하품 대본을 외워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 불안 했다.제로게임을 좀하다 대본을 외웠다.마음이 급하니 잘 안 읽히는 부분이 있었다.무빙에 와서 대본을 외워야 한다는 생각, 다 외워야한다는 생각, 망치면 안된다는 생각등 걱정거리가 조금 있었다.다민,민정리와 함께 외울 수 있어서 다행인거 같았지만 무빙 내내 대본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일도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뭐 맛이 있었다. 절물숙소에 나무들과 약수터가 있어서 좋았다. 다들 무빙 첫날이여서 시끌시끌했다. 하루나누기를 하는데 아직 한게 없으니 이런저런 앞으로의 이야기들과 일도국수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친구가 비행기를 무서워하고 오기 싫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티를 안내서 몰랐는데 하루 나누기를 하며 알게되어서.하루나누기가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옆에서 발냄새가 너무 나서 코가 아프고 정말 싫었다.계속 나서 집중도 안되었다. 남자애들이 간식을 가지고 숙소에 돌아갈 때 안나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냄새가 스며들었다는 애들도 있었다.이제 제주의 시작이다.재미있게 보내고 싶다.아 여우하품 대본을 외우려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날 쳐다보고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냥 들어왔다.

문형- 제주도에 왔다. 아직 바다를 안 봐서 그런가? 제주도에 왔다는 게 아직 믿기지는 않는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아팠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빨리 도착한건 좋지만 짐이 들려고 했을 때 도착해버려 짜증났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일도국수를 먹으러 갔다. 아직 제주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엄청 헤매서 찾아갔다. 그래도 제주도 분들은 거리낌 없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덕분에 잘 찾아갈 수 있었다. 갔는데 우리가 시킨 메뉴와 다르게 나와서 당황 했지만 그래서 다들 맛있게 먹은 거 같았다. 양이 너무 많았다. 고기국수에다가 고기가 나오니 입술에 기름칠한 기분이었다. 당장 이를 닦고 싶었다. 40분정도 버스를 타고 오늘의 숙소인 절물휴양림에 왔다. 생각보다 엄청 좋았다. 하루 나누기를 할 때 너무 신이 나서 그런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웃었다. 즐거웠던 거 같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두렵다. 아직 무빙을 시작한 느낌이 아니라서 이제 집에 가면 될 거 같다. 이제 시작이다. 1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겠지? 잘 지내고 싶다.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경재- 드디어 제주도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들 때 짐을 싸고 갈색이었던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뒤 문형이와 함께 김포공항으로 나섰다. 3일만에? 박선지 언짢아 어색한감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잘 맞이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일도국수집에 가서 고기국수를 먹었다. 그전까지 고기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국수를 다먹고 서둘러 버스를 타 첫 번째 숙소자연절물휴양림에 가게되었다. 자연절물휴양림은 굉장히 경치가 좋았다.

하늘- 12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1시1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3시25분에 제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4시30분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저녁으로 제주 일도국수를 먹었다. 절물자연휴양림(숙소)으로 왔다.

창범- 집에서 엄마와 밥을 먹고 공항으로 출발 했다. 공항에서 처음으로 소정리와 승훈이를 만났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왔다. 그런데 유경이가 많이 늦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비행기를 타니 정말 기대가 됐다. 그리고 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면 신나게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에 도착해서도 힘들었다. 짐 챙기고 국수를 먹으러 가야해서 버스를 한참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를 열심히 타고 가서 국수집에 도착했다. 국수도 맛있고 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고기도 맛있었다. 그리고 바로 절물자연휴양림 출발 가서 짐이 밥을 먹고 씻고 잤다.

하진- 오늘 제주도 무빙을 가는 날 이다.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다. 버스에서 국제선 내리라는 걸 잘못 듣고 내려버렸다. 나는 국내선 인 줄 알고 공항 안에 들어갔는데 환전소가 있어서 당황 했다. 국제선 인 걸 알고 국내선에 가기위해 무료 순환 버스를 타고 국내선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 하는 곳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줄이 굉장히 길었다.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 그 와중에 내 가방 무게가 10KG가 넘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도 했다. 하지만 가방 무게를 안 잤다.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제주 일도국수집을 가서 친구들은 국수를 먹고 나는 국밥을 먹었다. 영경이의 열무국수를 얻어 먹었다. 맛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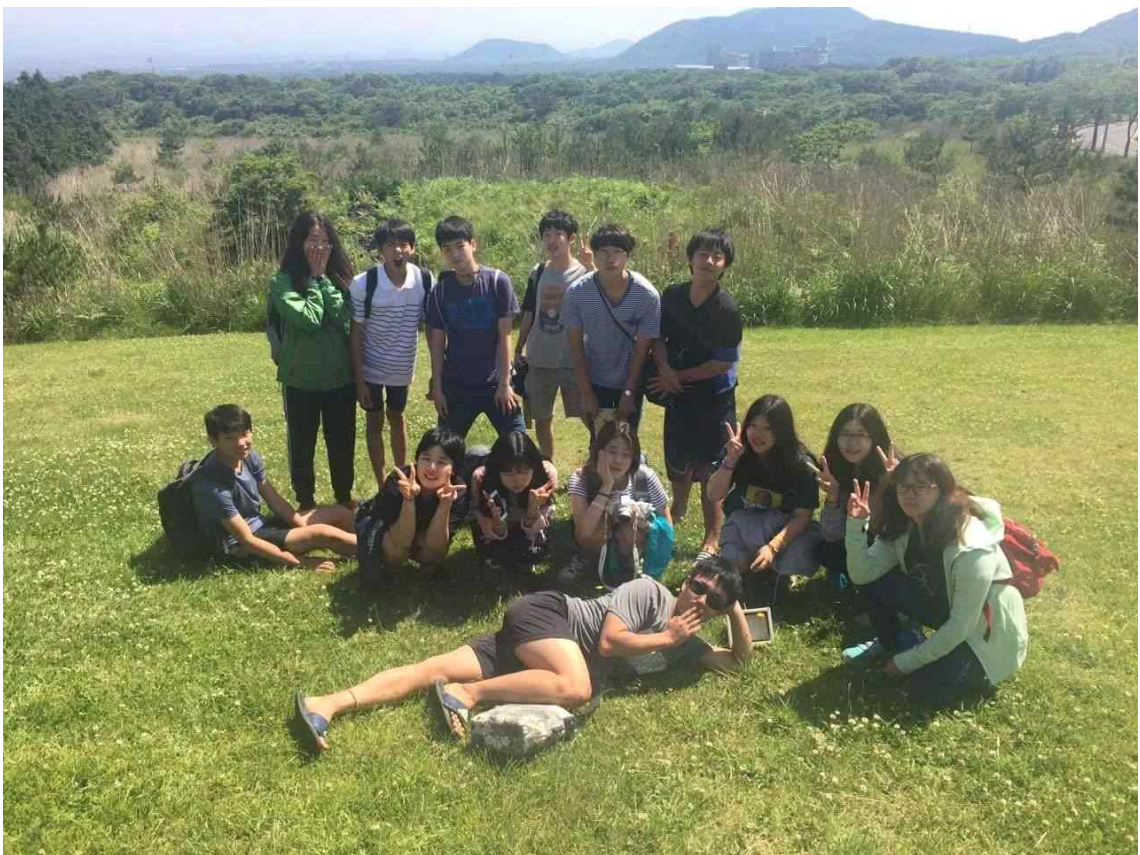
재형- 제주도 무빙의 시작 제주도에 처음으로 간다. 비행기는 타본 적이 있었다곤 하지만 적어도 나의 기억 속에서 첫 번째 비행이다. 학교에서도 비행을 하지 않기에 첫 번째가 맞다. 비행기를 타고서도 제주를 간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내린 후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같은 국경이니 다를 것도 없지만 그냥 대한민국이었다. 들떴다. 휴양림에 가서도 좋았다. 그냥 좋았다. 다음날 일정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제주의 밤이었다. 밤하늘을 보기 보단 텔레비전을 봤다.

유경- 김포공항 집합. 멍청한 내가 국제선과 국내선을 헷갈려 좀 많이 늦는 해프닝이 있기가 했으니 어찌어찌 비행기는 탔다. 기분이 정말 최고조였다. 날씨가 유난히도 좋아서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몽실몽실한 구름들에 최문형이랑 예쁘다며 난리를 쳤던 것 같다. 짧은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제주도의 첫 인상이란, 삼다도라는 별칭에 걸맞게 엄청난 바람 속에 잔기가 묻어 난다는 정도. 약간은 비린 바다냄새가 제주도라는 걸 실감시켜주지 않았나 싶다.

6/2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역사

4.3 평화공원, 제주도립미술관











소감 2일차

하늘- 8시에 숙소에서 제주4.3평화공원에 9시에 도착해서 선호쌤이 4.3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셨다.점심으로 쌤들이 사오신 김밥을 먹고 제주도립미술관에 갔다.강요배 화백의 그림들을 보았다.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다.

재형- 먼저 4 . 3 평화공원을 가기 전 학교에서 김정환 선생님이 해주신 4 . 3 이야기와 영화 “지슬” 을 보고서는 사실 와 닿는 게 별로 없었다. 아직도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4 . 3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교육청과 선생님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되게 아픈 일이고 알아야 할 진실인데 왜 이제야 새로운 일로 다가올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대부분 신선함을 느낀다. 4 . 3은 신선함보다는 놀라움과 분노가 컸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과 그쪽에서 자리 좀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한 짓에 대해 알았을 때’ 나쁜 저 밑에 나라 사는 놈들이 아닌 같은 민족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더 충격을 준다.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많이 와닿게 되었다. 제주 도립 미술관은 가기 전부터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됐다. 그림을 보는 것이 좋았고 4 . 3평화공원을 간 후 그 역사에 살았던 강요배의 그림이 보고 싶었다. 그림이 되게 멋있었다. 특히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절물에선 저녁밥을 했는데 모둠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루가 재밌었다. 새로웠고 주변 풍경이 모두 제주다워서 좋았다.

영경- 4 .3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

건에 대해 알게 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중간 중간 이동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다.

예현-아침부터 바람이 좋아 상쾌했다.약수터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셨다.어제 날 보고있는듯한 여자는 십이지신들의 동상이었다. 4.3평화공원에 가는데 경지도 좋고 걸어가는게 좋았다.애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다. 누가 보면 사진을 찍으로 제주에 온거 같았다.몇몇은 그럴지도..사진도 맑고 시원하게 나와 다들 좋아하는거 같았다.말도 보았다.말이 좋다.4.3을 기념하는 곳이있어서 좋았고 그곳을 내가 보러가는 게 감사했다. 거기 가서 4.3에 관련된 것들.역사들을 배울수 있어 좋았다.선호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했는데 난 좀더 천천히 보느라 설명하실 때 나는 다른 걸 읽고 있었다.다음에 다시 오고싶다 생각했다. 다같이 밖에 나와 김밥을 먹었다. 어제 마니또를 뽑아서 마니또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우리반기리 무빙에 하는 마니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흠.. 와 밥을 다먹고 뒤에 동산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너무 예뻐다.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신났었다.사진도 찍고 소리도 내고 뛰고 영상찍고 좋았다.이런 공간을 보니 제주도였지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던거 같다.버스를 타고 도립미술관으로 갔다. 가는데 버스가 너무 안와서 편의점에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계속 안 오길래 약간 위험한 시간을 남겨놓고 편의점에 한번 더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버스가 와서 바로 뛰었지만 버스는 가버렸다.애들이 많이 지친표정이 였는데 버스까지 놓치게 되어서 미안했다.다행히 얼마안있어 버스가 왔다.도립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슬슬 지쳐가는 거 같았다.아이스크림 하나씩먹고 미술관에 들어갔다 미술관도 좋고 그림들도 좋았는데 아쉬웠던건 자꾸 집중을 못했다.그림을 유심히 보고 이리저리 보고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봐야했던점이 너무 아쉬웠다.글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몸따로 마음따로 였던거 같다.내그 집중을 못했던것도 있겠지만. 숙소에 올때도 버스를 타고 왔다.버스안에서 대본을 외워야지 하며 잠이 들었다.숙소에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되서 안성되는 시간까지 게임을 했다.한글삼육구와 아이엠그라운드라는 게임 와 정말 살벌했다. 여기저기서 등빨게지는 소리밖에 안들렸다.그래도 애들이 활력이 생겨나는 거 같아 좋았다.계속 해도 밥이 안되서 방으로 들어가 짐도 싸고 누워있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다.오늘 좋았는데 시간이 아쉽다.풍경과 바람은 정말 좋다.삼다~ 돌·바람·여자 여우하품연습을 밤에 다민.민정이와 했다.역시 난 보고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상이라는걸 알고 나니 엄청 무섭진 않았다. 대본이나 외워야지 말고 있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 하면 좋을까..

문형 - 두 번째 날 밤이 왔다. 시간은 느린 듯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아직도 제주도에 온 느낌은 아니다. 오늘은 버스를 정말 많이 탔다. 제주도는 서울과는 다르게 버스 시간 간격이 길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다. 기다리는 건 많이 지쳤지만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보며 노래를 듣는 시간은 좋았던 거 같다. 오전에는 4.3 평화 기념관에 갔다.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선호 쌤이 하나하나 자세히 해주시는 설명이 좋았다. 다른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평화 기념관에 집중을 못했던 거 같다. 그래도 아예 몰랐던 4.3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기분이었다. 분명 제주도에 많이 왔었는데 4.3에 대해서는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많이 오는 곳이지만 와서 4.3에 대하여 알고 가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다. 점심을 먹고 쉬는데 평화공원 주위에 엄청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서 달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엄청 즐거웠던 거 같다. 멀리 바다도 보이고 여기가 제주도구나 이런 느낌? 짧은 시간 이였지만 엄청 아름답고 좋았다. 도립미술관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다. 그래서인지 기대도 안 되고 얼른 보고 숙소에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전시가 너무 좋았다. 그분이 어렸을 때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다. 얘기가 그런 그림 같았지만 엄청 잘 그려서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던 거 같다. 오늘 하루 버스를 너무 많이 타서 피곤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하루이지 않았나 싶었다. 4.3에 대해 전문가처럼 알게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주 조금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숙소도 옮겨야 하고 사려니 숲, 올레시장 피곤할 거 같지만 그만큼 제주도에 온 느낌이 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활동을 하면서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순간순간 즐거운 게 굉장히 큰 거 같다. 소소하게 즐겁다. 어디서든 소소하게 즐거운 일은 많다. 제주도여서 즐겁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아니었으면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즐거워서 다행이고 즐거워서 좋다.

경재 - 4.3평화 공원에 가서

선호쌤께서 각각 설명을 해주셨고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들 도 보게되었다..

점심으로는 푸짐하게 김밥 2줄이었다. 굉장히

제주 도립 미술관에 갔다. 우리 냉장고 나라가 저녁으로 닭 볶음탕을 만들었다.

창범- 오늘은 43평화공원에 갔다. 공원에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또래에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박물관처럼 된 곳이 있었는데 설명해주는 가이드 같은 분이 없어서 선호쌤이 대신 설명을 해줬다. 점심을 먹고 강요배 선생님 미술관을 갔다.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힘을 내어 열심히 가서 도착했다. 미술관 관람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다.

하진- 제주 4.3 평화 공원을 갔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지만 4.3 평화 공원에 가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점심밥으로 김밥을 먹었는데 고추가 들어 있어 그런지 매웠다.(부들부들) 다음 제주 도립 미술관을 가는 길 이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 버스가 하도 안와서 나와 예현,다민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아이스크림을 사서 왔는데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단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과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져서 시간이 빠듯 한 거 같았지만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버스가 저 멀리서 오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은 사지않은채 달렸다. 근데 신호등은 빨간 불이고 차가 뽕뽕 달려서 어떻게 건널 수 없었다. 좀 기다리다 그냥 무단횡단을 해서 버스정류장에 갔더니 버스는 출발 해 버려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었다. 너무 미안했다,완전 후회된다. 버스라도 금방 오길 바라며 기다렸다. 버스가 10분안에 와서 너무너무 다행이였다. 그렇게 제주 도립 미술관 까지 도착했다. 제주 도립 미술관에서 그림을 봤는데 되게 멋있었다. 미술관 구경을 다 하고 냉장고 나라 조(유경,재형,경재,하진)는 저녁 식사당번이여서 학교 차를 타고 숙소에 들어왔다.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이 였는데 힘들었다. 닭 피 빼고 삶고 간보고...닭을 삶는 동안 남자애들과 여자애들과 게임을 했다. 아이엠 그라운드,한글 369,침묵의 007뽕 등을 했다. 애들이 너무 세계 때려서 아팠다. 등에 피멍 든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재밌었다:)

다민- 4.3평화공원과 제주도립미술관을 갔다. 4.3평화공원에서는 선호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다. 4.3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았다. 설명을 들으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았다. 다신 이런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강요배화백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강요배화백의 작품중에서 '동백꽃지다'라는 4.3에 관련된 작품이 있었다.

유경- 평화공원은 제주도 일정 중 손에 꼽을만큼이나 인상적인 기억이었다. 절물에서 걸어가는 길도 너무 좋음. 유난히도 새파란 하늘에 날도 너무 좋았고. 걷는 게 좋았던 적도 참 오랜만. 짧게 걸어 도착한 4·3 평화공원. 실은 그 전에 학기 중 있었던 정환쌤의 교육 때는 자는 게 대부분이었... 선호쌤이 말씀을 잘해주시기도 하셨고, 재생되는 영상들이나 글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뚜렷이 남는다. 예전에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기록한 책이었다. 읽는 내내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시관들을 둘러보며 어느 정도 동일한 감정이 들었다. 죄없는 사람들은 왜 희생되어야 했고, 그들은 왜 그렇게나 무참한 짓들을 했는지. 아무리 곱씹어도 나지 않는 결론에 더욱이나 그 끔찍한 짓들이 체감되었다. 사실 미술관도 좋았다. 중간중간 벽에 적힌 글귀들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림도 이해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심오해보이는 느낌적 느낌

하루나누기

유경 : 저는요 사실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닭 볶음탕 만든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나름 잘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10차 된 것 같아요. 집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열심히 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 어... 오늘 프로그램은 4.3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 갈수 있는 시간이었던것 같았구 오늘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무리수를 뒤서 시간을 못 맞춘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열정적으로 해서 매우 피곤합니다.

동석T : 어제보다는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좀 덜힘들어서 그런가 모듬별 자유 여행이 잡혀있으니까 저는 모듬별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자꾸 기다리는 시간도 기다려지고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쌤들도 애들 힘들까봐 자꾸 계획 짜고 하는데 사실 애들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자꾸 애들이 따라가는 느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경이와는 좀 다르게 재밌어지고 있는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갈 때는 조금 더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훈 : 어.. 오늘 4.3 관련 된거 해서 좋았어요 버스가다리다가 좀 지쳤어요. 내일은 재밌을 것 같아요.

창범 : 저요 저는 요 어.. 버스를 타는데 왜 이려고 있는지 몰랐어요. 버스에서 잠도 못 잤는데 미술관이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는데 또 막 버스 한 시간 기다려야한다 그러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내일은 이미지

한울 : 지금 이틀 째 아주 행복합니다.

재형 : 저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말로만 듣던 4.3 사건을 나에게 더 와 닿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어요.

은지T :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뭐 걷거나 할 때도 바람도 적당하고 해가 쬐기는 했지만 되게 예뻐던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걸어갈 때 저랑 동석 쌤 이랑 애들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주고 싶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쌤들한테 감사했어요. 4.3 보면 되게 허망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시 하는데 불합리한게 누구한테는 합리적으로 되는게 애통한 마음이었어요. 도립 미술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가면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집 채킹을 하는데 교복 입은 친구들이랑 우리 친구들을 번갈아보니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늘 : 평화공원이랑 미술관 가서 좋았어요.

영경 : 버스 기다리는 건 지쳤지만 4.3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선호쌤이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열심히 게임을 한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민 : 어 일단은 버스 놓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후회스러워요. 저도 버스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렌트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4.3 공원 간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주도 온게 실감이 나네요.

소정 : 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체력적으로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지도 않았고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3학년 무빙이 제일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4.3에 관련 된 걸 돌아봤는데 그 전에는 되게 걸만 아는 느낌이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선호쌤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구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제주도가 너무 재밌어요.

한결 : 오늘은요 팬찮은 날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타는게 너무 싫었어요. 타면은 덥고 습하고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차라리 바람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는게 너무 좋았어요. 일정은 일단 도립미술관은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좋았어요. 그림을 가까이서 봤는데 이상해서 멀리서 봤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4.3 공원을 갔는데 배웠을 때는 뭐가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났는지만 알았는데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숙소에 와서 노루하고 말을 봤어요. 굉장히 좋은 하루였고 사려니 숲길을 한 번 가봤는데 되게 좋아요 안 힘들고 좋았어서 되게 기대되요.

선호T : 나는 무빙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무빙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건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친구들을 보는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즐거웠다고 하고 재밌었다고 하고 기대된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 줘서 기분이 좋구요. 사실 선생님들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나로 인해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하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고 4.3이란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참고로 제가 4.3을 처음알게 된게 좋아하던 노래패가 있었는데 그 노래패에 제주도에 관

런된 슬픈 노래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묻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제주도 다니면서 내가 아직 모르는게 많구나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도 주위에 4.3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형 : 어 저는 일지에다가는 되게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좋았던 것 같아요 도립미술관이 너무 좋아서 평화공원이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알게 된 건 많지만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구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4.3에 대해 엄청 많은 걸 알게 된 걸 알게 될 것 같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이해를 잘 못해서 네 그렇구요. 버스를 많이 타서 피곤하긴 했는데 재밌기도 했어요. 그 봉고차 짐칸에 탔는데 애들이랑 노니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도립미술관에서 엄마라는 주제로 크레파스로 그린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아직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은 잘 들지 않지만 내일 하루 보내면서 더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정 :저는요 되게 버스 타는 것 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컨디션도 안 좋는데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다운 됐는데 그래도 도립미술관을 갔더니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서 4.3이라는 주제를 보니까 되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서 맘에 드는 그림을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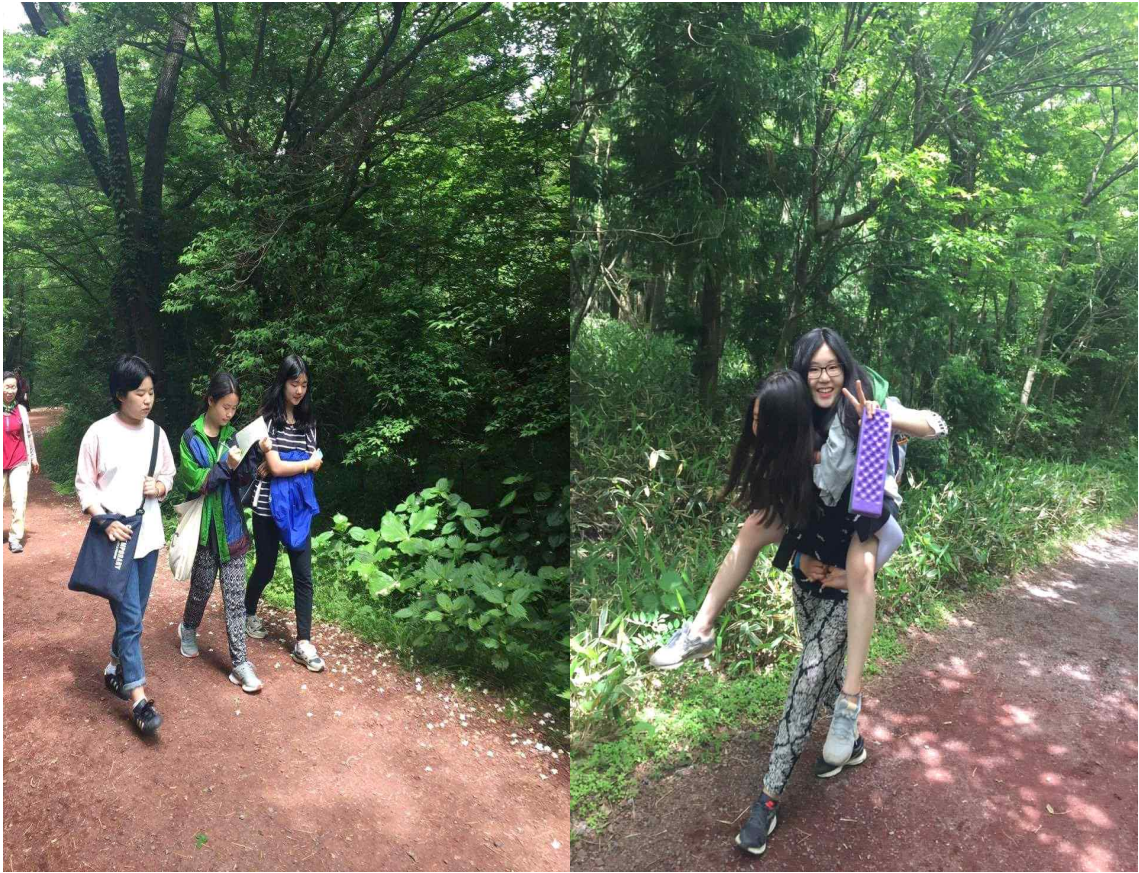
경재 : 강요배 씨가 하신 동백꽃 지다라는 주제의 그림들이 보기 좋았구요. 그리고 4.3 평화공원에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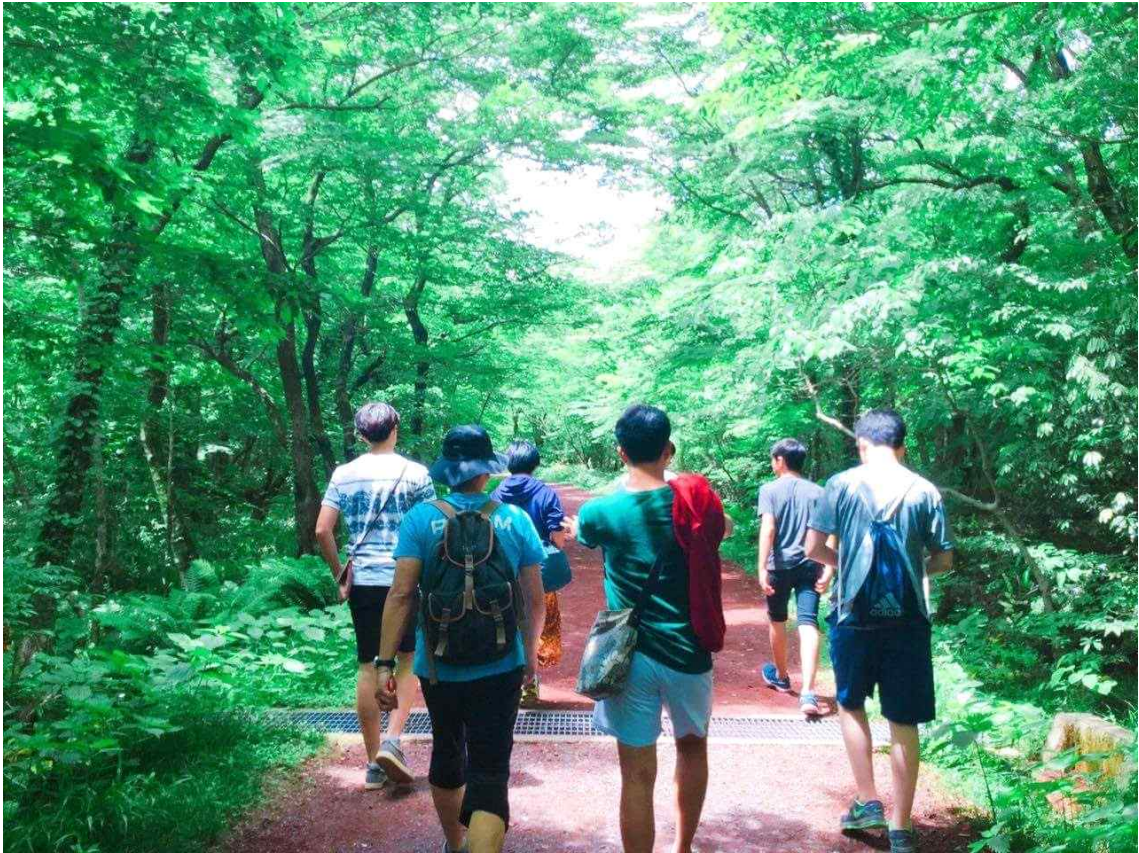
예현 : 저는 어 아침부터 바람이 좋아서 상쾌했어요 그리고 4.3평화공원 가는데 좋았어요 김밥도 매콤해서 좋았어요 제 마니또가 즐거워 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도립 미술관도 좋았는데 집중을 못해서 아쉽고요 버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저녁한 냉장고 나라 조 수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람이 좋았어요ㅎㅎ

승택 : 4.3 평화공원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선호쌤이 참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술관은 살면서 정말 안 가봤는데 너무 좋은 그림을 발견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봉고차 짐칸에 타서 왔는데 버스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무서웠습니다.

6/3 신의 선물, 사려니 숲

사려니 숲길, 이중섭 미술관









소감 3일차

민정- 사려니 숲에 갔다 처음엔 푸릇한 나무를 보는 좋은 기분으로 출발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긴 코스에 지쳤다 딱 반코스만 줄이고 걸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3시간 정도 걷고 점심으로 맛있다는 마농치킨을 먹으러 갔다 정말 맛있었다 육지에서도 마농치킨을 찾아봐야 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마농치킨을 먹고 근처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어 미술관으로 조끼리 이동했다 이중섭 미술관은 내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소였는데 다시 다른 사람들과 가보게 되니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중섭 거리에서 조끼리 사진도 찍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새로운 숙소 동광청소년 수련원에 갔다 12시 50분이다 다행히 점점 즐거워지고 있다.

소정- 사려니 숲'에 갔다. 여러 의미로 큰 기대는 안했었는데 예뻐다. 그렇지만 온통 초록색에다 2시간 30분이나 걸었기 때문에 후반에는 조금 지루하고 발바닥이 터질 것 같았다. 풍경을 보기 보다는 걷는 것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다. 도착해서는 선생님이 사주신 핫도그를 먹고 '올레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아 최유경과 이영경은 한시간 반이나 뒤쳐져 그냥 버리고 우리끼리 먼저 갔다. 그리고 가는 버스에서 외국인이 영어를 쓰며 뭘 물어봤는데 김승훈이 친절하게 알려드렸다. 웃겼다. 가자마자 수요미식회에 소개됐었다는 '마농치킨'에서 마농치킨을 먹었다.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는 일정이 조금씩 바뀌어 가장 먼저 조별로 만원치의 저녁에 먹을 간식을 사러갔는데, 영경이의 빈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우리는 파배기를 샀다. 그리고는 바로 다시 조별로 근처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으로 이동했다. 그림 보다는 생전에

아내분께 쓰셨던 편지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종섭선생님은 무서울 정도로 집착이 심해 보였다. 2층에는 도립미술관에서 보았던 강요배 화백의 또 다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옥상과 생전 사시던 집에서 사진도 엄청 찍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가는 길에 '이건 뭐조' 친구들과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마셨다. 자몽에이드는 그냥 달기만 했다. 버스를 타고 바뀐 숙소로 가기 위해 동광 육거리에 내려 '동광 청소년 수련원'으로 갔다. 저녁은 비빔면이었는데 많이 먹었다. 밤에는 어제 못한 가족회의도 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쁜 일정이었고 많이 움직였다. 그래도 여행같은 느낌으로 다닐 땐 뽀뽀한 일정을 좋아하기에 발바닥은 터지는 줄 알았지만, 마음에 들었다. 내일은 자유여행이라 더 기대된다.

창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숙소를 떠났다. 가같이 사려니숲으로 차에 짐을 싣고 10킬로를 걸었다. 나는 재형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다. 걷다보니 다 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영경이와 유경이가 너무 늦게 와서 우리가 먼저 통닭을 먹으러 같다. 유명한 마늘 치킨집이었다. 치킨을 먹고 모듬활동을 좀 하다가 숙소로 갔다. 숙소가 정말 좋았다.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이 있었다. 우리는 족구를 하면서 놀았고 밥을 먹고 몰래 TV를 보다가 잤다.

영경- 4.3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중간 중간 이동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다.

예현- 아침부터 바람이 좋아 상쾌했다. 약수터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셨다. 어제 날 보고있는 듯한 여자는 십이지신 동상이었다. 4·3평화공원에 가는데 경치도 좋고 걸어가는게 좋았다.애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다.누가 보면 사진을 찍으로 제주에 온거 같았다.몇몇은 그럴지도..사진도 맑고 시원하게 나와 다들 좋아하는거 같았다.말도 보았다.말이 좋다.4·3을 기념하는 곳이있어서 좋았고 그곳을 내가 보러가는게 감사했다.거기 가서 4·3에 관련된 것들.역사들을 배울수 있어 좋았다.선호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했는데 난 좀더 천천히 보느라 설명하실 때 나는 다른걸 읽고 있었다.다음에 다시 오고싶다 생각했다. 다같이 밖에 나와 김밥을 먹었다. 어제 마니또를 뽑아서 마니또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우리반기리 무빙에 하는 마니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흠.. 와 밥을 다먹고 뒤에 동산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너무 예뻐다.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신났었다.사진도 찍고 소리도 내고 뛰고 영상찍고 좋았다.이런 공간을 보니 제주도였지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던거 같다.버스를 타고 도립미술관으로 갔다.가는데 버스가 너무 안와서 편의점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계속 안 오길래 약간 위험한 시간을 남겨놓고 편의점에 한번 더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버스가 와서 바로 뛰었지만 버스는 가버렸다.애들이 많이 지친표정이 었는데 버스까지 놓치게 되어서 미안했다.다행히 얼마안있어 버스가 왔다.도립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슬슬 지쳐가는거 같았다.아이스크림 하나씩먹고 미술관에 들어갔다 미술관도 좋고 그림들도 좋았는데 아쉬웠던건 자꾸 집중을 못했다.그림을 유심히 보고 이리저리 보고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봐야했던점이 너무 아쉬웠다.글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몸따로 마음따로 었던거 같다.내그 집중을 못했던것도 있겠지만. 숙소에 올때도 버스를 타고 왔다.버스안에서 대본을 외워야지 하며 잠이 들었다.숙소에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되서 안성되는 시간까지 게임을 했다.한글삼육구와 아이엠그라운드라는 게임 와 정말 살벌했다. 여기저기서 등빨게지는 소리밖에 안들렸다.그래도 애들이 활력이 생겨나는 거 같아 좋았다.계속 해도 밥이 안되서 방으로

들어가 짐도 싸고 누워있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다. 오늘 좋았는데 시간이 아쉽다. 풍경과 바람은 정말 좋다. 삼다~ 돌·바람·여자 여우하품연습을 밤에 다민·민정이와 했다. 역시 난 보고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상이라는걸 알고 나니 엄청 무섭진 않았다. 대본이나 외워야지 말고 있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 하면 좋을까..

문형- 오늘은 진짜 빠르게 하루가 지나갔다. 어제 밤에 늦게 잤는데 아침에 밥조라서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다. 원래 아채죽이었는데 하기도 어렵고 배도 너무 금방 꺼져서 더 쉬운 간장 밥으로 메뉴를 바꿨다. 근데 그 쉬운.. 밥과 달걀후라이만 하면 되는 것을.. 달걀 후라이는 문제가 없었다. (난 건드리지도 않았기에..) 내가 밥을 했는데 진짜 망했다. 설익고 3층밥이 됐다. 8시까지 밥이었지만 나 때문에 8시 20분에 먹었다. 너무 절망스러웠다. 아침부터 너무 멘봉이었다. 그래도 애들이 내 탓 안 해주고 옆에서 계속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간장 밥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이제는 내가 밥 하면 안 될 거 같다. 어찌어찌 밥을 다 먹고 숙소를 옮겨 야해서 절물휴양림을 치우고 사려니 숲으로 떠났다.

사려니 숲은 걷는 거라서 기대도 안됐지만 차로 7~8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서 걱정도 안됐다. 학교에서 덕산 정도?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걸으니 기분도 좋고 지나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예뻐다. 그러다가 표지판을 봤는데 15km라서 당황스러웠다. 한시간정도만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보였다. 길긴 길었지만 좋았다. 내가 왜 걷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좋았다. 끝에 도착했는데 유경이랑 영경이가 너무 안와서 핫도그를 먹고 은지 쌤과 우리는 먼저 버스를 타고 올레 시장에 갔다. 가는 길에 바다가 보여서 너무 좋았다. 제주도에서 처음 본 바다 이었다. 얼른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다. 올레 시장에 가서는 마늘 통닭을 먹었다. 창기 오빠가 오승택한테 제주도 가서 꼭 먹으라고 했던 치킨이라고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다. 막 엄청 심각하게 맛있지는 않았지만 치킨너겟 맛이 나면서 맛있었다. 다 먹고 각자 조끼리 모여서 시장구경하면서 저녁에 다 같이 먹을 간식을 샀다. 딱히 살 것이 없었다. 특히 돈도 만원이라서 더 살게 없었다. 아무것도 못 고르고 있다가 시간을 다 돼 버려서 방울토마토를 샀다. 다들 사고 모여서 유경이랑 영경이랑 합류했다. 원래 숙소에 가는 거였지만 이중섭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서 이중섭미술관까지 보러 가기로 했다. 모듬끼리 움직였다. 이중섭미술관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엄청 좋아서 기대되었다. 그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 이었지만 좋았다. 2층에서는 특별전을 하고 있었는데 도립미술관에서 봤던 강요배 선생님 작품이어서 뭔가 운명 같았다. 나와서 다른 모듬은 기념품 가게도 가고 이중섭거리를 구경했다. 우리 조는 1분 정도 구경하더니 그냥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운 좋게 버스가 바로 와서 제일 빨리 숙소 가는 버스에 탔다. 가서 먼저 씻을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 밖에 바다도 보이고~ 신이 났다. 짐을 옮기기도 바로 씻었다. 진짜 너무 좋았다. 숙소 시설도 좋고! 씻으니깐 애들이 왔다. 엄청 상쾌했다. 저녁으로 비빔 면을 먹고 미니 가족회의를 했다. 별 이야기 안할 줄 알았는데 시간약속이야기를 하다가 늘어졌다. 기분이 오락가락 했던 거 같다.

오늘 날씨는 찌뿌둥했지만 제주도에 온 느낌이다. 아직 3일밖에 안됐지만 지금까지 보낸 날 중에 가장 좋았다. 그렇지만 끝에 너무 쳐졌다. 내일이 너무 걱정되고 겁난다.

경재- 사려니 숲길을 걷게 되었다. 꽤 힘들었지만 숲길이어서 인지 그늘도 있고 시원시원했다. 사려니숲을 다 걸은뒤 선생님 들이 핫도그를 사주셨다. 오래걸어서인지 정말 맛있었지만 은지쌤께서 못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아쉬웠다. 마늘 치킨을 먹으러 시장에 가는 버스를

타는데 어떤 미국아저씨? 깨서 오셔서 향수 제품을 마음껏 체험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시장에 도착한뒤 형들이 그토록 맛있다는 마늘 치킨을 먹게 되었다 굉장히 맛있었지만 형들이 말한 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각 조마다 간식을 사고난 뒤 2번째 숙소 동광 수련원 에 갔다. 여자 방이나 남자 방이나 전부 오픈 돼있어 좀 그랬지만 그래도 샤워실이 좋아 괜찮았다. 그리고 동석쌤과 함께 우리반 남자애들 과 설거지모아주기 로 족구대결을 했다. 첫 번째 게임에는 내가 정말로 못해 아침 설거지를 해야했고 두 번째 게임에는 여전이 전보다는 나아지만 여전히 못했다. 하지만 동석쌤 깨서 숨겨온 족구 실력을 뽐내 셔서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다. 상대팀 에 아쉬운 재형이는 동석쌤 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겼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녁 에는 승리에 쾌감과 함께 비빔면을 먹고 3학년끼리 가족회의를 했다. 안건이 없을 줄 알았지만 은 지쌤 깨서 시간약속 에 대한 안건을 내주셔서 얘기를 나눈 뒤 간식으로 각조 마다 시장에서 사온 간식을 먹었다.

재형- 사려니 숲길은 가기 전부터 많이 기대가 됐다. “제주도는 역시 자연이지” 난 자연을 보고 싶었다. 숲이 좋았다. 마냥 좋았다. 얼마나 걷는지 모를 때 까지는 그 당시 날이 글게 막 덥진 않았지만 숲은 시원하니 좋았다. 주변에 풀과 나무가 많았고 나무에는 이름표가 붙어있어 그 이름 보는 게 재밌었다. 한 2시간 반 걸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힘들긴 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 많이 힘들었겠지만 기다려주고 싶진 않았다. 그 친구들은 잘 올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진 않다. 하튼 좋은 시간이었다. 이중섭 미술관은 이 전부터 많이 얘기를 들은 곳이었다. 이중섭은 예전에 봤던 미술교과서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더 궁금했다. 이중섭의 그림보다는 삶과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림이 많이 없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 2층에는 강요배의 그림이 더 있었다. 도립 미술관에는 없던 그림이었는데 비슷한 느낌의 그림도 있었고 도립 미술관에서 본 것 보다 더 세밀한 그림도 있었다. 강요배의 그동안의 그림집이나 전시활동에 대한 전시물이 있었는데 4 . 3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날은 숙소를 옮겼다. 동광 청소년수련원으로 갔다. 운동장이 넓어서 좋았고 티비가 커서 좋았다. 물론 보지는 않았다. 아마 이날 가족회의를 한 것 같다. 가족회의가 재밌었다. 별 얘기 아니었는데 재밌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아마 나만. 재밌는 하루였다.

하늘- 8시에 숙소에서 올레시장으로 왔다.점심으로 마농치킨(마늘치킨)을 먹었다.시장에서 간식을 사고 이중섭 미술관으로 갔다.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보고 동광 청소년 수련원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토요일 자유여행 계획을 짰다.

하진-오늘은 사려니 숲길은 간다. 내가 생각한 사려니 숲길은 얼마 안 걸리는 짧은 숲길 인 줄 알았다. 초반엔 신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너무 길었다.10km가 넘는다고 했다. 중간쯤 왔을 때 안 걷고 싶었다. 영봉보다 힘든 느낌이었다. 체력적으로는 영봉이랑 비교가 안 되는 데 다리가 너무 아팠다. 막 바지춤 들어서는 나와 반대쪽으로 걷는 사람들을 보면 저 분들도 마지막 즈음 녹초가 되어 계실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 숲길이 비슷한 길만 있는데 그 길은 4시간 정도 걸으니까 너무 지겨웠다. 헉헉 숲길을 다 걷고나서 핫도그를 먹고 버스를 탔는데 외국인이 길을 물어 보길래 김승훈이 영어로 대답해줬다. 너무 신기했다. 멋있었다. 올레시장 도착! 올레시장에서 마늘 치킨을 먹었다. 짭 맛있었다. 다 먹고 시장에서 모듬별로 간식을 샀다. 우리 조는 도너츠를 사서 마늘 치킨집에서 모든 조가 다 모였다. 원래 예정에는

없던 이종섭 미술관을 가게 되었다. 제주 도립 미술관 때 보다 이종섭 미술관에서 더 집중을 해서 본 것 같다. 다 둘러보고 모듬별로 사진 찍고 가는길에 어떤 귀여운 가게가 있길래 들어갔다. 유경이가 갖고싶은 물건이 있다길래 생일선물로 사줬다. 다민,유경,창범,재형,하진은 갈라를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다. 다민이가 져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그러곤 버스타고 숙소에 도착했다.저녁에 가족회의를 했다. 바위처럼도 불렀다ㅎㅎ

다민-사려니숲과 올레시장을 갔다. 숙소에서 걸어서 사려니숲무료셔틀버스가 있는곳 까지 걸어갔다. 가는길이 예뻐다.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사려니숲에 도착했다.약10km를 계속 걸었다. 사려니숲은 정말 예뻐다. 계속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다. 너무길어서 지치고 배고팠다. 긴숲을 걷고 나서 버스를 타고 올레시장으로 갔다. 올레시장에서는 저녁을 먹었다. 마농치킨(마늘치킨)을 먹었다. 마농은 마늘의 제주도 사투리 라고 한다. 다들 맛있게 먹었다. 맛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다먹고 나서는 저녁에 먹을 간식을 조별로 샀다. 우리 의욕없조는 오메기떡을 샀다. 다른조들은 방울토마토, 도너츠를 샀다. 다사고 나서는 조별로 이종섭미술관을 갔다. 이종섭미술관에 강요배화백의 그림도 있었다. 이종섭미술관에는 익숙한 그림들도 있었다. 그리고는 동광청소년수련원(숙소)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하고 하루나누기를하고 4일차에 갈 자유여행을 계획했다.

유경- 셋째날은 지옥의 초록미로. 이름에 배신 당한 사려니숲에 갔다. 너무 길었어... 내가 10km를 걸어보다니... 이령경이랑 낙오되서 기다리신 선호쌤과 동석쌤에게 너무 죄송했다(은지쌤사랑해요). 차를 타고 시장에 있는 애들에게로 가서 밥을 먹었다. 밥은 아니구 치킨. 맛!있!었!다! 그리고 예정에 없이 조별로 흩어져 이종섭미술관에 갔다. 거기도 좋았다.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안에도 되게 좋았다. 이종섭 화가의 그림들과 아내와 나는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안타까운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는 의욕없조와 아이스크림 내기를 해서 다민이가 4000원을 썼다. 후후.

한결의 제주- 매우 짧은 듯한. 그러면서도 굶은 생각들을 던져 주었던 무빙인 듯하다. 지쳤던 학교생활에서 여행지의 느낌이 강한 제주도에 오다보니 해방감에 빠져 휴식, 즐거움에 치우치게 되었는데 이 점이 후회되기는 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좋기도 하다. 결국 균형을 잘 맞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무빙과는 관계없는 제주도 밖에 일을 생각하다 보니 무빙에 집중하지 못했다. 제주도에 와서 잡념을 깨끗이 비워놓으려 했는데 오히려 쌓아 놓 것 같아 허탈하기도 하다. 반 아이들과의 관계는 문제는 없었지만 가깝지도 않았다. 무빙을 진행하면서 여자아이들과의 벽이 쳐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만든 벽인지는 모르지만 후회도 되고 가끔 소외감도 들기도 했다. 나는 관계에 매우 서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내가 애들한테 주었던, 준 것 같은 상처들을 되짚어보았다. 무빙을 통해 우리반 아이들은 매우 멋지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아쉬운점, 속상한 점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이 내가 알던 아이들과는 달랐고 매우 착하다 착한 아이들이란 것도 다시금 되새겼다. 물론 걸로 표현은 하지 않았다. 이번 무빙때 만큼은 살짝 표현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일정은 매우 편했다.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편해서 더 피곤한 일정이었다. 긴장을 안해서 그런지 매우 피곤했지만 일정자체가 너무 편해서 부담없었다. 쉽고 재미난 일정을 하다보니 무빙 막바지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너무 생각없이 무빙을 보냈나 싶기도 하고 생활질서가 너무 흐트러진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배움을 얻지 못했나? 하며 회의감이 들었지만 언젠간 나에게 배움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걱정을 접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렀나? 성장했나?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중요함을 알았던 것 같다.

4.3. 세월호, 제주도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을 어떤 가치와 어떤 관점을 대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들었으며 나는 아직 세상을 많이, 넓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도 깨달았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더 넓은 곳 까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란 알고 나니 앞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겪어보는 과정이 기대된다. 그렇게 짧고 굵었던 무빙은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듯하다. 나중에 내가 성장해온 과정들을 되돌아 볼 때 이 무빙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나누기

재형 : 사려니 숲길이 생각 보다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숲길을 걸어서 행복했어요.

경재 : 사려니 숲길도 걷고 맛있는 마늘치킨도 먹어서 기분 좋았다

선호T : 사려니 숲길이 너무 멋있었어요.

동석T : 혼자 한 시간 좀 덜 걸었는데 오랜만에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본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의미 있었던 하루 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떤 성향들인지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왜 그런지 생각해 봤는데 해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2년 반 된 애들 이틀 반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잘못 뒀을 수도 있겠다.

소정 : 저는 여행 갈 때 바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좋았는데 발바닥이 터질 것 같아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경 : 사려니 숲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고 물집까지 잡혔어요. 발바닥에 마늘치킨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문형 : 사려니 숲길은 왜 걷는지 모르겠는데 좋았구요 이중섭 거기에 갔는데 강요배 그 분의 그림이 있어서 되게 운명 같았고 오늘 하루가 제일 재밌었고 버스 타는데 바다가 보여서 좋았어요.

하진 : 사려니 숲길을 걸으면서 왜 걷고 있는지 생각을 했는데 풍경은 좋았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영봉 갔을 때 보다 아팠어요 그리고 마늘치킨이 맛있었어요.

민정 : 저는 사려니 숲길 되게 멋있었고 좋았는데 코스가 반 만 줄여졌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근데 마늘치킨 맛있어서 좋았어요.

하늘 : 사려니 숲길이 힘들었는데 이중섭 미술관 가서 좋았어요.

예현 : 저는 사려니 숲길이 그렇게 꽤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와...하. 근데 그늘로 갔을 때 되게 좋았어요 다 같이 걸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은 좀 버스를 오래 타가지고 잠을 오래 잘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치킨 집 가서 애들이 배려해 줘서 좋았구요 이중섭 미술관 가서 좋았고 다들 사진을 엄청나게 찍더라고요 좋았구요. 동광 왔는데 좋았어요.

다민 : 사려니 숲길이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마늘치킨 맛있었고 제주도 공기가 신선하고 좋아요.

유경 : 사려니 숲은 정말 초록색 지붕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중섭 미술관이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책으로만 봤는데 가보게 돼서 좋았어요.

한울 : 오늘 미술작품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창범 : 저는요 사려니 숲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왔던 길은 평지에 풍경이 너무 좋아서 좋은 시간 이었던 것 같았구요. 근데 버스 타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승훈 : 사려니 숲이랑 오늘 걸은게 많아서 다리는 굉장히 아팠지만 재밌었습니다.

한결 : 사려니 숲길이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서 안 보고 그냥 걸었던게 좀 아쉬워요 근데 통닭도 먹고 미술관도 가면서 좀 쉬니까 보람찬 것 같아요.

은지T : 조금씩 짜증이 올라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때때 마다 친구들이 강약 조절을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마늘통닭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싶고요 사려니 숲길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되게 한 문구가 생각이 나서 자연은 참 소중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택 : 사려니 선호 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마늘통닭은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정말 평범 했구요 오늘 버스에서 좀 자고 싶었는데 하도 덜컹거려서 잘 못 자서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2016년 뽀뽀바라바뽀반 제 1회 가족회의

*안건

-시간 약속에 대해 정리를 해봅시다

|잡초 뽑기 유용한 그제 아닌 것 같다. 무빙기간 동안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각을 하는 그런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무빙 내에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듯

|시간 당번을 만들자 시:당 모든 시간에 관리하는 당번을 만들자

|방금 의견 좋은듯

|지금까지 늦은 거는 어떻하죠?

|그냥 하는 거죠

|한결이가 말한 거는 딱히 지금 한 거랑 다를 거 없을 같고 그날 늦은 친구들은 밤에 하루 나눌 때 친구들이 시키는거 합시다.

|저는 예현의 의견도 좋고 한결이 의견도 좋아요

|예현의 의견도 좋아요

|시간 당변이 생기면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안할 것 같아요

|한결이 의견과 예현이 의견을 섞어서 예를 들자면 시간당변은 애들을 몰고오는게 아니라 몇 분 남았다고 알림 하는 정도고 그래도 늦은 친구들은 예현이 의견 대로 하자

|그런거 안하고 시계 보는 습관을 들이자

|우리가 각자 서로를 믿고 자신을 믿기에는 너무 많은 약속을 어겨 버려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서로 신뢰를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기가 알아서 시간 잘 지키면 좋겠지만 알림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함 다른 거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벌칙은 제비뽑기를 하든 즉석에서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에 애들처럼 시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알림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알림하는 의견 좋은데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알림을 안 해서 늦게 되거나 했을 때 알림 안 한 사람 탓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의견 좋은 것 같은데 다들 시계보는 습관도 들일 겸 당변을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변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누가 하면 알림을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알림 하는걸로!

자 그럼 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수저 놓기

|설거지 다 하기

|장기자랑

|림보 제한 선 정해 놓고 통과 할 때 까지 뽕뽕이 돌리기

|선택의 경우를 다 주자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쪽지로 만들어서 그날 그날 뽑자

|쪽지 정하기 랜덤 해요

|세수 시켜주기

|한 페이지 서술하는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각을 하고 그에 한 하는 벌칙을 받은 뒤 어떤 느낌 이었는지 나누기

|일단 빼고 싶은 거 빼요

|지금은 지각 한다는 가정하에 이거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각 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각 하면 그때 뭘 할지 정하자

|그 사람이 나오고 정하게 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것 같아서 정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오고 정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각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거고 우리는 지각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애들이 하기 싫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애들도 있으니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틀로 잡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문형이가 말 한 대로 하면 이제 까지 해 온 것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각을 하지 말자 딱 약속을 하고 벌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형이 말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형이 말 대로 하면 전제를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벌 내린 다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벌칙을 정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재는 저걸 하는데 나는 이걸 하나 라는 말도 나올 것 같고 네

|나는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뽑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 항목들 중 난 이걸 하겠다 하고 가져 오거나 나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 없다 하면 뽑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 좋은데 지각한 사람이 나온 후에 벌칙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리 : 우리는 서로 시간을 챙겨주기로 약속을 했구요. 여기서 여기는 사람이 생겼을 시 우리가 벌칙을 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가 벌칙을 알아서 선택해 오는 걸로

*잡초 처리 해 버리기~

-저는 그냥 잡초 한 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각한 사람들 다같이 가면 좋겠어요.

-저도 유경이 말에 공감해요

건의

-밥을 먹고 다 같이 뒷정리를 도와줍시다

-문을 잘 닫읍시다 모기 무단침입 해버리기

-바닥에 물기 좀 닦아요

고백의 시간

한결 : 절물 휴양림에서 남은 사과즙을 가져가서 친구들과 먹었습니다.

예현 : 음식 못 만들어서 마트에서 사조 고추참치 사왔다.

은지T :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GMO로 샀다.

칭찬합니다.

승훈 : 고생하시는 쌤들 감사합니다

예현 : 마니또

창범 : 재형이가 물총 사줌, 마니또가 잘해줌

다민 : 선호T

예현 : 사려니 숲 미션 해주신 분들

하늘 : 동석쌤

예현 : 치킨 먹을 때 감자 준 친구들

한결 : 족구로 이겼는데 아침 설거지 해준 동석쌤 감사합니다.

은지T : 선호T 비빔면 스프 잘라준 친구들
예현 : 오메기 떡 사준 의욕없쥬 친구들

6/4 오늘나는 자유인 조별 자유 일정







소감 4일차

예현- 오늘은 조별 자유여행! 아침엔 아 진짜 뭐하려나..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일단 바다 가서 생각하든 하자 싶어 바다를 갔다. 중문 색달해변을 비오는 날 근데 막상 오니까 좋아서 다들 신나고 힘이 생긴 거 같다. 나도 바다를 보니 탁 트이는 듯한 느낌과 시원함. 달려들고 싶었다. 다들 물놀이를 하고 오니 졸렸던 거 같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 밥을 먹으러 올레시장을 가서 버들목이라는 식당에 들어갔다. 몇 년 만에 물회를 먹었다. 맛있었고 고추가 약간 매웠다.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숙소에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다들 비에 맞았고 바다도 들어갔으니 목욕탕에 가자고 했다. 목욕탕을 찾느라 약간의 시간을 소모했지만 결국 건강나라라는 목욕탕을 찾아 들어갔다. 목욕탕 너무 좋았다. 따듯한 물에 들어가는데 졸음이 왔다. 목욕탕안에 있는 사우나에도 들어가고. 두시간쯤 목욕탕에 있다가 홈플러스에 가서 먹고싶은 것들을 사 숙소에 들어갔다. 비오는 날 바다부터 시작해 차분하고 신나는 분위기의 오늘이 었다.바람이 불어서 좋았다.

하진-오늘은 자유여행이다. 우리 조는 숙소와 아주 먼 곳에 있는 우도를 가기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근데 하필이면 날씨가 꿀꿀했다. 버스를 타고 2시간반 정도 이동하는데 비가 오고 있었다. 버스기사님 말로는 오늘 배 안 뜰거라고 하셔서 순간 완전 불안했지만 배는 떴다. 원래 자전거 예약이 되 있어서 천진항으로 가야되는데 오늘은 천진항으로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하우목동으로 갔다. 하우목동에서 천진항 까지 걸어가야 했다. 걸어가는 길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서 발 담구고 놀면서 갔다. 천진항 에서 하우목동 까지 1시간 더 넘게 걸려서 도착

했다. 천진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춥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다. 자전거는 이미 예약한거여서 어쩔수 없이 타야했다. 비는 엄청 내리고 바람은 엄청 불고 비로 샤워 한 것 같았다. 점심은 흑돼지 버거와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버거를 두 개 시켜서 두명이서 나눠 먹는거였다. 흑돼지 버거에 맛이 두 개 있었는데 땅콩맛 마늘맛이 있었다. 우리 전부 마늘맛을 시켜서 먹었다. 맛있었고 양도 두명이서 먹기에 딱 적은 양은 아니었다. 다 먹고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재형,경재,유경은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는 마늘 아이스크림 먹기에 도전했다. 마늘맛 버거를 먹고 마늘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정말 별로였다. 다 먹고 나니까 입에서 마늘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도 한 바퀴 도는건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왔다. 중간에 너무 추워서 카페에 들어서 음료를 시켜서 먹었다. 우리가 어디 실내에 들어가면 비는 얼마 안 내리는데 우리가 나와서 출발 할 때 쯤이면 비가 무진창 내리는 기분이었다. 다시 돌아가서 천진항에 자전거를 주고 하우목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전거 렌트한 곳 어떤 분이 하우목동 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셨다. 정말 감사했다. 무사히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숙소 주변에 도착했다. 학교에서 지원해준 남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서 숙소에 들어왔다. 오늘 우도 갔다 오면서 든 생각이 난 우도에 미련 없을 것 같다 진짜 날 짱 좋을 때 우도에 와서 자전거 탈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진짜 꼭 그럴 것 이다!

민정- 조끼리 자유여행이었다

날씨가 많이 좋지 않고 나는 체하고 몸상태가 안좋았다

우리 조는 가파도를 가는 일정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확인 차 모슬포항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해보니 청소년 끼리는 배를 탈수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절망스러웠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못가게 되니 그래도 새로운 일정을 기획해 화순금모래해변에 다녀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모래가 내 얼굴을 강타하고 다가왔지만 제주도에 도착해서 처음 본 바다라 설렘 우리 조는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회를 먹기로 했기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학생이라 그런지 주인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해주셨다 매운걸 못먹는 친구를 위해 된장찌개도 끓여주셨다 원래는 해물라면과 해물비빔밥을 먹으려고 했으나 회를 먹자고 해서 회를 시키려고 했다 주인아주머니께서 회는 2인분만 시킬수 있지만 학생들이니까 1인분 가격으로 고등어 회도 준다고 하셨다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고 또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자 원래는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을 잘못해서 표 값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조는다음 목적지를 포기하고 숙소로 3시에 들어와 잠을 잤다

소정- 오늘 일정은 하루 종일 자유여행이었다. 우리 조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미리 예매했던 '레일바이크' + '박물관은 살아있다'에 갔다. 전날에 길 찾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거리차이가 많이 나길래 버스타고 15분 거리인 박물관은 살아있다에 먼저 갔다. 트리아트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아침을 먹고 바로 출발 해 9시 30분쯤에 갔는데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 처음엔 움직이는데 애를 먹었다. 구경하면서 처음엔 다들 사진찍은 걸 피하고 주춤 했었는데 후에는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찍어서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창피해서 말은 꺼내지 않았었는데 사실 영경이랑 나는 엄청 재미있게 사진을 많이 찍고 싶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내일은 꼭 많이 찍자!하고 약속도 했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버스도 깔끔하게 타고 안에서도 나름 재미있어서 이때까지는 매우 들떠 있었다.

다 보고나서 가는데만 2시간 10분이 걸리는 레일바이크를 타러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갔다.

710을 타야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고, 검색을 해도 보이지 않아 여쭙봤더니 여기엔 710번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실 그 때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아무 버스나 탔던 것 같다. 그리고는 다들 아무 생각없이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하고 1시간을 모두가 잤다. 뒤에 정신을 차리고 기사님께 여쭙보니 원래 목적지였던 곳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나마 가까운 곳에 내렸다. 전부 합쳐서 네 다섯 번은 갈아타고 3시간 넘게 버스안에 있었다. 여차저차해서 레일바이크를가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다. 네이버 지도에는 얼마 거리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표지판 하나를 믿고 걸었다. 아침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걸었다. 20분 정도 걸었는데 건물도 표지판도 집도 아무 것도 없었다. 그렇게 이 길이 맞는지조차 모른 채 걸었다. 짹짹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었던 것 같다. 젖으면 안 되는 짐만 없었더라면 다시 해 보고 싶을 정도로 나름 좋은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4-5분을 비 맞으며 짹짹 젖고 나서야 레일바이크에 도착했다. 3시에 출발하는 바이크에 탔는데 생각보다 많이 별로였다. 비가 와서 천막을 쳤기 때문에 풍경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버스를 타느라 점심도 못 먹어 배도 고프는데다 또 다시 비를 맞으며 걸을 수 없었기에 결국 콜택시를 불러 정류장까지 택시를 탔다. 그리고 드디어 710번을 타고 저녁을 먹기 위해 동문로터리로 갔다. 가는 버스에서 냉장고 나라 친구들도 만났다. 어제 갔던 이중섭 거리 근처에 있는 춘천명동닭갈비에서 닭갈비를 먹었다. 10만원 중 5만원을 썼는데 맛있었지만, 엄청 배가 부르지는 않았다.

영경- 우리조는 박물관을 살아있다 와 제주 레일바이크에 갔는데,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숙소에서 가까워서 먼저 가기로 했다. 처음엔 박물관은 살아있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도 힘들고 사진을 찍는 것도 어색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빠지고 우리도 익숙해져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조가 제일 비에 젖지 않고 편안하게 다녀 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네이버에 나와있는 데로 중문로터리에서 710번을 타려고 했으나 버스정보에 710번 버스가 안뜨길래 비슷한 경로를 가는 701번을 탔다. 그리고는 그냥 잤다. 그렇게 1시간쯤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 모르는 곳에 와있었다.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내리려는 곳으로 안 간다고 하셨다. 우리는 내려서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겨우 레일바이크 근처 버스역까지 왔다. 진짜 문제는 이거였다. 그 버스 역에서 레일바이크까지 30분 정도는 걸어야 했다.주위에 건물하나 없는 곳에서 비는 엄청 쏟아지는데 우비하나만 걸치고 무작정 걸었다. 오늘 숙소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레일바이크 타는 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머리카락이 고 옷이 다 젖은 상태였다. 레일바이크는 생각보다 재미없었다. 비 때문에 주위 풍경은 보이지도 않고 좀 चु기까지 해서 힘들었다.

그리고 중문로터리 까지 돌아와 닭갈비는 먹었다.

문형- 사실 이번 제주무빙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날이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계획이 거의 없었기에 기대도 안 되고 걱정만 되고 집가고 싶었다. 원래 협재해수욕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어찌다보니 중문 색달해변에 갔다가 중문 관광지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기대를 거의 안하고 출발했다. 출발할 때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조금 추웠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중문색달해변에 갔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일부러 조금 빙빙 돌아간 느낌 이였지만 그래도 잘 도착은 했다. 막 '바다다' 소리 지르면서 달렸다. 버스 안에서 잠깐잠깐 봤던 바다를 가까이서 보니 너무 좋았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서 모래에 앉아만 있을 줄 알았다. 처음엔 바다 사진 찍다가 신발 벗고 들었다. 진짜 논문 다 쓴 기분보다 좋을 거 같은 기분이었다. 조금 안 추웠으면

수영을 하며 놀았을 텐데 발만 담가서 아쉬웠다. 유한울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사진을 찍었다. 그래도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 이었던 거 같다.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가서 편의점 앞에 앉아서 회의 아니 회의를 했다. 한 30분~1시간 그러고 있다가 어디든 시내로 가자 이러면서 버스를 타고 서귀포 시내로 갔다. 가셔도 뭘 먹어야할지 못 정하고 있다가 올레시장 안에 있는 버들집이라는 식당에 갔다. 다 먹고 우린 또 떠돌이가 되었지만 그냥 숙소 가서 밥해먹자 이러면서 대형마트에 가려하다고 비도 오고 날씨도 너무 녹녹해 몸이 너무 찝찝해서 목욕탕에 갔다. 가까운 목욕탕을 찾아갔는데 간판부터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을 찾던 중 시장 상인 분들이 건강 랜드라는 곳을 추천해주셨다. 제주 분들은 진짜 너무 친절하셨다. 갔는데 너무 좋았다. 너무 좋은 선택 이었다고 우리끼리 엄청 뿌듯해했다. 진짜 제대로 쉬는 느낌이었다. 다 씻고 마침 원래 가려던 대형마트가 바로 옆이라서 먹을 것을 샀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성급히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지만 기대한 것에 비해 너무 즐거운 시간 이었다. 목욕탕은 신의 한수였다. 도착해서 사운 치킨을 먹고 바로 간식으로 해물 라면을 먹었다. 다른 조 애들도 재밌게 놀다 온 거 같다. 앞으로 제주도 날씨는 계속 좋을 거라고 한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가 왔지만 비가 와서 그만큼 더 재밌게 논 거 같다. 비가 왔는데도 우린 이만큼 놀았다 이런 느낌? 내일은 원래 올레길과 논짓물에 가는 거 이었지만 애들이 지쳐서 올레길은 안가고 논짓물에 가서 놀자고 했다. 숙소를 또 옮겨야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완전 휴식 일정인 거 같다. 내일이면 벌써 제주도 반이란다. 말도 안돼!

경재- 자유투어 우도를 위해 6시반에 일어나 첫 번째 버스를 타고 배를타러 여객항에 출발했다. 그렇게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건만 결국엔 비가 오고야말았다. 안그래도 옷이 바람이 잘통해서 추웠는데 비까지 맞아 정말추웠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며 흑돼지버거도 먹어보고 땅콩아이스크림 마늘아이스크림 까지도 먹어봤다. 5번째날에는 3번째 숙소 인 안덕 수련원에가서 짐을 푼뒤 물놀이를 하러 논짓물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하지만 물이 차서 인지 들어오지 않는 애들도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쌤들께서 고기를 구워주셔서 정말맛있었다. 정말 널널한 하루였다.

재형- 우도로 갔다. 경재와 유경이와 하진이와 갔다. 걱정을 많이 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출발은 좋았다. 우도가 많이 멀었지만 그래도 버스 잘 찾아서 갔으니 느낌이 좋았다. 배도 좋았다. 특히 유경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평소에 투덜대는 걸 많이 봐서 버스타고 오면서 힘들면 짜증이 날 것 같았는데 신나보여서 좋아보였다. 자전거를 타는 그 그림을 그리며 기대를 가지고 갔다. 많이 추웠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비바람이 많이 불었다. 중간에 먹은 흑돼지버거와 아이스크림도 맛있었다. 비가 왔지만 좋았다.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점점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날씨가 안좋으니 몇 배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다. 더 가고 싶었지만 우린 같이 왔으니 반납을 하러 가면서 많이 즐겼다. 돌아오는 배를 타면서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 길었던 것 같다. 우리 조원들이 편해서 좋았다. 그래서 더 재밌었다. 고마웠다. 은지쌤이 말을 안듣고 약속을 어기는 우리에게서 힘들음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다. 내가 그 입장이 아니었기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반은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뭘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창범- 가파도를 가기로 했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못 들어 가다고 해서 금모래 해변에 갔다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관광지를 가려고 했으나 밥을 먹고 아주머니가 계산을 잘 못 하여 돈이 부족해서 엘리스를 못 가게 되었다.

하늘-우리(의욕없조)는 화순금모래해변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박물관으로 정했는데 화순금모래해변에서 놀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숙소로 오는길에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되어 돈이 부족해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박물관은 결국 못가고 숙소에서 자고 6시에 저녁을 먹었다.

다민- 조별로 자유여행을 갔다. 우리 의욕없조는 원래 가파도를 가려했으나 가파도 가는 배는 보호자동반을 해야해서 모든계획을 취소하고 회의를 했다.그래서 화순금모래해변과 이상한나라에엘리스에 가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해변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지만 잘놀았다. 주변식당에 가서 전복해물라면, 전복비빔밥, 막회(우럭, 광어, 고등어)를 먹었다. 잘먹고 나서 이상한나라엘리스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내린 순간 식당에서 돈을 잘못계산해준걸 깨달았다. 결국 이상한나라의엘리스는 못가고 편의점에서 간식을사서 일찍 숙소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자다가 저녁을 먹었다. 먹고나니 다른조들이 대부분 도착하고 있었다. 쌤들이 간식으로 해물라면을 주셨다. 맛있게 먹었다.

유경- 대망의 우도를 갔다. 조에서 정한 자유여행 장소였다. 의욕없조는 성인 없으면 학생들끼리 배를 탈 수 없다고 가파도를 못 갔다고 하던데 우리는 다행히도 배를 탈 수 있었다. 성산항 가는 길만 2시간 30분이 걸렸지만...아침부터 비가 와서 배가 안 뜰까봐 진짜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이었다. 비가 와선지 날씨가 평소보다 훨씬 추웠다. 10분 간 배를 타고 우도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진짜 엄청 좋았다. 제주도 일정 중 가장 좋았던 것 같다. 하늘도 담시 맑게 개고 바람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예뻐다. 우도에 도착해선 1시간여를 빗 속에 걸어 자전거 예약 업체를 찾았다. 비가 너무 와 당일에는 위험해 자전거를 대여하지 않는 정도의 비였다. 어쨌든 빌린 자전거를 곳곳히 타고 주신 지도와 함께 2시간 여의 우도코스를 시작했다. 얼마정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좀 덜 와서 훨씬 나았다. 중간에 원래 가려던 흑돼지버거집을 가서 점심을 먹고 하진이는 마늘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났다. 밥을 다 먹고 나오니... 진짜 난국이였다. 다시 출발했는데 비가 들이닥쳐서 앞도 안 보이고 운동화 안이 찰랑거렸다. 옷을 모두 입고 샤워한 느낌이었다. 진짜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감은듯한 머리를 휴지로 쥐어짜다. 자전거를 돌려드리고 생각보다 일찍 우도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후 정말 평생 못 해 볼 경험을 해봤다...

하루나누기

승훈 : 오늘 아침을 먹고 나가서 박물관은 살아있다 라는 박물관에 갔구요 레일바이크를 갔는데 가는 동안 길이 좀 험갈렸어요. 그래서 가서 힘들게 비 맞으면서 가고 버스타고 택시타고 닭갈비 먹고 왔습니다. 좋았어요. 사실 추웠어요.

경재 : 추웠습니다. 우도에 가보니까 비도 굉장히 많이오고 자전거 때문에 많이 헤맸지만 그래도 땅콩 아이스크림과 흑돼지 버거 덕분에 되게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재형 : 우도를 가서 자전거를 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좋았어요.

창범 : 바다에 가서 재밌었어요.

한결 : 오늘 박물관 가고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너무 길을 헤메서 네이버 지도 수정이 시급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서 안계 제주도 사람들은 참 거리낌 없이 잘 말을 걸더라고요 예말주변이 굉장히 거침 없습니다.

동석T : 아무것도 안했는데 힘들었어요. 걸었던 어제 보다도 더 피곤했던 느낌 그래도 좋았어요.

선호T : 은지쌤이 끓여주신 해물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간식으로 그런 걸 먹으니까 하루에 네 끼먹는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다민 : 바다에 가서 즐거웠어요. 고등어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먹은 해물라면도 맛있었습니다. 내일도 바다 가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문형 : 원래 협제를 가려고 했었는데 웬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표선색달해변에 갔는데 비가 오긴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뭔가 서핑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멋있고 아무튼 되게 좋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그 버들집이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너무 몸이 찻찻해서 집에 갔다왔어요. 재밌었어요.

예현 : 저는 오늘 냉장고 나라 대신 아침밥을 했어요. 나름 간단해서 굉장히 좋았고 비가 와서 다른 조들이 걱정되면서도 좋았어요. 근데 애들이 추워하길래 잠바를 벗어주고 싶었습니다. 한 몇 년만에 물회를 먹어본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바가에 가서 좋았어요 바다가 되게 좋았어요 비가 오는 바다 모습이 좋았어요 신발이 불편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소정 : 저도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갔었는데 되게 순탄하게 가서 되게 잘 골랐다 싶었는데 레일바이크 타러 가는데 되게 헤메서 점심도 못 먹고 헤메다가 어찌다가 갔는데 레일바이크 타는 곳 까지 엄청 많이 걸었어요. 근데 레일바이크가 딱히 재밌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닭갈비를 먹고나서 맛있었어요. 재밌긴 했는데 기대 했던 것 보다 짜증난게 많아서 좀 그랬어요.

유경 : 우도를 갔어요. 엄청 다른 조들 보다 일찍 출발해서 두 시간 여 동안 버스를 타고 가서 배를 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거예요. 배 타면서 세월호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자전거를 대여를 해놨었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원래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 항이랑 달라서 한 시간 동안 걸어서 자전거를 대여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흑돼지 버거랑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한 바퀴 다 돌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젖어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반대쪽 항구까지 가야해서 콜 택시를 부를까 했는데 그 자전거 대여점에서 태워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래서 막 엄청 힘들었고 오는 배는 신나게 갔는데 가는 배는 멍때리면서 갔어요 힘들도 배고팠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6/5 제주의 젓줄, 논짓물
휴식, 논짓물, 고기잔치











소감 6일차

창범- 오늘은 쉬는 날 이었다. 수소를 이동하고 논짓물 이라는 바다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 나는 추워서 물에는 못 들어가고 바위에서 게 불가사리 물고기를 잡았다. 물놀이는 못했지만 그것도 정말 좋았다. 수소에 돌아와서 남자들은 농구를 하고 은지쌤과 여자아이들은 노래방 기계가 있어서 노래를 시끄럽게 불렀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잤다.

소정- 어제 하루 종일 다들 움직이니라 피곤해서 오늘은 늦게 일어나 10시에 아점을 먹고, 숙소를 옮기기 위해 짐을 빼고. 바로 논짓물이라는 바다로 갔다. 역시나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려 했는데. 날도 덥지 않고,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고, 우울하게 있어 덩달아 재미가 없어져서 결국 1시간도 안되게 놀다가 나와 바로 '안덕 청소년 수련원'으로 갔다. 시설에 대해 별 기대는 안했었는데 뜻밖에도 노래방 기기가 있어 내내 노래만 불렀다.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는데 오늘 따라 유난히 애들이 많이 못 먹어서 이영경이랑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루나누기를 했다. 오늘은 오픈마니또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비밀 마니또를 뽑았는데 처음엔 이한결이었다가, 다시 뽑았는데 김승훈이 나왔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끝내고 밤에 몇몇과 늑대게임을 했는데 이재형, 김승훈은 사이코다.

민정- 쌤들이 제안을 하셨다 많이 피곤한것 같으니 이날은 여유롭게 일정을 진행하자고 하셨다

숙소를 옮기는 날이었기에 안덕청소년 수련원으로 가서 짐을 풀고 물놀이를 하러 논짓물에 가기로 했다 논짓물에 갔을땐 신났는데 놀다보니 해도 얇아서 그런지 너무 추웠다 2시간? 정도만 놀다가 나와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오늘 저녁에 쌤들이 고기를 구워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영경- 거의 쉬는 날이었다. 아점을 먹고 동관청소년 수련원에서 안덕청소년 수련원???으로 갔다. 그리고 안덕에 가까이 있는 '논짓물'이라는 바닷가에 갔다. 어제는 비를 맞아서 추웠지만, 그전까진 좋았던(더웠던) 날씨가 갑자기 오늘 시원해져서 바다에 들어가는게 추웠다. 그래서 바다에 안 들어가고 하진이랑 계속 셀카를 찍었다. 그렇게 놀다가 숙소로 들어와서 대충 씻고 거기에 있는 노래방기계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나중엔 애들도 몇몇와서 완전 열심히 불렀다. 그리고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다!!! 진짜 진짜 맛있었다. 무빙중 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다. 진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저녁을 먹기 전 보다 더 열심히 불렀다.

예현- 약간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일정이 약간 바뀌여서 아침겸 점심을 먹고 세 번째 숙소인 안덕 청소년 수련원에 가 짐을 풀어 냈다. 그리고 논짓물에 갔다.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안들어 갔다.물이 약간 차가웠는데 바람도 불어 추워하는 애들이 많았다.발만 담구는 애들과 전체적으로 다 담군 애들로 나뉘었다.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위생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좀 쓰레기 같은것도 많고 적당히 놀다가 다들 추워서 빨리 들어왔다.애들이 씻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쩔수 없다는 심정으로 씻었는데 내가 씻을 때 뜨거운 물이 나와서 좋았다.다씻고 숙소를 다시 보니 안덕 숙소도 좋았다.넓었다.노래방 기능이 되는게 있어서 애들 막 노래 부르고 신나 보였다.노래를 계속 불렀다.저녁을 우리조가 준비하는

거였는데 고기를 구워먹는다 해서 별로 준비 할게 없었다.밖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딸 있어서 거기로 반찬들을 날랐다.은지 선생님이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된장찌개를 해주셨다.감사했다.저녁을 준비 할때까지 노래를 불렀다.저녁준비가 다 되고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하셨다.애들이 굉장히 잘먹을줄 알았는데 많이 못 먹는거 보고 의아했다.아직도 제주도인지 헷갈렸다.벌써 5일이 가서 깜짝놀랐다.앞으로의 5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문형- 오전에 올레길을 안가기로 해서 아점을 10시에 먹었다. 부대찌개를 먹고 짐을 대충 싸고 식당청소를 하고 안덕청소년수련관으로 갔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버스를 기다리면 땅바닥에 앉아서 노는 것도 좋았다. 짐 챙겨서 바로 논짓물로 갔다. 어제 비가 와서 바다에서 제대로 못 놀아서 완전 잘 놀 수 있을 거 같다. 갔는데 뭔가 바다 느낌보다는 물놀이장 같은 느낌이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막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빠뜨려주었다. 안 그랬으면 못 놀았을 듯싶다. 그 후로는 그냥 놀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고 8명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축축 처져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재미있지는 않았다. 작년 2학년 MT때 재밌게 놀아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쉬웠다.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밥을 했다. 저녁은 고기라서 딱히 할 건 없었다. 고기파티까지 하니까 오늘은 완전 휴식의 날 이었던 거 같다. 우리 조가 많이 잘 먹지는 않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옆 테이블이 이견뎌조가 진짜 잘 먹어서 구경만 해도 배불렀다. 잠시 또 놀다가 하루 나누기를 했다. 그간 무빙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 다들 MT왔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무빙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 같다. 마니또를 다시 뽑았다. 귀찮았다. 하루나누기를 다하고 애들끼리 늑대게임을 했는데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게임에 참여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큰 반전이라서 소름 돋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잊을 수가 없다. 김승훈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다. 내일은 제주도 좋아 애 간다. 진짜 기대 된다.

재형- 힘들다는 친구들이 있었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쉬게 됐다.

올레길을 가고 싶었다. 제주도에 올레길을 걸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좋다고들 하니까 이왕 왔으면 오래 걸어보고 싶었다. 우리가 무빙 준비를 할 때 정했던 일정에 대해 쉬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못간 것이 아쉬웠지만 쉬는 것도 좋지 뭐. 논짓물을 가는데 날씨가 어두워서 아쉬웠다. 추위를 많이 타서 물놀이를 많이 못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안들어가기로 했다. 물 보니까 좋더라. 이날 안덕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고기를 먹었지. 여자아이들이 오랜만에 신나게 노래 부를 수 있을 때 가사 말고 뭐가 보이겠냐만은 “양해라도 구하지 그랬니. 듣기 싫다고 해서 안할거 아니면서..//”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재밌어하는 것 같아 좋아 보이..긴 개뿔, 좋은 하루였다. “ , ” 가 된 하루

하늘- 12시에 아점을 먹고 안덕 청소년 수련원에 와서 물놀이 할 준비를 하고 물놀이를 하고 숙소에 와서 저녁으로 쌤들이 구워주신 고기를 먹었다.

하진-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팠다. 오늘은 아점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밥을 조금 먹고 은지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었다. 아점 먹고 다음 일정이 짐을 다 싸서 안덕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동 하는거 있었는데 나는 학교차를 타고 먼저 가서 조금 잤다.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팠다. 물놀이를 하러 논짓물에 갔다. 날씨가 막 밝지 않아서 애들이

추워했다. 다른 몇 명에 남자아이들과 나와 영경이는 물에 안 들어갔다. 셀카를 아주 많이 찍었다. 그러곤 다시 숙소로 갔다. 씻고 숙소에 노래방 기기가 있는 걸 발견했다.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은지쌤과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남자애들은 별로 안 부르고 여자애들은 저녁 하루 나누기 전 까지 한 3시간 넘게 부른 것 같다. 애들끼리 얘기 하면서 노래방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완전 미친사람처럼 날 뛰면서 불렀다. 마지막 노래는 아리랑 1절로 마무리 했다. 정말 너무 좋았다. 저녁으로 고기를 먹어서 더 좋았다.ㅋㅋ

다민- 아점으로 부대찌개를 먹었다. 먹고 숙소를 옮겼다. 안덕청소년수련원으로 옮겼다. 옮기자마자 논짓물로 갔다. 바다와는 다르게 수영장같이 물이 고여있었다. 해가안떠서 좀 추웠다. 그래서그런지 몇몇 애들이 물에 안들어갔다. 잘놀고와서 샤워를하고 저녁준비를 하고 있을 때 노래방기기로 애들과 노래를 불렀다. 정말신났었다. 쌤들이 구워주신 고기를 먹었다. 맛있었다. 고기를 먹고나서 하루나누기를 한뒤 다같이 늑대게임을 했다. 무빙와서 게임을 많이 한 것 같다. 전에 절물에서도 많이 했었다. 게임은 언제나 재미있다.

유경- 제일 여유로운 날이었다. 느지막히 일어나 숙소를 옮긴 뒤 논짓물에 갔다. 날이 너무 추워서 제대로 놀지는 못했다. 저녁에 먹은 고기가 정말 맛있었다.

하루나누기

동석T : 첫 날 하루 나누기 하면서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개개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고 둘 짝날 서로가 배려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셋 짝날 나를 생각하며 친구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차 가져다 놓고 같이 걸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걸어보려고요 같이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하진 : 좋았어요. 좋았어요. 끝이에요. 오늘은 뭔가 어디 이렇게 옮겨가면서 바쁜 느낌없이 편하게 잘 논 쉰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선호T : 되게 편한한 느낌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무빙 온거긴 하죠 고등 할때는 무빙을 안 했으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무빙이 편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너무 착해 저도 편한게 좋죠 근데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제주도에 왔는지 없어져버린거야 그냥 MT 놀러온 느낌이 살짝 좀 들고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의도로 기획을 했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제주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지치더라도 다시 시작 될 거 같아요. 힘들거나 짜증내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거 하려고 제주도 왔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잘 논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승훈 : 늦게 일어나고 많이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논짓물도 재밌었는데 물이 좀 더러워가지고 그게 별로였어요. 고기 맛있었습니다.

승택 : 저는 오늘 재밌게 논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구요. 고기도 맛있게 먹었는데 되게 많이 못 먹어서 좀 아쉬워요. 아까 편의점에서 햄버거 먹은게 후회되요. 하지만 오늘 무빙 중에 가장 행복한 하루 였어요.

재형 : 오늘은 논짓물에서 물놀이를 안 했는데 별로 한게 없어서 좋았어요.

다민 : 오늘 논짓물에 가서 즐거웠어요. 근데 좀 추워서 그게 좀 아쉬웠고 다음에 더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쌤들이 구워주신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녁에 노래방 기계로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문형 : 논짓물에서도 되게 재밌게 놀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물에 안 들어 와서 좀 그랬구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까 전에 일지 쓰려다가 생각한 건데 진짜 제주도 와서 수학 여행 온 느낌이 들고 놀러온 기분인데 여기 와서 내가 배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버스 타다가 티비에서 본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민정 : 정신 없이 일정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쉬는 날이 와서 좋았고 논짓물도 갔는데 해만 떴으면 미친 듯이 놀 수 있었겠다 그게 정말 아쉬웠어요. 와서 고기를 되게 갑자기 먹어서 좋았구요. 오늘 하루 여유롭게 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한결 : 오늘은 널널한 일정 속에서 충전을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은지T : 저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좋았어요. 뭔가 전체를 계속 보아야 한다는 것과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니까 좀 피곤 한 것 같아요. 저는 논짓물에 가면 친구들이 가면 정말 재밌게 놀 줄 알았는데 별로 재밌게 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가 좀 뜨지 못한 게 좀 아쉬웠구요. 해변에 가도 애들이 잘 놀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개인적인 생각 하나는 제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특히 3학년 무빙에 대해서 3학년 무빙에 대해서 남자친구들 하고 여자 친구들의 사이가 좋아진다. 라는 모든 설이 있었는데 어쩐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지 암튼 이게 습인건지 뭔지 약간 그런 생각 그런게 좀 들었고 암튼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에요.

한울 : 폭자고 논짓물 갔다가 들어와서 농구도 하고 고기 먹고 아주 좋습니다.

유경 : 저는 쉬었어요. 선호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뭔가 우리가 놀러온 건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혼자라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빙 때는 우리끼리만 친해야 하니까 약간 계속 불편한 감정이 생기니까 좀 걱정스럽긴 해요. 나도 감정을 잘 컨트롤 하고 남은 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범 : 저는 오늘 되게 계속 농구를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가서 계속 산에만 가서 되게 외국 같았어요. 그리고 논짓물에 왔는데 춥고 물이 좀 더러웠어요 그래서 물에 안들어가고 돌에가서 물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와서 고기를 먹었는데 햄버거 큰 거를 전에 먹어서 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웠어요.

소정 :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작년 무빙때는 바다에서 안 놀아서 이번 바다에서는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애들이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못 놀아가지고 우울해졌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잘 놀고 여기 와서 씻고 애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재밌었어요 고기도 되게 원래 잘 안먹는데 잘 먹어서 좋았어요 일단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예현 : 오늘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서 좋았구요. 은지쌤이 해주신 된장국이 맛있었습니다.

영경 : 바다도 가고 고기도 먹고 노래도 불러서 재밌었어요. 오늘은 좀 들떴던 것 같습니다.

하늘 : 오늘 저녁으로 먹은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경재 : 오늘 늦잠도 자고 좀 논짓물도 가고 쌤들이 구워주신 맛있는 고기도 먹고 되게 기분 좋은 하루 였습니다.

6/6 비치코밍, 쓰레기가 예술로
제주도 좋아









소감 6일차

재형- 제주도 좋아 의 첫인상이 되게 좋았다. 내부 모습이 좋았고 유리로 만든 작품들이 좋았다. 설명은 딱히 좋진 않았다. 제주도 좋아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활동 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좀 설명이 길지 않았나..생각했다. 사실 설명 제대로 듣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게 될까? 만을 생각했다. 티 좋았고 브로치 좋았고 근데 그냥 좋았다. 제주의 환경, 쓰레기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신기하고 좋았다. 그분들은 좋아 보였다. 열심히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다.

문형- 한울삶&이건워조는 갈 때 버스를 타고 의욕없조와 냉장고 나라는 갈 때 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동석 쌤이 우리와 은지 쌤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셨다. 거기서 무수천까지 갔는데 우리가 타야 할 버스가 없어서 결국 거기까지 다시 동석 쌤이 데리러오셔야했다. 동석 쌤을 기다리며 한 40분정도 비오는 길바닥에서 버스정류장에 숨어 '바니바니'게임을 했다. 하기 귀찮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 밥을 먹으로 갔다. 백반 집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온 거 같다. 제주도 좋아 에 갔는데 역시 예뻐다. 맨 처음에 어떤 남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아서 죄송했다. 실크 스크린으로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해녀가 조금 연하게 찍혀서 아쉬웠다. 그래도 유리조각으로 만든 브로치는 잘 돼서 좋았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곳 이었다. 비치코밍을 직접 못해봐서 아쉬웠다. 차를 타고 돌아와서 일찍 쉬었다. 제주도에서 엄청 쉬엄쉬엄 보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딱히 해야 하는 목표가 딱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해져있는 게 아니면 하지 않으니까 이려고 있어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나 그냥 쉴 때는 빈둥빈둥 거렸다. 벌써 제주도에 반이 넘게 지나갔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민정- 내내 기대했던 제주도좋아에 갔다. 비치코밍을 해서 유리를 가지고 유리 공예를 해서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곳이었다. 바다에 가면 늘 생각했던 저 쓰레기들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날카로운 유리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스러웠다 제주도좋아 ppt를 보면서 개인무빙으로 이곳을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했는데 실크스크린 티셔츠와 액자를 만들었다 둘다 만족스러웠다 사진도 찍고 다시 숙소에 돌아가던 중 어릴때 먹던 과자를 발견해서 샀는데 기분이 좋았다.

소정- 오늘은 '제주도 좋아' 한 곳만 갔다. 이동시간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시간이 꽤 걸려서 인데. 제주도에 오기 전 반티를 맞추자고 했을 때 제주도 좋아에서 하는 실크 스크린 반팔티를 반티로 하자는 말에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내내 기대를 하고 있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주도 좋아를 소개하는 영상과 설명을 듣고 바로 실크 스크린 작업을 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 일반적으로 하는 같은 디자인의 반티와 다르게 하나하나 다 직접 고르고 무늬를 넣고 해서 그런지 더 의미 있고, 소장욕구가 커졌다.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개 영상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어떤 느낌일지 가장 궁금했다.

영경- '제주도 좋아'에 갔다. 두 조는 차를 타고 가고 두 조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나는 버스

타고 가는 조였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와서 차가 갔다가 다시 와서 태우고 가기로 했다. 차를 기다리는 중 게임을 했는데 진짜 재미있었다. '제주도 좋아'에 가서 처음에 소개영상을 봤는데 '제주도 좋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좀 졸려서 많이 졸았다. 티셔츠랑 브로치(?)를 만드는 작업은 재미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트렁크에 탔는데 너무너무 더웠다.

예현- 오늘 아침에 선호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당황했다. 제주도 좋아를 버스로 가는 조와 차로 가는 조로 나누었다. 아침에 버스로 가는 조는 한울삶과 이진뫼조는 버스를 타고 한번더 타려는 버스가 안와가지고 기다렸다. 기자리는 데 비가 왔다. 좋았다. 기다리며 애들이랑 게임을 했다. 결국 안와 가지고 동석선생님이 테우러 오셨다. 나머지 냉장고 나라와 의욕없조가 있는 곳에 갔을때는 날씨가 화창했다. 오늘은 제주도 좋아를 갔다. 생각보다 괜찮고 재미있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았던거 같다. 옷에 실크 스크린 작업을 했다. 해너그림이 예뻐다. 다같이 입으니 좋았다. 바다에서 있던 유리병을 비치코밍해 벤티를 만들었다. 예뻐다. 거기에서 금산간디고 등학생을 만났다. 벤티와 반팔티를 완성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제주도 좋아와 작별하고 이번엔 한울삶이 차를 먼저 타고 갔다. 내일이면 지구마을평화대학으로 숙소가 바뀐다.

경재- 제주도 좋아 에 가서 비치코빙을 하고 배지와 해너 반팔티도 만들었다.-

하늘- 8시에 숙소에서 나와 사려니 숲길로 왔다. 10km짜리 사려니 숲길을 걷고 제주도 좋아로 티셔츠 실크스린도 하고 바다에서 주워두신 유리조각들로 배지도 만들었다.

하진- 오늘은 제주도 좋아를 간다. 아침식사가 좀 늦어져서 한울삶 (승택, 문형, 예현, 한울)/이진뫼조 (한결, 소정, 승훈, 영경) 는 먼저 버스를 타고 출발했고 냉장고 나라 (재형, 경재, 유경, 하진)/의욕없조 (다민, 민정, 창범, 하늘) 는 늦게 학교 차를 타고 출발했다.

점심을 먹을 우리들 식당 앞에서 버스타고 오늘 조 애들을 기다렸다. 다 오고 나서 밥을 먹고 제주도 좋아로 갔다. 비치코밍!! 너무 좋았고 재밌었다. 바다의 쓰레기 (유리병 조각) 들로 재활용 해서 만드는 곳 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정말 대단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다. 우리 반 반티를 맞추고 브로치를 만들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노래방 기기로 또 노래를 부르고 애들과 바니바니 게임을 했다.

다민- 제주도 좋아를 갔다. 제주도 좋아는 비치코밍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밀려와 쌓이는 대책없는 바다쓰레기 문제를 예술로 함께 해결해보자하는 곳이다. 작품이 전시되어있는 것 중 유리병으로 만든게 많았는데 정말 유리병 같지않았다. 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있었다. 유리병이 그렇게 바뀔줄은 몰랐다. 제주도 좋아에서는 실크스크린으로 티셔츠를 만들고 유리로 브로치도 만들었다. 둘다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다. 나중에 바다에 가면 비치코밍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유경- 제주도 좋아는 가장 기대가 적었지만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 바다의 쓰레기들을 보기 좋은 예술 작품들로 승화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 공간 자체도 정말 멋있었다.

하루나누기

한울 : 제주도 좋아가서 실크스크린 하고 액자에 뭐 하는 거 해서 좋았어요.

창범 : 저 오늘 제주도 좋아에서 해서 재밌었구요 오늘 매점가서 맛있는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서 좋았어요.

하늘 : 제주도 좋아 가서 실크스크린이랑 뱃지 만드는거 재밌었고 아침이랑 저녁 맛있게 먹어서 좋았어요.

하진 : 생각보다 티셔츠를 만들고 나니까 되게 다들 예쁘게 나와서 행복했고 뭔가 뭐 만들고 하는게 재밌었다.

다민 : 가서 재밌게 잘 만든 것 같고 다들 뱃지나 이런거 다 잘 만든 것 같아서 좋아요.

예현 : 저는 오늘 오전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 조였는데 버스가 쉽게 안 움직여서 그래도 그 시간안에 또 다른 게임을 배워서 좋은 시간이었고 동석쌤이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했고 점심 먹을 때 날씨가 개어서 좋았고 제주도 좋아에 되게 기대를 안하고 갔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다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오늘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민정 : 오늘 제주도 좋아 갔다왔는데 티셔츠 재밌게 만들어서 좋았고 옛날에 먹던 불량식품을 먹어서 좋았구요 지금 카메라에 초점이 안 잡혀서 기분이 가라 앉았어요. 되게 속상해요.

문형 : 지금 너무 졸리고 그래도 오늘 바니바니 재밌었어요.

소정 : 오늘 뭔가 많이 움직이는 일정은 아니었는데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걸 많이 알고 한 날인 거 같아요.

영경 : 제주도 좋아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동석T :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루 나누기 보다는 여기를 제주도를 처음 오려고 했을 때 다들 알고 왔을텐데 이 생각을 하고 일정을 소화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제주도 좋아를 갔다가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를 바라보았다 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제목을 잡고 온무빙을 너무 생각없이 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하루 나누기를 하면서 생각했던게 있어서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삶나누기 세상바라보기 이런 주제 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했던거 그냥 아 재밌는 곳 간다 이 생각밖에는 없었나 생각의 범주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봤고 학교에서 생활했던 인물들이 아니잖아 그런 주변인물들도 다 바뀌었는데 다른 세상에 왔다는 생각 선호쌤이 이야기 했던 대로 힘들어서 더 내색을 하는지 안 힘들어서 어리냥을 부리는 건지 기준을 못 잡겠어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건지 어리냥을 부리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어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하면 나 힘드니까 남도 힘들텐데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좀 안하고 생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하루 나누기도 보면 좋았어요

이런 하루나누기 할 거면 저는 다음에 할게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을 걸 아는데 오늘 좋아요 한 사람은 항상 좋아요라고 했는데 무빙에 왔으면 정말 느낌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기대치이지만 너희들이 위해줘야 은지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위해줘서 은지쌤이 재밌을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건데 더 해주기 싫게끔 만드는게 너희들의 생활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좋아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를 조금 더 내려놓고 상대방을 좀 생각했으면 해요. 내 생각이 정말 변화하고 있다면 변화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 했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느낀거는 쓰레기는 주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주우려 다니는 생활이 참 뿌듯하겠다. 우리가 이 무빙을 할 때 남들이 아 니네는 그래서 무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무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지T : 재주도 좋아하는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자센터나 여러 기관들 보면서 아 이렇게 적점을 맺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뭔가 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쓰레기 줍는 것부터 하나하나 되살리는 것 까지 직접 해변에 나가서 비치코밍을 하지 못한게 좀 아쉽긴 하지만 돈주고 배우지 못 할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하루 나누기 전에 이야기 했던 말들이 제 감정이고 생각인데 그걸 친구들이 불편하더라고 마음 속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가슴 한편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 타대안에 가서 또 다른 세상을 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재 : 오늘 아침을 했었는데 주먹밥이 쉬울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꽤 힘들었고 재주도 좋아에 가서 하얀 티셔츠도 만들고 배지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쌤들이 되게 좋으 신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승훈 : 오늘 재주도 좋아 가서 피피티를 보는데 재주도 좋아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보람차고 재밌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구요. 오늘 쌤들 말씀 들어보니까 남은 기간을 의미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형 : 아침에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재주도 좋아 갔는데 차를 힘들게 갔는데 즐거운 하루 였던 것 같아요.

한결 : 재주도 좋아 갔는데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아보였어요 이런거를 지속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뭔가 제주도에 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찾고 있고 불편하진 않는데 자꾸 이러는게 좀 숨막히긴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단 이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7 느껴라 제주 풍경

올레길 8코스, 김영갑 갤러리







소감 7일차

다민- 올레길8코스를 걸었다. (길이 예뻐다. 제주도는 어딜가든 다예쁜것같다.) 해안도로여서 바다가보여 더 예쁜 것 같다. 주변 건물도 예쁘게 생겼다. 조금 짧긴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도착해서 단체사진을 찍고 버스를 타고 김영갑갤러리 '두모약'을 갔다. 사진이 정말 움직이는 듯했다. 보통사진이랑 다른느낌이었다. 사진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아름답고 바로 앞에 있는 풍경같았다. 다보고 지구평화대학으로 숙소를 옮겼다.

민정- 기다리던 해안가 올레길 8코스를 걸었다 여러 생각들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걸었다 해안가라 그런지 정말 좋았다 4km를 걸었는데 짧아서 6km가 여건이 안되던게 많이 아쉬웠다 올레길을 갔다가 김영갑 갤러리를 갔다 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이어서 버스를 놓칠까 정류소를 지나칠까 많이 긴장하며 이동을 했다 김영갑 갤러리는 포근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김영갑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루게릭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사진을 찍으러 다니신것도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었다 제주도에 진정한 모습들을 카메라로 담은 사진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자연스러운 본래 그대로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김영갑 작가의 말씀인 "전시회를 이렇게 외딴곳에 해도 나의 걸면의 아름다움을 담지 않고 속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들을 보러 올 사람들은 오게 된다"라는 말이 많이 와다왔다 지마평에 입소했다 생각보다 숙소가 좋았다.

소정- 일곱 번째 날이다. 일정이 계속 수정되면서 오늘은 올레길 4코스 중 숙소에서 논짓물까

지 4km, 그리고 김영갑 갤러리에 갔다. 8km 이상을 걷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차를 가져가니 거리 상 애매해 저서 4km를 갔는데. 해안도로를 타고 가서 내내 예쁘긴 했지만 역시나 짧았다. 이재형처럼 동석선생님을 따라 왔다 갔다 할 걸 그랬다.

김영갑갤러리는 가는 길에 버스를 두 시간 넘게 타 지치긴 했지만, 그만큼 의미있게 봤다. 둘러보는 데 예전에 가족들과 와서 봤을 때랑은 조금 다른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그만큼 나에게도 다른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숙소인 지마평으로 갈때는 놓쳐서 1시간이나 기다린 후에야 갈 수 있었다.

영경- 사실 올레길을 걷는 게 싫진 않았지만 굳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막상 걸어보니 생각보다 좋았다. 하지만 4km정도여서 좋았던 것 같다. 그다음 목적지인 '김영갑 갤러리'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레일바이크를 재미있다고 탄 것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숙소인 지마평은 진짜 좋았다. 특히 오리고 닭!!!너무너무 귀여웠다. 저녁을 먹고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을 봤다. 중간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다 보고 나서도 슬프긴 했지만 그것보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났던 것 같다.

예현-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올레길을 걸었다.올레길이 맞나? 그냥 길 걸었던 거 같기도 하고 다들 사진 찍기에 바빴던거 같다.날씨도 좋고 예뻐서 좋았다. 올레길을 걷고 김영갑 갤러리를 갔다.내가 생각한 것 만큼 사진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예쁘고 와닿았다.김영갑갤러리는 다시 가고싶다.거기서 지구마을평화대학에 들어가는 버스를 타는데까지 1시간을 기다린거 같다...그후 숙소에 돌아와서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월호를 다룬 영상을 보았다.다 보고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문형- 일어나서 숙소를 옮기기 위해 짐을 싸고 청소를 했다. 짐을 차에 싣고 올레길을 걸었다. 취소되었던 올레길을 애들이 다들 너무 걷고 싶어 해서 짧지만 8코스에 일부인 숙소부터 논짓물까지 4km 정도 걸기로 했다. 진짜 짧았다.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걷는 길은 바다가 계속 쪽 보여서 예쁘고 걸기도 편한 길이라서 좋았다. 논짓물에는 진짜 너무 빨리 도착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천천히 보면서 걸어왔는데도 너무 짧았다. 조금 더 걷고 싶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모듬끼리 김영갑 갤러리로 갔다.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는 거였지만? 김영갑 갤러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딱히 기대가 되지 않았다. 가는 길에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자서 옆에 있는 예현이가 불편했을 거 같다. 김영갑갤러리는 들어가는 입구가 무척 예뻐다. 맨 처음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았다.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한 곳에서 엄청 많은 다양한 사진이 나온 것도 너무 좋았다. 다시 가고 싶다. 완전 논문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김영갑 그분이 너무 부럽고 멋있었다. 숙소에 갔는데 수용오빠를 만나서 당황했다. 내일 기억공간에 가는데 그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을 봤다. 몰랐던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세월호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끝에 너무 졸려서 조금 존 거 같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보고 희생자분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에 청춘열차에 가서 봤던 희생자분 부모님이 기억나서 그 딸이 단원고 2-9 임세희 언니분께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써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세월호를 위해 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 같다.

경재- 안덕수련원에서 나온 뒤 4번째 숙소 지구 마을 평화 대학에 가는 길에 올레길을 잠시 걸었다. 그리고 지구 마을 평화 대학 에 도착해 떡만두국을 먹은 뒤 세월호 에 대한 다큐를 본 뒤 내일 갈 리본 기억의 공간에 드릴 편지도 썼다. 8번째 날에는 잠시 동네 산책을 한뒤 기억 공간 리본에 가서 황용운 선생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다. 그리고 정성껏 쓴 편지도 전해 주고 왔다. 굉장히 슬펐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황용운 선생님께서 다시오셔서 함께 나쁜 나라 도 시청 했다. 보다가 졸려 잠시졸았지만 열심히 보았다. 마지막에 황용운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 도해주시고 직접 작곡하신 4.16에대한 노래도 불러주셨다.

재형- 올레길이라 좋았다. 많이 걷지는 않았지만 바다가 보여서 좋았다. 가는 중간에 창범이와 바위를 걸어가 바위 사이에 들이치는 바닷물을 봤을 때 정말 황홀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서 한참을 봤다. 다음에는 더 길게 걷고 싶었다.

김영갑 갤러리는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다. 주변에 정원이 있었는데 꽃이 정말 예뻐다. 사진이 정말 멋있었다. 제주여서 찍히는 사진들이었다. 정말 “삼시간의 황홀”이었다. 갤러리 안에 돌이 막 깔려 있었는데 특이했다. 다 보고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슈퍼를 들렀던 나로 인해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라 하여 미안했다. 사실 별로 안 미안했다. 그랬다.

지구마을 평화대학에는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밥 먹는 곳이 좋았다.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그곳 분들도 좋았다. 저녁에 세월호의 진실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를 봤다. 2주기가 지나면서 다시 점차 잊고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 놀라운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학생 영창 님에게 편지를 썼다. “세월호 희생자”가 아닌 “영창이 형”에 대해 읽고 편지를 쓰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창범- 기억공간 리본에 갔다 왔다. 가서 황요훈 선생님을 만났다. 가서 황용훈 선생님이 틀어 주신 영상을 봤다. 그 영상을 보고만은 생각을 했다.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황용훈 선생님이 지마 평으로 오셔서 나쁜 나라 라는 영화를 보여주신다 하셔서 저녁 밥을 먹고 영화를 봤다. 무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

하늘- 숙소에서 나와 올레길8코스로 갔다.올레길8코스를 걷고 김영갑갤러리로 갔다.김영갑 사진들을 보았다.마지막 숙소인 지구마을평화대학으로 갔다.

하진- 올레길 8코스 4km 정도 걸었는데 더웠다. 하지만 사진을 짹 많이 찍었다. 풍경도 너무 이뻐다. 김영갑 갤러리 가는 버스에서 너무 졸렸는데 완전 잘 자서 기분이 좋았다. 김영갑 갤러리를 다 둘러보고 나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를 놓혀서 1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렸다. 그 1시간 동안 SNOW 라는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무지무지 많이 찍었다. 스티커가 붙는 카메라 앱 인데 너무 웃겼다. 무사히 버스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다.숙소에는 닭이랑 오리가 있는데 너무 귀여웠다. 몇 번 풀어두시는데 오리 걷는게 너무 귀여웠다. 집에서 키우고 싶다. 헤헤;) 저녁을 먹고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을 상영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학생 분 한명을 골라 편지를 썼다. 너무 슬펐다. 답답했다.

유경-김영갑 갤러리도 좋았다.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이 놀라웠다. 분위기도 좋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것도 좋았던 것 같다. 지마평으로 숙소를 옮기고 난

후 밤에 마련되어있는 카페 공간에서 다음 날 갈 곳을 위해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편을 보았다. 봐야지, 봐야지 하고 미뤄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고 나도 모르는 새 많이 무뎠던 기억들에 반성했다.

은지선생님- 16명의 아이들과 9박10일 제주일정을 보낸다는 건 마냥 편하고 쉬운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는 느끼고 배울 아이들을 기대하며 한걸음,두걸음 달려 내린다. 제주에 흘러 이 곳을 만들어가셨던 김영갑선생님 덕분에 아이들과 나또한 '무언가'는 가슴에 새기고 가지 않을까싶다. 살아 있음에, 보고 있음에,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 감사를 가슴에 새기고 갈 수 있는 아이들과 내가 되기를... 다음번 이곳엔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될까? 사랑하는 우리 빠바반 아이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 옳고 그름의 지혜와 분별이 있길... 김영갑갤러리 무인카페 방명록에 적고 온 글이다. 짧은 글이나 참 많은 감정을 담아 썼었다. 훗날 이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 한자락 드리워지길 바라며.

승훈의 제주- 3학년 무빙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다. 무빙에서 제일 좋았던 건 김영갑 갤러리였다. 사진을 보고 눈을 감고 그 사진 속에 내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제일 안좋았던건 하는 조별 활동으로 레일 바이크 타러간건데 중간에 버스타고 비도 너무 많이 맞고 레일바이크도 별로라서 굉장히 힘들었다.근데 무빙 끝나고 집에 오는데 드는 생각이 내가 무빙가서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빙 갔다 온 게 꿈 같았을정도로 의미가 별로 없었던것 같았다. 뭔가 4.3이나 세월호 에 대해서 전보다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엔 얻은 게 없는 것 같다. 친구 사이도 엄청 가까워진것 같지도 않고.... 생각해보니깐 의미없이 무빙을 보낸 이유가 내 생각이 쓰레기 같았던것 같다. 하루하루를 '아 오늘 뭐하네? 피곤 하겠다... 빨리 끝내고 숙소 가서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것 같다. 후회가 된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무빙을 진행했으면 지금보단 나았을것 같다. 그래도 재밌었던 했었다. 재미만 있었지. 더 걱정인건 타 대안마저 의미없이 지나갈것같아 무섭다. 타 대안에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

하루나누기 6/7~8 일차

경재 : 오늘 기억공간에 가서 황용운 선생님께서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숙소까지 오셔서 노래도 불러 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형 : 뭔가 이틀 동안 세월호에 대한 다크나 영화나 여러 가지를 접했는데 이번 동안 계속 많이 접했지만 아직도 속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이제 무빙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내일은 많이 놀다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한울 : 어제 김영갑 갤러리 갔었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기억공간에서도 예전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잊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승훈 : 어제 김영갑 갤러리에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 사진에 있는 풍경에 있다고 상상을 하니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김영갑 갤러리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세월호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은데 머리에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침

목.....) 끝

창범 : 어제는 김영갑 갤러리에 갔어요 되게 크고 넓고 볼 것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한 만큼은 아니었어요. 오늘 와서 기억공간 가고 나쁜나라 보고 한 번 더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런 상상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사고로 가족이 죽게되면 난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서 마음이 아팠구요 영화 보다가 지루했는데 경재가 웃겨줘서 좋았어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결 : 짧지만 굵었던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경 : 저는 뭔가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무서워요. 무빙오기 전에 걱정 한 대로 관계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점들이 자꾸 뭔가 제 기분을 망치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래도 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 라고 생각도 하고 분명히 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민 : 항상 느끼는 건데 제주는 어딜가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영경 : 계속 어제 올레길 걸은게 생각이 났는데 거리 좋았어요 길이 참 이뻐던 것 같아요. 세월호는 다들 알게 되는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하진 : 어제랑 오늘 정말 세월호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현 : 어제랑 오늘 일지를 자꾸 못 써서 자꾸 일지가 밀려서 그런 것 같고 나쁜 나라를 봤는데 슬펐어요 정말 그리고 벌써 시간이 가서 엄청 당황했어요.

승택 : 사실 세월호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도 않았고 그냥 관련된 기사나 집회 가면 무작정 슬퍼서 울고 봤는데 참 뭔가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용운 선생님 보이스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런 담백한 목소리 마음에 듭니다.

소정 : 오늘 한 군데 밖에 안 가고 버스도 안타서 편했던 것 같고 어제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무빙은 시간도 빨리 갔지만 널널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시간이 매우 빨리 가서 아쉽긴 해요.

문형 : 저는 지금까지 일정 중에 사실 김영갑 갤러리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의미있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억공간에 간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본 것도 그렇고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날 잡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해 감정을 탁 이케 해 놓고 보니까 더 집중이 잘 된 것 같아요.

민정 : 저는 저도 김영갑 갤러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분을 알게 되니까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이 그리고 오늘 나쁜 나라를 두 번째 봤

는데 처음도 그렇고 아이들이 죽어갈 때 엄마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기억이 나서 슬퍼요 유경이가 자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달래요. 이런 관종!

하늘 : 오늘 기억공간이나 나쁜 나라 봐서 세월호에 관련 된 걸 보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은지T : 저는 어찌 됐던 간에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친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새기기를 특히나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친구들을 제가 보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또 바다를 가기도 하지만 물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세월호를 보면서 친구들이 대입이 되기도 하고 내 일이기 때문에 주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느꼈을 오늘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잘 새기고 갔으면 하는 바람 저는 여러분들을 좋아하죠.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러 했으면 좋겠어요.

6/8 잊지말자 기억하자 우리의 역사

통오름, 기억공간 리본, 나쁜나라 영화상영















소감 8일차

다민- 통오름과 기억공간리본에 갔다. 통오름이 마침 숙소 주변이어서 잠깐 갔다왔다. 그렇게 높지도 길지도 않아서 좋았다. 가서 기억지기 황용운선생님을 만나 뵈었다. 기억공간리 본에는 팽목항 사진전시중이었다. 가서 전날에 세월호희생자분들께 쓴 편지를 전달했다. 황용운선생님께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영상도 보여주셨다. 돌아와서 저녁에 황용운선생님과 함께 '나쁜나라'라는 영화를 보았다. 다 보고 나서 황용운선생님께서 노래도 불러주셨다. 이렇게 하루종일 세월호생각을 한적은 처음이었다. 세월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되었다. 내가 세월호에 대해 좀더 많은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식을 먹고 유경이가 생일이여서 생일 파티를 하였다.

민정- 기억의 공간 rebon 다시 한번 4.16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학교를 떠나있을때에는 나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까맣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다. 가끔 기억이 나 사람들 에게 이야기를 꺼내보면 왜 해결 된 일을 다시 이야기 하냐는 소리가 돌아와 4.16에 대해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알지도 알은채 그렇게 지냈었다. 그 공간에 가서 자기 반성도 많이 하며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곳에 있지 않게된다면 다시 또 잊어버릴 것 같은 현실이 무서워졌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소정- 원래 일정은 기억공간만 가는 것이었는데, 지마평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바로 근처에 있는 통오름에 다녀왔다. 땀이 나고 짹짹했는데 길이가 길진 않아서 가는 길에 오랜만에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왔다. 점심으로는 우리조가 끓인 진짬뽕을 먹고, 바로 기억공간 리본으로 갔다. 소를 키우던 축사를 빌려 새롭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진전시도 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 나열 되어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의 손길이 닿아있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공간 안에는 세월호 이야기를 담은 책과 많은 글들이 있었다. 관련 영상도 함께 봤었는데, 어제부터 내내 세월호를 함께 얘기하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걸까 하며 후회도 되었지만, 이로 인해 조금 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다. 영상을 보며, 글을 읽으며 순간순간 울컥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며, 내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고, 숨기려고만 하는 모습들에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도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만큼 짜증만 배로 불려온 것 같기도 하다. 저녁에는 연장선으로 나쁜나라를 보며 황용운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다. 같이 많은 얘기가 오가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후회는 조금 되지만, 아직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나에게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영경- 날씨가 습기차고 더웠다. 그래서 지마평 근처에 있는 통오름에 갈 때 힘들었다. 땀도 애매하게 나서 막 짹짹했다.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기억공간 리본으로 출발했다. 가서 영상을 봤는데 전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어 짜증나고 슬펐다.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본 것 같다.

이날 저녁이 우리 조가 밥하는 날 이었는데 김치가 완전 별로여가지고 거의 망할 뻔 했다. 지마평에 있던 선생님과 신라면 스프의 도움으로 그나마 맛있게 된 것 같다. 이 날은 저녁먹고 나쁜나라를 봤다. 그리고 황용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많이 물어보고 얘기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질문이 없어서 인지 낮을 가려서인지 말을 별로 안했다. 그리고 유경이 생일파티(?)를 했다. 케익이 맛났다.

예현- 오늘 기억공간 리본에 다녀왔다.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었던거 같다.팽목항의 사진을 전시 하고 있었다.사진으로 본 팽목항은 고요하고 슬픈바다였다. 유가족들의 뒤 모습도 슬펐다.기억공간 지킴이이신 황용운선생님을 뵙고 간단하게 말을 나누었다.편지를 놓고왔다.지구마을 평화대학으로 돌아왔다.밤이 되었을 때 다시 황용운 선생님을 뵈었고 함께 나쁜나라를 보았다.화가 났다.정말 무능해보였다.정치에 관해.나라에 관해 다시 관심갖고 공부해 보고싶다는 생각을했고 내가 대통령이 였다면.정치인이었다면을 생각해보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도움을 주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되새겼다.그리고 황용운 선생님이 어떻게 제주로 왔는지 그분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그후 유경이 생일파티를 하고 타대안 탐방 인터뷰를 짰다.

문형-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지마평 근처에 있는 통오름을 올라갔다왔다. 아침을 상쾌하게 여는 기분이었다. 몸이 끈적끈적해져서 짜증났지만 생각도 정리되고 길이기도 적당하고 좋았다. 와서 점심으로 진 짬뽕을 먹고 기억공간 리본으로 갔다. 생각한 거 보다 엄청 예뻐다. 예전에

우사였던 곳을 리모델링한 거라고 했는데 너무 좋았다. 아늑했다. 마침 세월호 사진전도 하고 있어서 더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던 거 같다. 거기서 사진을 보고 또 논문생각 밖에 안 들었다. 거기 계신 선생님께 세월호 관련 이야기와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세월호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 같아서 뭔가 좋았다. 기억공간에 세월호 관련 책자가 엄청 많았는데 도서관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책자들도 많아서 거기서 하루 종일 그것들을 읽고 싶었다.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와서 너무 아쉽다. 다시 숙소에 와서 자다가 저녁을 먹고 나쁜 나라를 봤다. 예전에 봤던 거라서 보면서 자겠지 생각했다. 근데 웬지 하루 종일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더 집중도 잘 되고 저번에 봤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집중도 잘 됐다. 너무 슬펐다. 기억공간에서 어떤 분이 슬퍼할 줄만 아는 사람은 너무 많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그랬다. 난 슬퍼만 하는 거 같다. 슬퍼하지만 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루였다. 하루 종일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정말 좋았다. 4.3을 과거고 관심이 없던 거라서 딱히 열심히 못한 거 같지만 세월호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관심도 있어서 더 잘 참여할 수 있었다. 가장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재형- 기억공간 Re : bon에서 기억지기 황용운 선생님을 만나봤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좋았다. 기억공간 안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그 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팽목항 합동 분양소의 사진이 되게 슬펐고 오래 기억에 남았다. 저녁에는 다같이 “나쁜 나라”영화를 봤는데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저기 위쪽 분들이 정말 싫었다. 유가족 분들의 노력과 고충을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 전날 ‘그것이 알고 싶다’와 기억공간 그리고 나쁜 나라 상영은 잇고 있던 세월호를 다시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4 . 3을 알고 세월호를 보면서 “왜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에 오고 이 날은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늘- 올레길8코스에 아쉬움이 남아 통오름이라는 곳을 걸었다.제주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관련 영상도 보고 황용운 선생님을 뵙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와 영화 나쁜나라를 보았다.

하진- 밥을 먹고 통오름에 갔다. 오늘은 너무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더웠다.하지만 통오름 거리가 짧아서 힘들진 않았다. 숙소에 다시 와서 점심을 먹고 기억공간 Re'Boun 으로 갔다. 어제 오늘 세월호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된 시간 이었던 것 같다. 유가족 합장단이 부르는 ‘네버엔딩 스토리’ 영상을 봤는데 너무 슬프고 울컥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슬프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든다. 숙소로 돌아와 밥을 먹고 영화 ‘나쁜나라’를 상영 했다.많은 걸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었던 것 같다.

유경- 씨 제주의 끝물로 간 게 실감이 안 났던 무렵이다. 이 날은 기억공간 리본에 갔다. 전날 쓴 편지와 함께 도착했다. 기억지기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들과 그 안의 편지, 사진 등등 마음 아픈 것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고 묵념할 수 있었다. 돌아와서는 나쁜 나라를 보았다. 생일파티를 해주었다. 다들 무거운 분위기라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케이크가 나와서 다들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았다. 멀리까지 케이크를 사러 다녀오신 쌤들에게 감사했다.

6/9 제주와 마무리
하도해변, 고기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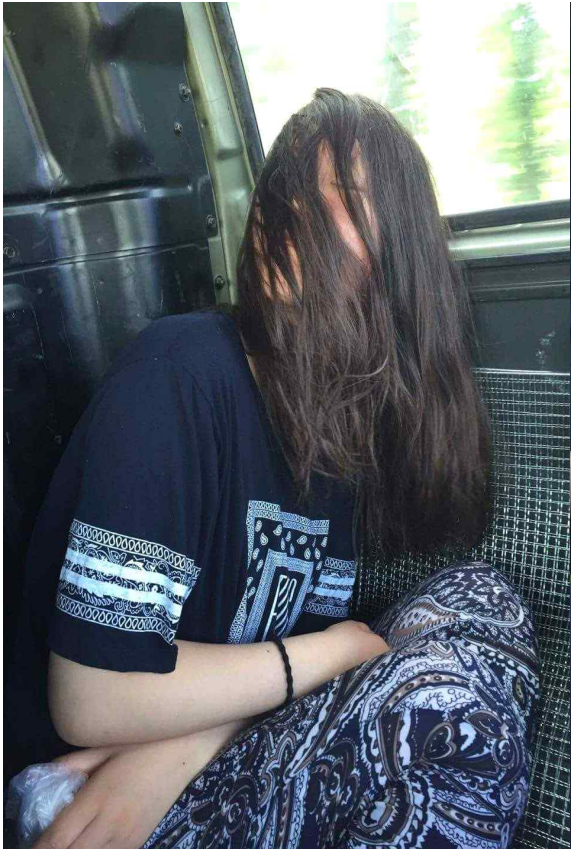














소감 9일차

다민- 바다에 갔다. 아점으로 광어물회를 먹었다. 다른애들은 한치물회, 회덕밥등을 먹었다. 먹고나서 바다에 갔다. 다같이 바다에서 놀았다. 게임도하고 모래에 묻기도 했다.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잘 놀았다. 놀고나서 숙소로 돌아와 쌤들이 구워주신 고기를 먹었다. 놀고와서 그런지평소보다 더맛있었다.

민정- 바다에 갔다 해도 뜨고 제대로 된 물놀이를 했다

신나게 놀다보니 체력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에너지 자이저 처럼 바다에 뛰어들면 다시 기운이 샘솟았다 재밌게 놀고 쉬다가 고기를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정말 많이

이번 하루나누기에 이번 무빙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던 세상 바라보기를 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놓았다 어떤 것이 정답인진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바라보기를 하게 된것 같다 4.16, 4.3에 대해 생각할수 있는 시간과 타지에서 우리끼리만 생활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있는 무빙이었다고 답을 내렸다.

소정- 진짜로 내일이면 집에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끝나버렸고, 9일을 너무 즐겁게 보냈기에 아쉽기도 하다. 오늘은 늦게 일어나 가장 먼저 김영갑 갤러리에서 받은 엽서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집에 있을 엄마, 아빠한테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도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 밖에 없었다. 아점은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횃집에서 물회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별로였다. 맛집이라고 했었는데. 무슨 회는 없고 오이냉국 맛만 세계 났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라리 찌개를 시킬 걸. 그래도 선생님들이 우리 먹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했다. 먹고는 바로 소금막 해변으로 갔는데. 이번이야말로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었다. 다행히 오늘은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 게다가 바다가 매우 맑고 물 높이도 적다해서 놀기 좋았다. 덕분에 이번엔 몇 시간씩 놀았는데, 남자애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인지, 체력이 떨어져서 인지 금방 나갔다. 진짜 열정적으로 놀았다. 저녁은 역시 마지막이라고 선생님들이 고기를 구워 주셨다. 물론 다른 준비는 조금 도와드렸다. 늘 먹던 것처럼 조 별로 먹었는데. 오늘은 왠지 고기가 느끼해서 많이 못 먹었다. 모든 뒷정리가 끝나고는 하루 나누기를 했는데, 롤링페이퍼도 돌렸다. 나한테는 무빙와서 신나보였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맞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제주도는 너무 예뻐고 다 좋았다.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생각 없이 관광의 목적으로만 보냈던 건지 걱정과 후회가 조금 되지만. 제주도 자체만 말하자면 진짜 재미있었다. 아직도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게 소름 끼치고 믿기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정이 우리 위주로 편리하게 짜여있고 준비되어있어 너무 편하게만 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영경- 이날의 일정은 소금막 가는 것 밖에 없었다. 가기 전 근처 횃집에서 물회를 먹었는데 시원해서 좋기는 했지만 뚝배기가 더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바로 해변으로 갔다.

차를 타고 갔는데 여자애들 7명에서 트렁크에 탔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더웠다. 끔찍했다.

그렇게 더워서 인지 처음으로 우리 반이랑 바다에 들어갔다. 조금 추웠지만 참을만했다. 근데 계속 있으려니 추웠다. 그래서 유경이랑 모래놀이를 했다. 조금 놀다가 씻고 싶어져서

이창범한테 샤워기 있냐고, 따뜻한 물 나오냐고 물어봤다. 이창범이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 잘

나온다고 하길래 다행이다! 하고 옷 챙겨서 샤워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다.
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다. 세상에.. 개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 치는지 몰랐다.
결국 화장실 세면대에서 대충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는 길에는 선호선생님께 조선시대에
대해 들었다. 저녁은 고기였다. 맛있긴 했지만 많이 안 먹어서 아쉽다.
마지막 날이라 롤링페이퍼도 돌리고 소감도 나눴다.

예현- 와.....내일 가네..참 시간 빠른거 같다.아침겸 점심으로 횃집에 가서 물회를
먹었다.음..별로 였다. 우리의 마지막 일정인 하도해변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았다.바다는
예뻐다. 돌아와 하루나누기를 하고 잠이 들었다.

문형- 벌써 제주도 마지막 날이다.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다. 첫날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날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김영갑갤러리에서 받은 엽서에다 집으로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9일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아점을 먹으로 횃집에
갔다. 다들 물 회를 먹었는데 나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전복죽을 먹었다. 선생님들이 애들
입맛을 하나하나 맞춰주셔서 감사했다. 밥을 먹고 하도해변에 갔다. 갈 때 봉고차 트렁크에
타서 갔는데 창문 하나 없어서 지옥이었다. 습기 차고 너무 별로였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바다는 별로 안 예뻐 줄 알았는데 진짜 물이 너무 맑고 예뻐다. 한명도 빠짐없이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았다. 남자애들은 금방 놀고 나와서 모래놀이를 했지만 말이다. 발이
잘 안 디터지는 곳까지 갔는데 민정이랑 다민이가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그러다가
눈치게임해서 하진이도 묻었다. 진짜 재미있게 잘 논 것 같다. 저녁을 모듬끼리 먹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잘 먹었다. 내일 벌써 집에 간다는 게 안 믿긴다. 하루나누기를 간단하게 하고
롤링페이퍼를 돌렸다. 쓰면 쓸수록 귀찮아서 대충 썼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애들이 써준
롤링페이퍼를 읽으면 왠지 기분이 좋다. 마니또도 하고 있었는데 이재형이 내 마니또였다.
장문의 편지를 써줘서 고마웠다. 난 민정이 마니또였는데 너무 못해줘서 미안했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마지막 날 밤을 그렇게 지나갔다.

경재- 늦잠을 자고 아점을 바닷가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그렇게 먹고싶었던
물회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해물뚝배기를 선택해서 잘먹었지만 뚝배기에
있는 소라를 잘못먹고 쓴맛이 입에퍼져 입맛을 버리기도 했다. 바다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고 그렇게 깊지않아서 편찮았다.가끔식 추울때는
밖에나와 따뜻하게 모래찜질을 하기도 했다.물놀이를 다하고 숙소에 온 뒤 마지막
저녁으로 고기를 많이 구워먹었다!!!!!!!

재형- 소금막 해변 간다고 했다가 탄 데 갔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다. 다행히
이날은 날씨가 좋았고 기대가 많이 났다. 물이 되게 맑아서 신기했고 모두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즐거웠다. 이 날 고기를 먹었나? 맛있었다.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다. 즐거운
하루였다.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제주 무빙만큼은 그랬다.

창범- 바다에 갔다 물이 엄청 깨끗하다 물이 조차긴 했지만 재미있게 놀았다. 난 좀 놀다가
모래사장에서 땅을 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왔고 거기에 경재가 들어가고

싫다고 해서 머리만 빼고 땅에 묻었다. 그다음에 가라를 해서 전하진이 들어갔다. 거기서 다같이 사진을 찍었다 다놀고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재형이가 기분이 좋아서 술 마신 것처럼 행동했다.

하늘- 12시에 횃집에서 아점을 먹고 해모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쌤들이 구워 주신 고기를 저녁으로 먹었다.

하진-아침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께 쓰는 편지를 썼다. 아점을 먹으러 갔다. 먹은 것은 '물회' 나는 물회 말고 해물 뚝배기를 먹었다. 든든하게 먹고 바다로 갔다. 가는 길에 차 트렁크에 탔는데 너무 더웠다. 창문이 없어서 바람도 못 쐬고 그 트렁트에 7명이 타서 습기도 찼다. 더웠어서 그런지 바다 가서 완전 시원했다. 엄청 깊게 까지 갔는데 발이 안 닿아서 펄떡대고 있었는데 오승택이 구해줘서 고맙웠다. 바다 물속에서 우리반 몇 명이서 바니바니 게임을 하고 은지 선생님,소정,민정,다민이랑 또 바니바니를 하고 숨 참기 대회를 하며 놀았다.내기를 했는데 내가 저서 사탕을 사게 되어 버렸다. 오승택이 합류해서 팀을 정해서 과자를 걸고 달리기/이어 달리를 했는데 우리팀(승택,다민,하진)이 이겼다. 과자를 얻어먹을수 있게 되었다. 실컷 바다에서 놀다 숙소로 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굿굿 맛있었다:)

하루나누기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돌렸는데 애들한테 쓸 말이 없었다. 이번 무빙에는 뭔가 내가 친구들한테 관심 없었나 생각을 했다. 아니면 그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하하 어쨌든 롤링페이퍼에 쓸 때 좀 대충 써준 것 같다.영경이 에게 한 줄로 썼는데 빠졌다..ㅋㅋ 오늘이 제주도에서 마지막 밤이라는데 안 믿겨 진다. 시간이 학교에서 보단 아니지만 너무 빨리 갔다.

유경- 일정 상 마지막 날이었다. 바다에 가 놀았다. 나랑 이령경은 중간에 나와 왕따같이 모래성을 쌓았다. 후후후후

하루나누기

한울 : 오늘은 마지막 날이 잦아요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적어 봤어요. 바다가 낮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9일 되가는데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를 봐서 춘풍추상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남을 대하기에는 춘풍처럼 관대하게 자기에게 추상같이 엄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 하는 일을 돌이켜 보면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의 잘못은 냉혹하게 평가하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자기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남의 경우는 그러나 사정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거나 알더라도 극히 일부분 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타인에게는 춘풍처럼 너그러워야 하고 자신 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와 소통의 전제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즐겁게 보낸 것 같고 고기 아주 맛있었습니다.

김예현 : 저는 이번 무빙 하면서 너무 생각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고 하루 나누기 하면서도 생각이 만나서 여유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제주도를 함께 와서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은지선생님의 말을 듣고 세상 바라보기가 되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수고했고 타대안 잘 다녀 왔으면

좋겠어요. 무빙 내내 고기 안먹는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결 :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았어요.

최문형 : 오늘 바다가 되게 맑아서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았고 트렁크 뒤에 타는 거는 힘들지만 좋았어요. 이번 무빙은 되게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딱히 세상바라보기를 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무빙이었던 것 같아요.

최유경 : 저는 무빙 하는 동안 좀 여러모로 불편 했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반이 서로 얼굴들도 못 보다가 우리끼리만 생활을 해서 그런지 염려했던 부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무빙 자체는 재미있었어요. 세월호라 던가 제주도 참사 라던가 그런거에 대해서 잘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의미있는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너무 불편했어요. 사실 오늘 저녁은 준비 하거나 그런 모듬이 없는 저녁이었고 다 같이 치우는게 맞는데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누구는 숙소 들어가 있고 누구는 계속 치우고 있는데 저는 되게 불쾌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조금 같이 먹은 거는 같이 치우는 방향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다민 : 그동안 제주도에 있었던 시간들이 빨리 간 것 같아서 아쉬웠고 오늘은 정말 잘 논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류소정 : 오늘 마지막 날인데 물놀이를 갔는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애들이 잘 논 것 같아서 좋았구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은데 초반에 비해서 기분은 좀 가라앉은 것 같고 가끔씩 프로그램들이 내가 약간 즐기는 목적으로만 프로그램들을 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구요 마지막 날이라서 정말 아쉬워요.

전하늘 : 오늘 바다에 놀아서 재밌었고 저녁으로 고기 먹어서 좋았어요.

전하진 : 제주도에서 9일 시간이 빠르게 갔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하루하루 다녔던 곳이나 했던 거나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아쉬워요 하지만 좋았어요.

최민정 : 저는 원래 뭔가 무빙 할 때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그냥 무빙을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점점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서 무빙에 만족을 하구요 역사에 관련 된 걸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유롭게 바다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영경 : 제주도 무빙에 와서 세상 바라보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지리 버스 같은 것도 좀 외웠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오늘 밥 먹기 전에 오리랑 닭을 봤는데 너무나 좋아보여서 우리학교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지T : 저는 오늘 만 보면 아 우리반 친구들 남자친구들이 체력이 많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

추위를 잘 타는 구나 여자 친구들은 괴력의 힘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쵸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고 훗날 기억 했을 때 아름다운 기억 한 자락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마음 가운데 좋은 추억으로 자리 할거라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친구들을 잘 보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요.

이재형 :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어요 제주 바다에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어요 제주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게 너무 좋았고 제주를 처음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무빙이었습니다.

이창범 : 저는요 되게 무빙을 생각 없이 지낸 것 같아요 아까 물놀이를 하고 모래를 푸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비행기 탄 것 말고는 재밌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웃는 정도 그 정도 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네 별로 였어요. 제가 막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김승훈 : 오늘 바다 가서 재밌었고 고기도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빙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낸 것 같아서 후회가 되요. 근데 재밌었어요.

장경재 : 늦게 일어나서 아점으로 식당에 가서 해물뚝배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좋은 바다에 가서 정말 물이 좋았습니다. 재밌게 놀아서 기분 좋은 하루 였습니다.

오승택 : 저는 이제 이 노트북이 좀 적응 됐는데 서기가 끝이어서 좀 허무하네요. 그렇구요 정말 수고 하신 선생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와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했던 생각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좀 회의감도 들고 딱히 의미를 찾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생각 조차 아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고기 정말 맛있었고 다들 수고 했어요. 짹짹

6/10 집으로









소감 10일차

다민- 제주도를 떠나 비행기를 타고 집에가는 날이다. 제주도를 떠난다는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동안 정말 잘 배우다 놀다가는 것 같다.

민정- 드디어 집에 간다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산다는 느낌이 들면서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다. 마지막 식사로 몸국과 돔베고기도 먹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무빙이 끝났다. 타대안이 기대된다.

소정- 아침 일찍 모든 준비와 인사를 마치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몸국을 먹으로 갔다. 아주 생소한 음식이어서 말로만 들어 궁금증이 많았는데. 맛있었다.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좌석 배치가 갑자기 많이 달라져서 당황했지만, 올 때처럼 계속 잤다. 사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밖을 보면서 가려고 했는데. 하필 내옆에만 창문이 없어서 짜증이 나서 잔거다. 다음 주면 이제 타대안 탐방인데 걱정이 엄청 된다. 은지쌤 사랑해요 세상에서 은지쌤이 제일 예뻐요.

영경- 9박 10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비행기를 타기 전 몸국을 먹었는데 꽤 맛있었다. 돔베고기도 사실 그냥 수육 맛이지만 맛있긴 했다. 비행기에서도 올 때와 자리배치가 바뀌어서 말도 많이 하면서 왔다. 무거운 짐 들고 지하철로 오는 게 좀 힘들었다.

예현- 아침에 다같이챙기고 말로만 들어 보던 변선생님을 만났다. 버스로 우릴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몸국집까지 데려다 주셨다.나는 고등어 구이를 먹었는데 맛있었다.먹고 공항으로 가서 이렇게 제주도 무빙은 끝이 났다. 굉장히 짧고 짧아서 아쉽다.지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제주를 즐길걸 그런 시간을 만들걸 아쉽기도 하다.그래도 우리반 아이들과 제주에서 10일을 보냈다.다들 바쁘다가 덜컥 무빙이 와버려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거 같다.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3학년 무빙 재미있겠다 생각하던 내가 3학년 무빙을 다녀왔다.사진을 많이 찍었다.확실히 단체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 시간도 그렇고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못보고 온것도 많다.그래서 자유여행때는 더 여유 있었던거 같다.제주는 예뻐다. 모두모두 신나게 놀았니? 그럼 된 거야. 수고했어 제주는 예쁘다.3학년 무빙을 마치며.

문형-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제주도를 떠날 준비를 했다. 길기만 했던 제주도가 진짜 끝이 났다. 아점으로 몸국을 먹고 공항으로 갔다. 몸국은 의외로 맛있었다. 제주에서 김포는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도착했다. 안내방송도 즐겁고 나름 끝에도 즐겁게 끝낸 거 같다. 제주도 무빙은 정말 감사했던 분들이 많았던 같다. 가장 고생하신 쌤들부터 친절하게 뭐든 이야기 잘해주시던 제주도민분들까지. 순간순간에는 몰랐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름 좋은 여행이지 않았나 싶다.

경재- 아침에 일어나 짐을싸고 구역마다 청소를 한뒤아점으로 제주도의 몸국을 먹고 집에 갔다. 이번 제주도 무빙은 확실히 재미있었다. 어찌다 힘든면은 가끔씩 있기가 했지만 형들 말했던 데로 제주도 무빙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속만 썩었는데.. 은지쌤 동석쌤 선호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형- 몸국은 맛있었다. 몸국 맛나? 맞지? 그래 첨 먹었는데 괜찮데 담에 니도 한 번 먹어봐 맛있으께 면은 안먹어봤고 밥 말아 먹었는데 말아 먹지 말고 함 먹어봐 말으면 별로드라 그 머냐 뭘 고기 있는데 그건 돈 만을때 먹고 그려 어어 그려어. 담에 봐 한번 내 밥 한끼 사줄랑께

창범- 집으로 간다. 정말 힘든 무빙이었다. 밥을 먹으러 갔다. 몸국인가 하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말 그대로 정말 맛있었다. 집에가는데 정말 힘들었다.

하늘- 몸국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아침을 제주공항으로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집으로 왔다.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티셔츠 실크스크린도 하고 배지도 만들어서 좋았고 세월호 관련영상도 보고 나쁜나라를 보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고 슬프다는 것을 느꼈다.

하진-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다. 오늘 집에 가야 된다는게 참 신기했다. 오리친구와 닭 친구와 헤어지고 몸국을 먹을수 있는 식당에 갔다. 몸국과 돔베고기를 먹었는데 짱 맛있었다!!! 흐흐 다시 먹고 싶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탔다.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도 안왔는데 김포 가는 비행기에서는 아주 꿀잠을 잤다.김포 공항에서 간식으로 오메기떡을 받고 다들 집으로 갔다. 집에와서 제주도에서 찍은 800장 정도 사진을 다 분리해서 애들한테 보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다. 이제 타대안 무빙이 남았다. 무빙 중간 넘어서쯤에 진짜 제주도에 놀러온 것 같았다. 무빙 오기 전 에도 제주도에서 무엇을 한다 이런거 보다 제주도 자체에 가는 거에 기대가 커서 내가 학교에서 3학년 무빙으로 제주도에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제주도 무빙은 배낭여행 같은 느낌이 었다. 근데 달랐다. 확실히 차량운행도 하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느낌이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제주도 얘기를 했는데 럭셔리 하게 지내다 왔다고 그랬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예정에도 없는 휴식 시간도 가지고 다 원하는 대로 된 것 같다. 물론 원하는 대로 되면야 좋긴 하겠지만 너무 편하게 지낸 거 같다. 그리고 배낭 여행이여서 배낭만 주구장창 매고 다녔더라면 그것도 불만을 가졌을테지만....하여튼 무빙 중후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무빙 첫 날 이든 마지막 날 이든 뭔가 알아가고 느끼고 얻어가는 건 있었던 거 같다. 무엇보다 제일 알아가고 있다고 느꼈던 건 제주 4.3 사건과 세월호 사건 인 거 같다.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많이 안 것 같다. 내가 3학년 제주도 무빙을 오지 않았더라도 조금이야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제주도에 와서 4.3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알아가니 아 이곳에 이런 일 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와 닿는 느낌이었다. 다들 무사히 제주도 무빙을 끝 마쳐서 좋다. 비록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지만!!

유경- 마지막 날 아침, 몸국와 돔베고기를 먹고 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탔다. 바야흐로 제주의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다 보니 제주에 있던 당시보다 훨씬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다. 우리 반이 꼭 무빙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여행할 수 있었음 좋겠다. 즐거웠다.

승택의 제주- 사실 처음 제주도를 가기 전에는 '뭐 그렇게 재밌겠어? 그냥 지내다 오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었다.(사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또 제주도를 한 달 전 즈음에 갔다 왔기 때문에 무빙에 대한 기대는 뭐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라는 장소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다. 음 비행기를 타는 거는 좀 신났던 것 같다. 그런 조금의 기대를 안고 나는 무빙을 시작 했고 우리는 제주도의 문화, 역사, 환경, 그리고 세월호 라는 주제들로 무빙을 진행했다. 사실 제주도의 문화에 대해서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한 정도 인 것 같다. 깊이 들어가 보진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것들은 열흘간의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싶다. 제주도의 역사라는 주제는 사실 4.3 사건 관련한 것 밖에는 없었던 것 같지만(다른 게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크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4.3 사건이라는 사건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고 인간이 같은 인간을 힘과 권력이란 이름으로 짓누르고 억압할 수 있는 지 그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고..... 감정을 정리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돌아가신 분과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과 죽음만큼 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며 너무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 사실 이런 걸 보면 너무 무섭다. 나는 저런 분들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반대의 사람들처럼 그 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까봐 좀 두렵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잠시 하고 없어지기는 한다. 무거운 고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되니까 금방 사라지는 고민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든 4.3 사건이었다.

역사는 그렇고 환경 이야기를 해보자면 환경은 제주도의 환경이라고 해서 굳이 자연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버스, 바다 제주도의 모든 환경을 봤을 때 버스를 제외 하고는 너무너무 만족한 것 같다. 자연은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으며 바다는 시원한 파도가 모래를 쓸며 물러가듯 내 마음속에 응어리도 쓸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다의 매력을 깊이 알아가는 무빙이었다. 이제 락스물 덩어리인 수영장 따위로 놀러가지 않으리. 비키니가 만연하는

바다로~~ 우리나라 8개 도 중에 하필 충청북도에 사는 게 한탄스러웠다. 바다는 정말 매력적이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는 것이다.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난 분들은 정말 하나 같이 친절하시고 착하셨다. 우리 조 친구들과도 정말 많이 한 이야기가 '진짜 제주도 사람들 착한 것 같아' 자유여행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과 따로 움직일 때도 그렇고 너무 친절 하셨다. 정말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곳인 것 같다. 하지만 이 행복한 제주도 무빙의 유일한 흠이 있었으니 버스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무빙에서 가장 실수한 것이 있다면 바로 버스를 타고 다닌 게 아닌가 싶다.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비 되었던 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구경 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추억이 많은 무빙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루 일정 자체가 버스 기다리고 버스 타고 내려서 기다리고 환승하고 도착하면 보고 나오고 또 버스타고 내려서 기다리고 환승하고 이걸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오승택 인생의 가치관 '인생은 최대한 실용적으로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풀린다면 바로 해라'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건 오승택 가치관에 있어서 정확히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무빙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들고 아쉬웠던 점은 이 점이 아니었나 싶다. 사실 힘들었던 것 보다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환경 이야기 쓰면서 계속 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쓴 환경에 대한 내용이 문화와 굳이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결론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문화는 별 다를 게 없다.

환경 이야기를 이쯤 하고 마지막 주제인 세월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 사실 이번 무빙을 통해 정말 세월호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깊이 느낀 것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며 이 나라의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불신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희생자 단원고 학생 중 한 명인 영창 학생한테 편지를 쓰며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을 진심으로 공감 하게 되었다. 황용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세월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월호 의식 팔찌를 끼고 다니고 가방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며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물어볼 때 이야기 해 주고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해 주는 것. 전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들 이라고 하셨다. 세월호 사건에 너무나도 무관심 했던 내가 이번 무빙을 통해 다시 한 번 세월호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좋다. 너무 좋다. 세월호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세월호 이야기까지가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지금 이렇게 3학년 무빙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1,2학년 때 무빙 보고서를 지금 쓴다면 딱히 기억도 안 나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관계 이야기일 텐데 이번 무빙은 다른 무빙과 비교 해 봤을 때 관계 면에 있어서는 가장 괜찮았던 무빙 이었고 굳이 다른 무빙들과 비교 하지 않아도 이번 열흘간 친구들과 너무나도 잘 지냈던 것 같다. 한울이랑 싸운 것도 기숙사에서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진 않는다. 사실 관계 이야기를 제외 하고는 크게 주제를 잡아 이야기 할 것도 딱히 없다. 열흘간 나는 그냥저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은지 쌤과 이야기 해 보면 정말 재밌어 보였다고 하셨다. 지나고 나면 '그때 재밌었지'라고 회상할 거라고 하셨다. 재밌었다. 이번 무빙은 재밌었다. 다시 한 번 가라고 해도 갈 것 같다. 지내다 보면서 처음 가지고 갔던 기대 보다 그 이상의 무빙이었던 것 같다. 사실 그리 큰 설렘도 아니어서 설렘 그 이하였다면 정말 실망 많이 했을 것 같다. 딱 설렘 그 만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면 실망을 안 한 정도에서 그쳤을 텐데 그 이상이었으니 스스로 만족 할 만 한 무빙이었던 것 같다. 무빙 동안 선생님들 정말 수고 하였고 우리 빠빠바라바빠반 모두 정말 수고했다. 이상 오승택 제주도 무빙 보고서를 마친다.

타대안 학교

김승훈

1일차

4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도착하니 경재가 기다리고 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제네 집까지 갔다. 도착해서 밥을 먹고 피곤해서 쉬고있었는데 경제네 아저씨가 산책을 가자고 해서 산책을 갔다왔다. 걱정이 된다. 앞으로 잘 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경제네 집에서 사는게 왠지 눈치 보인다. 뭔가 해야될 것만 같은 기분이다. 진짜 피곤하다

2일차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왔는데 류소정이 경제네 집까지 오는 길을 모르겠다고 해서 류소정을 찾으러 간후에 버스를 탔다. 버스타고 지하철을 타는데 중간에 헛갈려서 지하철에서 잘못 내렸다가 다시 탔다. 어떻게 잘 도착해서 꽃피는 학교를 찾았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다. 무서워서 앞에서 쫓겨려 앉아 있다가 들어갔다. 들어가서 선생님을 찾고 무슨 무슨 수업을 들을건지 정리 한뒤에 아침열기를 하려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막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손을 잡고 노래하고 노래를 엄청하고 알림을 했다. 학생이 적어서 한명이 노래하면 다같이 노래를 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것 같았다. 그다음 시간이 공성활이라는 우리학교의 가족회의 같은걸 했는데 악기를 어디서 사용하나로 회의를 했다. 여기도 고학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우리랑 똑같은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멘토도 정해줬는데 김태호란 형이었다. 정해진 뒤에 한숨을 쉬는 걸 보니 귀찮았나 보다. 공성활이 끝난후 멘토를 따라 부서활동이란걸 하러갔는데 여기는 학생모두 부서활동을 했다. 근데 멘토가 속한 부서에서 하는게 없어서 빨리 끝내고 멘토랑 얘기를 했다. 그다음엔 전교생이 모두 합창수업을 했다. 합창 수업은 강사 선생님이 와서 했는데 이학교는 대부분 강사선생님이 오는것 같았다. 노래는 sing,sing,sing,이란 노래를 했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부르는 건지 몰라서 정말 작게 불렀다. 은근 부르기 힘들었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다. 밥맛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다. 여긴 개수대가 2개밖에 없어서 설거지 당번2명이 설거지를 다했다. 그게 진짜 편했다. 밥 다먹고 있을데가 없어서 뽀뽀하게 있다가 멘토따라 반별활동을 하러갔다. 반별활동으로 전세계의 음식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던데 오늘은 북한 음식으로 옥수수죽을 만든다고 했다. 옥수수를 뜯고 쌀을 갈고 우유를 넣고 끓였는데 맛이 참;; 맛없는건 아니었는데 계속먹으면 토할것같은맛이었다. 반별활동 이후에는 학급활동이 있었는데 2학년들은 여행준비 3학년들은 인턴쉽준비 였던가 어쨌든 우리는 그시간에 참관일지를 썼는데 사실 느낌 생각을 나눠서 쓰라고해서 짜증났다. 참관 일지 쓰면서 놀다가 시간 다되서 평화놀이를 하러갔다. 여기서는 청소를 평화놀이라고 부른다. 청소를 다하고 나기를 했는데 끝내는 걸 나기하고 한다. 종례? 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그런뒤에 저녁을 먹고 다시 집에 왔다. 오늘 하루는 뽀뽀하게 있었던 것 같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가 작아서 설곳이 없었다. 그것때문에 뽀뽀하게 앉아있던가 돌아다녔는데 많이 불편했다. 고등의 벽을 느꼈다.

3일차

오늘도 그렇게 1시간반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갔다. 아침열기를 밖에서 했는데 또

노래를 부르고 다시 들어왔다. 첫시간은 슬로리딩 그루 였다. 그루는 학생들이 만드는 수업인데 우리학교의 개표 같은거. 슬로리딩 그루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나 문장에 대한 생각, 단어 선택이나 이야기 흐름에 대한 것 까지 다 적으면서 천천히 책을 읽는 그루 였다. 로테와 루이제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한거 나누기를 해서 다른사람들이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적어놓은 것들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다. 나는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인데 다같이 이렇게 책을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사람이 쓴 책전의 내용이나 그후의 내용을 봤는데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재미있었다. 이 수업을 경재랑 같이 들었는데 경재는 재미없어 보였다. 이 수업이 끝나고 고1들이랑 통전 집중을 들었다. 오늘은 가족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철학자들의 가족과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배웠는데 한 철학자는 아이들이 두사람이 사랑의 결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이들은 사랑의 한 거점이라고 했다. 사랑에 대해서 한 철학자는 부족한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것 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온전한 둘이 둘만의 무대에서 사랑을 하는게 진정한 사랑이고 부족한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건 자기중심적이라고 했다. 왜 자기 중심적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건 불가능한데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건 자기만의 착각일수도 있으니깐 아니라고 배웠다. 그런데 수업중에 경재는 잤다.

이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고 평화놀이를 하고 나기를 했다. 그다음 수업은 인문학 이었다. 우리학교는 인문학을 6학년때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강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총,균,쇠라는 책을 보면서 이야기했다. 인문학이 끝나고 류소정이 말하기듣기 그루를 해야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밥을 먹고 집에 왔다. 피곤하다.

4일차

오늘도 여김없이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버스타고 학교에 갔다. 아침에 노래 부르는데 가사도 모르고 대충 조용히 따라부르고 들어와서 코스모스 그루에 경재랑 들어갔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요약도 하고 서로 얘기도하고 묻고 알려주는 그루였는데 재밌었다. 계속 이 그루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1교시가 끝나고 원래는 영화같은 수학을 꿈꾸며 라는 수업을 듣는건데 안한다고 해서 쉬다가 문학같은 수학을 꿈꾸며라는 수업을 혼자 들으려갔다. 돈키호테는 수학때문에 미쳤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강사 선생님이 내용을 알려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안되는걸 알려줬는데 그냥 재미있었다. 책도 완전히 수학 책이 아니라 수학 철학자 얘기같은 걸 해서 더 편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다. 그다음 수업은 통전확산이었는데 통전확산은 그룹별로 나눠져서 뭘 하는 수업이었다. 우리는 내민손이라는 프로젝트 및 봉사를 하는 곳에 들어갔다. 작년엔 커피쿠폰모아서 홈리스분들께 드리고 이번엔 교통카드 받아서 보증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후원해 드리는 걸 하는 데 이번시간에는 위안부 다큐보기를 해서 같이 봤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엔 뉴스같은걸 보고 나뉘는데 기억이 안난다. 우리도 하기로했는데 안하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남은 일정은 청성톡 동아리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 과학 보따리단이란 수업을 야외에서 해서 많이들 빠졌다. 그래서 청성톡을 안하고 저녁먹고 집에 왔다. 오늘 수업은 대체로 재미있었다.

5일차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서 아침열기하고 수업을 들으러 갔다. 1교시는 쉬고 2교

시에 영어 수업을 듣고 원래는 리코더 연습시간인데 리코더가 없어서 셋이서 루미큐브를 하고 밥을 먹고 청소하고 참관일지쓰고 철학없는 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알고있는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걸 배워서 좋았다.그리고 저녁먹고 집에옴 도중에 류소정이 쇼핑하러감

마지막날

가서 경전 국선도 리코더를 했는데 경전에선 논어를 한자로 공부했는데 재미없었고 국선도는 몸을 풀고 잤는데 몸푸는 데 내몸이 너무 뻣뻣하다는 걸 느꼈다. 리코더는 그냥 앉아있었는데 진짜 별로였다. 점심먹고 체육이 있었는데 하기싫어서 빨리 가야된다고하고 그냥 산어린으로 바로 출발함

류소정

06.13.월

타대안 탐방을 하는 동안 최문형네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꽃피는 학교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려 등교시간인 9시까지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6시 50분에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오늘은 등교 첫 날이었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반겨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안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 우리학교의 아침열기 같은 느낌의 새주열기를 했는데 여기서 열기, 수업 시작과 끝,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기를 할 때 항상 지정된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읽었다. 당연히 알지못하고 외우지도 못했던 우리는 뽀뽀하게 가만히 보고 있었긴 하지만. 월요일은 선택수업이 없이 전체일정이 필수로 차 있는데, 열기를 하고 난 후 공성활이라는 학생들끼리 하는 회의로 하루가 시작된다. 선생님들은 참여를 하지 않지만, 가족회의와 비슷하게 안건, 건의, 알림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번에 나온 안건은, 교내에서 악기 사용 시 생기는 소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였는데. 학생들만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반에서 하는 학급회의 같았다. 집행부같은 어떤 기구를 한 번 거치고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소음 얘기를 하는데 결론도 나지 않고, 30분 넘게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겨우 결정이 났다. 흐름은 비슷해서 그런지 엄청 집중을 하면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계속 말하던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이런 점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중간에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워낙 낮을 가려서 어색하기도 하고 눈지도 보여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생각 덕분에 얼른 사람들과 친해져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 교시는 다 같이 하는 합창이었다. 'sing sing sing'이라는 전에 김연아가 찍었던 에어컨 광고에 나오는 노래를 조를 나눠 배웠고, 나는 아침에 알려준 12학년 정서현이라는 언니가 멘토였기에 같은 조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조별로 연습을 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막 이런 걸 정하는데 무슨 소린인지 모르겠고, 다 음이 안 올라가고 화음도 안 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뭐하고 싶냐고 묻길래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장 멜로디와 비슷한 소프라노는 어떻냐길래 소프라노가 되었다. 반 정도 배우고, 연습하고, 조별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합창을 배워보는 건 처음이어서 소심하게 부르다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그냥 입모양으로 했다. 후에는 못 해도 그냥 열심히 할 걸 하고 후회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짹 짹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웬지 우리반끼리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오전 수업을 마치고 비빔밥 비슷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거기서는 당연히 말을 안했지만, 우리 학교 밥이 진짜 제일 맛있는 듯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 했는데 여기서 설거지 당번이 따로 있고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방식이었

다. 인원이 적어서 가능하겠지만 왜 인지 식판 갈라가 생각났다. 오후 수업은 반별활동이었는데, 앞에서처럼 멘토언니의 반에 들어갔다. 학급활동 같은 느낌이었는데 내가 참관했던 빠라 반은 이번학기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주제였고, 옥수수 와 쌀 그리고 우유를 넣어 옥수수 죽을 만들어 먹었다. 되게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마지막 시간은 평화 놀이와 전체나기였는데. 여기서는 청소를 평화놀이라고 한다.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않아서 눈치로 알아차렸는데, 웬지 이름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게 청소를 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체나기는 그냥 집에 가기 전 하루를 마무리 하는 걸 말하는데 새주 열기처럼 월요일에만 하는 일정이다.

하루를 보낸 소감은, 고등만 있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지 잘 다가가지 못하고, 말도 많이 못 걸고 정말 가만히 있기만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인사도 몇 명만 하고 잘 챙겨주지 않아서 조금 서운하긴 했다. 게다가 너무 어색한데 학교가 좁아서 도서관도 설 공간도 없어 계속 우리끼리 어색하게 헤매면서 다녔다. 제주도가 너무 그림고,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내일도 와야 한다는 게 조금 기 빠리고, 내일은 친해져있기를 기대해본다.

06.14.화

어제 하루 종일 어색하게 방황만 해서 그런지, 오늘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남은 시간에도 어제처럼 지낸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

오늘도 작은 마당에 나가서 열기로 노래를 부르고 하루를 시작했고. 첫 교시는 각자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 다른 수업에 들어갔다. 나는 인디자인 그루에 참관을 갔는데, 그루는 학생들끼리 만들고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사실 듣고 싶은 수업이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겠다고 해서 오게 된 거라 그루라는 형태에 관심이 갔던 거지 수업내용이 기대 되지는 않았고, 처음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어서 긴장만 됐는데. 조금 일찍 들어갔더니 역시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다들 자기 할 일만 하길래 옆에 서서 교무실에서 가져온 책을 읽었다. 그러다가 어제 반별활동을 할 때 말을 조금 했었던 언니가 들어오고 그제야 수업 설명을 들었다. 여기는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계절학기로 나뉘고 봄부터 가을 까지 계속 수업을 듣고, 겨울학기에 마무리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한 수업을 1년동안 듣게 된다. 그래서 인디자인 그루는 봄학기 동안 편집프로그램인 인디자인 활용 기술을 자기들끼리 배우고, 남은 학기 동안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책 내용을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 상황 공유만 하고 그냥 다 같이 영화를 봤다.

학교에 있으면서 서예 같은 수업은 한 학기로 듣기엔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여기처럼 1년 내내 듣는 수업이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교시는 학년 별 통전집중이었는데, 매주 주제를 두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수업이었다. 이번엔 '가족'이라는 주제였는데 티는 안냈지만 되게 재미없었다. 처음 설명만 듣고는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 선생님 혼자 말씀하시다 중간에 질문하시고 학생들은 대답하고. 강의 듣는 느낌이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아서였겠지만, 장경재는 옆에서 자고, 의자도 불편한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불편했다.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도 워낙 좁아서 따로 밥 먹는 곳이 없고 정말 아무데서나 먹어야 해서 한참 방황을 하다가 먹었는데. 그래도 인원수가 적어서 식사당번 2명이 전교생 설거지를 다 하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엄청 편했다.

오후에는 강사선생님이 오시는 인문학 수업을 다 같이 들었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흘러들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재미있었다. 일단 전에 들었던 수업들과 다르게 돌아가면서 글을 읽을 때 우리도 같이 읽었고, 질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한테도 하시고. 정말 보기만 했던 전과는 다르게 같이 수업을 듣는 느낌이어서 좋았다. 수업시간이 길어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역사를 할 때는 설명도 쉽게 해주시고 와아아아아아 강사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이틀째이지만 어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잘 심심해하지 않는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있을 공간조차 없어서 더 방향하게 되고 수업시간에도 말 없이 있고 쉬는 시간에도 친해진 사람이 없어서 김승훈, 장경재 옆에 꼭 붙어있게 되고. 여자랑 같이 가게 되면, 계속 그 친구랑 있을까봐 일부러 혼자 남자애들이랑만 왔는데. 그 남자애들 옆에 꼭 붙어있으니까. 내일은 진짜로 엄청 수다를 떨어보고 싶다.

06.15.수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시작부터 앞머리를 까야했다. 3일차에 접어드니 이제는 가는 길도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까지도 나름 편찮아졌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는 게 쉬워졌다는 말이다. 여전히 어색하긴 하지만, 흠어져서 혼자 수업을 듣는 것도 나아졌다. 어제 자기 전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장난을 쳐도 내가 받아치는 게 안 되니까 대화도 연결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첫 시간에는 혼자 수공예 동아리에 들어갔다. 다음 주에 있을 프리마켓에서 팔 드림캐처를 만들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는 걸 좋아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동아리이기도 했고. 그만큼 재미있었다. 외부활동을 나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인원이 매우 적어서 나랑 언니 한명이 같이 앉게 되었다. 덕분에 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 주었다. 하는 내내 재미있어서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도 이런 동아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는데. 여기는 동아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즐기는? 그런 가벼운 분위기여서 진짜로 놀면서 쉬는 기분이었고. 그런 기분이 좋았다.

이 후에는 다들 신청한 수업이 없어서 공부방으로 가 참관일지를 쓰고, 지하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교류를 와서 우리끼리 놀게 될 줄이야. 그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봉사하는 곳에 들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을 보았다. 외부활동을 나간 수업 때문에 우리를 제외하고 3명밖에 없었는데 안규대라는 고3 남자분이 진짜 잘 챙겨줬다. 설명도 해주고, 심심해보이면 와서 말 걸어주고, 초콜릿도 줬다. 고3들은 대체로 다 잘해준다.

오늘은 신청한 수업이 다 취소되어서 프로젝트 수업이 끝나고도 우리 셋은 할 게 없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질문은 짚었지만, 다듬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겨우 교사 대표님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다가 은지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신다는 걸 미리 알게 되어서, 극적인 갑작스러운 재회가 아니어서, 덜 감동적이고 반가운 지수가 조금 낮아졌다. 저녁은 선생님이랑 신촌에서 먹었다. 부산처럼 얼굴만 보고 가신게 아니어서 좋았지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더 커져버렸다.

오후에 취소된 수업이 많은 만큼 5시에 다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사실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수업을 듣지 못해서 아쉬움이 생겼다. 마지막 교시에는 ‘청성톡’이라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청소년의 성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동아리이다. 오기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생 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업도 우리 학교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과목이 다양하지 않았다.

06.16.목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영어수업 한 교시 밖에 듣지 않았다. 판소리는 궁금했지만 직접 해보는 건 싫었고, 기타는 칠 줄을 모르니 영어만 남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정말 별 생각 없이 들어갔었고,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 수업에서는 강사선생님이 프린트 자료도 주시고 발표도 하게 해주셔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기초반이라 그런지 꽤 쉬웠고, 문제를 풀 때 제일 집중이 되었다.

원래 이번 일주일 중에 가장 수업이 없는 날이라 오후에도 어제처럼 하나만 들었다. 혼자서 캘리그래피를 하는 '가까날'그룹에 들어갔는데. 제일 최악이었다. 선생님이 졸업생인 것 같았다. 여튼 처음 15분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옆에 있던 고3 오빠가 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니까, 그제야 개인 물품들이라 남는 붓이 없어서 그냥 보기만 하라고 하셨다. 그럴 것 같아서 연필로라도 해보려고 다 가져왔었는데, 먼저 말하기도 뭐하고 학생들 봐주느라 바쁘실 것 같기도 해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옆에 있던 오빠가 보다 못해 해보라고 해서 그 분 걸로 5분정도 해보고, 나머지 70분을 정말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보고 있기만 했다. 진짜 심심했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기대했던 수업이었는데. 제일 답답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 더불어서 우리학교에 교류가 온다면 진짜 질릴 때까지 붙어 다니면서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여기 와서 내가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06.17.금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마지막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이번 탐방이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지는 않다. 저녁마다 최문형이랑 연락하면서 그 자랑을 들을 때마다 완전 속상하기도 하고, 왠지 미웠다.

금요일은 주말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필수 수업인 리코더, 경전, 국선도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기를 하고 마친다. 우리는 고1수업에 따라 들어갔는데. 한자를 모르니 경전을 하는 동안 알아들었던 게 하나도 없다. 물론 70분동안 앉아만 있어서 대답할 일이 없었지만. 국선도는 경당처럼 무예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차분한 체조 같았다. 그래도 남은 40분은 취침이어서 12시에 자고 5시반에 일어나며 생긴 피로들을 풀 수 있었다. 공간이 좁아서 한 번도 편하게 눕거나 앉아본 적이 없어서.

리코더는 들으면서 진짜 울 뻔했다. 여기는 내내 리코더가 필수이다. 강사선생님이 오시는데 엄청 무서운 분이셨다. 엄청 화내시고. 그래서 여차피 리코더도 없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있기만 하는 거라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김승훈이랑, 장경재가 자꾸 고무줄로 때렸는데, 그 아픈 걸 소리 내지 못하고 잠깐 몸을 움직였는데. 선생님이 엄청 정색하시면서, 너네 참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떠들어도 되냐, 그게 예의냐. 하시면서 혼났다. 우리대로 정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우리끼리 뭔가 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었던 거기도 하다. 집중을 하지 않은 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왠지 억울했다.

점심을 먹고 평화놀이를 하고 다 같이 나기를 했다. 우다다처럼 환영식이 아니라 그냥 소감 한마디씩 말하고 다들 집으로 갔다. 우리는 남아서 참관일지를 썼는데, 그때 고2언니랑 친해졌다. 여기서도 논문을 쓰는데 그 언니랑 내 주제랑 비슷하기도 하고, 마지막이라고 언니가 엄청 말 걸어주셔서 후에 연락도 하기로 했다. 마지막 날인데. 진작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화력이 부족해서였던 걸까. 친해지지 못해서, 적응도 잘 못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없기에 아쉬운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생기지 않는다.

장경재

전체 적으로 평가 하자면 꽃피는 학교 형누나 들이 정말 말도 잘걸어 주고 모르는 것도 잘알려주고 굉장히 좋았다. 수업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게 없어서 가끔 깜박 졸기도 했지만 그나마 제일 인상깊었던 수업이 국선도 였다. 수업이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기대가 됐고 게다가 사람이 도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봤는데 도복이 굉장히 예뻐다. 국선도 시간에는 뭔가 무술 같은걸 할줄알고 기대를 했는데 다같이 모여서 체조를 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체조를 해보았고 그리고 몸을 잘풀어 된다며 30분 동안 낮잠을 잤다. 정말 내취향이 였다. 꽃피는 학교에서 내가 너무 낮을 가려서 인지 많은 추억을 쌓지는 못한 것 같다.

김예현

2016년 6월 12일 일요일 날씨:흐림

오늘 나와 이재형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만나 차를 타고 지리산 함양 방면으로 갔다.함양버스터미널에서내려 실상사 작은 학교 학생을 만나 같이 왔다.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다.김태훈 선생님을 봤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셔서 놀랐다.(총각으로 추측했는데..)처음 본 실상사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어 좋았다.아직 얼떨떨하다.나는 순아네 라는 집에서 자고 이재형은 별장이라는 남자기숙사에서 머무른다.아침 여긴 여자기숙사 달장.남자기숙사 별장.순아네/작은가정 이렇게 부르고 남자체,여자체라고 부른다.기숙사 학교이긴 한데 우리학교의 홈스테아와 비슷한거 같다.밥을 가정끼리 식사당번을 정해서 먹는다.오늘은 한달의 시작이여서 다같이 학교에서 먹는 다고 했다.우리는 저녁을 공양간이라 불리는 학교 식당에서 먹었다.김밥이 나왔는데 고기가 안들어가서 놀랐고 좋기도 했다.강당에 모여 우리를 소개했다.5일 동안 잘지내 보자 말했다.여기는 한달마다 주제가 있는데 그주제로 수요일 1.2교시에 주제공부를 한다고 했다.저번 5월의 주제를 5·18과 역사라 했고 이번 6월의 주제는 농사라고 했다.농번기여서 농사로 주제를 잡게 되었다고 했다.농사 일정을 보니 우리가 있을때도 농사를 한번 하는 기간이 있었다.갑자기 생각 났는데 우리반 받은 잘자라고 있겠지..학교늘 좀더 둘러보았는데 예전에 잠깐 왔었던거 같다. 갑자기 춤동아리인 추리닝에서 날 부르더니 춤을 보여달라 그래서 너무 당황 했다.계속 주춤하다가 춤을 쳤다.속스럽지 않게 해주어 고마웠고 나 1학년때 교류 왔던 한결언니를 다시 봐서 좋았다.이번 실상사가 약간 바뀌면서 1학년도 안받고 자기들 안에서 탄탄해지게 있다고 했다.국영수도 필수였다가 없어지고. 내일은 실상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겠지.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날씨:햇빛 약간 덥다.

오늘 순아네서 깨서 아침을 먹으러 학교에 올라갔다.와 올라오는데 숨이 찼다.보통 우리학교

는20분 정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빨리 올라 왔는데 40분... 숨이 차고 땀이 났다.밥을 먹고 아침모임을 하였다.전교생이 다같이 아침모임을 하는데 이것도 좋은 거 같다.내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난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다.새로운 곳에 와서 낯설지만 손님으로 있을때 의 입장도 색다르게 느껴져서 흥미있는거 같다.애들,언니들과 얘기 나누는거 자체가 인터뷰 내용이 된다.아침모임이 끝난후 앞으로 들을 과목들을 선택하며 김태훈선생님과 잠깐 얘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똥푸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난 똥푸기를 걸렸네라는 마음으로 하는거 같다.2학기 똥푸기 차례가 오면 내가 자진해서 먼저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서 김태훈 선생님에게 감사하다.여긴 선후배 관계도 좋은거 같다.소규모라 그런지 돈독하고 위계도 별로 없고 결정적인건 선배도 후배도 본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 학교 자체가 음식을 남기지않는 문화가 잡혀있어 보기 좋고 좋은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거 같다.내가 오늘 오전에 들은 수업은 고전읽기:춘향전과 오후에는 학교를 둘러 보다가 놀이의 발견이라는 전통놀이 수업을 들었다. 비석치기를 했다.이재형이 사는 별장의 여자버전인 달장을 가봤는데 정말 좋았다.와..좋았다.촬영장 같았다.이 학교는 담임이 없고 멘토반 비슷한건데 한 선생님당 3명의 학생을 맡아 길잡이제로 가나고 했다.작년까지 학년제 였다가 친해지라고 길잡이제도로 바꿨다고 했는데 학년끼리 같은 반을 안쓰니까 서운 하다고 했다.저녁도 배정 된 집에서 먹는다.가정집 같고 스스로 해먹는다.여기는 일반식품을 매점안에서만 먹어야 한다.학교 자체가 조용히 흘러간다.좋은거 같다.자야지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날씨:맑음

오늘6시에 일어났는데 잠깐 눈감은 사이에 1시간이 지나 있어서 당황했다.날씨가 좋다☀
오늘은 올라오는게 수월했다.한 20분 걸렸나 어제 40분은 내가 그렇게 느낀거 같고 한2~30분 걸리는거 같다.아침을 먹고 아침모임을 했다.여기는 아침모임으로 아침활동때 모한느지 전달 받는 형식이여서 중등은 아침활동으로 농사를 했다.밭이 굉장히 귀엽다.심어놓은 종류가 많았다.당근도 뽑자마자 먹어 보았다. 달고 맛있었다.잡초를 뽑고 오늘은 하루종일 작업장을 하는 날이여서 나는 비누작업장에 갔다.오전에는 수다만 떠서 같다.오후에는 향수와 비누를 만들었다.아 비누작업장을하고 있었는데 짱뽕을 만났다.실상사작은학교에 놀러오신거라고 하셨다.짱뽕이 가시고 은지.선호.동석 선생님들이 오셨다.세분다 무빙때와는 다른 표정이였다.짐을 덜은 표정. 학교를 구경시켜드리고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시고 가셨다.내일은 농사를 한다.열심히 하고 싶고 피부타기 싫다..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날씨:약간 흐리고 조금 습함. 조금의 비

오늘은 농사만 했다.마늘,양파를 뽑고 잡초를 깎 때 몇몇은 고구마를 심으러 갔다.날씨가 덥지 않아서 완전 다행이였다.해가 안떠서 다행이였다.점점 손과 팔이 타는 느낌이 나고 있다.내리 모레면 간다는게 어색하다.내일은 대표 선생님을 인터뷰 한다.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날씨:비.흐림

와..내일이면 간다.다들 아쉬워 하고 있다.나랑 이재형이 너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동기 같다고 3학년 애들이 그랬다.아진짜 갈 시간이 다가온다.실상사 작은 학교에 오기 잘한거 같다.실상사 작은 학교를 알게 되어 기쁘다.처음엔 기대도 안했는데 사람들이 잘 보살펴준게 기억으로 남을거 같다.오늘 인터뷰를 많이 해서 좋았다.미술수업도 들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미 있었다.태진쌤 생각도 나고 드로잉생각도 나고. 처음엔 한명씩 돌아가면서 크로티모델도

하고 색종이 오리고 붙여 물감으로 배경 칠하기도 하고. 순아네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저녁먹고 가족회의를 하는데 내가 칭찬합시다를 개설해주었다.뿌듯했고 다들 이용해서 보기 좋았다. =여기서 소현이랑 자현언니를 아는 민철이도 만나고 가원언니,령경이를 아는 선용오빠.가운오빠도 만나서 너무 신기했고 제주도 공항에서 만난 아주머니아들,딸인 호영이와 주아언니도 만나서 너무 신기했다.인연인가보다.참좋다...라고 선용오빠가 말했다.한결언니도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았다.다르 너무 반가웠고 넘 착하다 잊지 않을게 고마워~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날씨:해. 좋다~.

오늘 드디어?결국ㅠㅠ 마지막이다.아침에 가위바위보에 이겨 순아네 식구들 다같이 차를 태워 주셨다.아침을 먹고 청소를하고 학생총회를 했다.중등끼리 회의를 했는데 인원수가 적다보니 우리반 학급회의를 보는 느낌..일찍 끝나서 게임을 하고 2교시엔 야단법석이라는 전체 회의를 했다.학생회장이 진행을 안하고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다.육에 대한 토론을 했다.토론이 끝나고 선물을 드렸다.우리도 양파를 선물로 받았다.감사했다. 받은 것들이 더 많아서 고맙고 미안했다.점심으로 발우공양을 하고 차를 타고 터미널로 갔다.많은 이들의 배웅속에서. 처음온날이 기억난다.처음부터 기대를 안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또 오고싶다.다시오면 반겨 준다고 했으니까.조만간 실상사 학교 사람들과 실상사학교 밥이 그리울거다.아니 지금도 생각한다.실상사 학교에서 정말 깨다름을 나무처럼 자라게 해주어 고마울뿐이다. 안녕~

이재형

가기 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실상사 작은 학교의 교사, 학생 분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됐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 그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기 보단 그 학교 사람들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재밌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처음은 역시 어려웠다. 첨부터 편하게 지내는 것이 누구나 어렵지만 처음 가는 곳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았다. 실상사 작은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오고 학교에 오는 날 다같이 모여서 한 달 생활을 여는 시간을 가진다. 일정과 자신의 가정학습 생활에 대해 서로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이었다. 그 때 처음 전교생을 다 봤는데 25명 정도가 있었다.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서로서로 다 가까워 보였고 선생님들과 학생의 사이도 가까워보였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것 같았다. 실상사 작은 학교는 다같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닌 3개 정도의 '작은 가정'에 나누어져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조금 걸으면 나오는 '별장'에서 7명의 남학생들과 지냈다. 2학년년부터 5학년 까지 끌고루 있었다. 학교 수업이 4시에 끝나면 저녁은 각 작은 가정에서 해먹는다. 그것이 맘에 들었다. 적은 사람들이 같이 밥을 해먹는 게 정말 가족 같고 좋았다. 이곳은 학교와 작은 가정에서 일반식품을 모두 금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규칙이 더 있었는데 제천간디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이 적어 그만큼 생활규칙이나 규제 같은 것이 많이 없었다. 작은 가정에서도 취침과 기상을 강요하지 않았고 샤워, 빨래 등의 생활 속에서의 에티켓 정도만 정해서 살고 있다. 아침에 기상송은 울리지 않았고 자는 사람을 억지로 깨우지도 않았다. 한 주 살면서 아침을 한 번도 안먹었다. 8시까지 무조건 나가야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만큼 새로운 사람을 반긴다고 했다. 실상사 학생과 선생님들은 잘 다가와주었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고 있었다.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착한 모습을 보여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좋았다. 자연스럽게 편해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맷다. 하루 일과도 뽀뽀하지 않았다. 물론 공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업 분위기가 모두 편했고 4시면 모든 수업이 끝났다. 동아리가 여러 개 있지만 대부분의 동아리가 축제 즈음에만 열심히 활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수업 외에는 회의에 끼들어서 살 일이 없었고 쉼의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4시부터는 쭉 자유시간이었다. 주변에 있는 매점은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데 값이 좀 비싸지만 라면이 맛있었다. 밤에는 가까운 학교에 놀러가기도 했는데 아무도 없었기에 별장 사람들과 노래도 부르고 공놀이도 했다. 정말 여유로운 생활이었다. 이거하다 또 이거하고 끝나면 이거하니까 하루가 끝나는 제천간디학교의 하루와는 달라서 좋았다. 이곳의 작업장은 전학년이 참여했다. 농사, 음식, 비누, 카페, 자전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를 고치는 자전거 작업장을 함께 했다. 딱 두명의 학생이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막 열심히 고치는데 신기했다. 작업장을 하면 무언가에 대해 되게 잘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작업장은 그날의 수업 시간을 통째로 쓴다.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는 모두가 한 달마다 주제를 정해 같이 배우고 활동하는데 이번 6월은 농활기인 만큼 농사가 주제였다. 좋았다. 수요일 하루 종일 농사를 했는데 밭이 정말 많았고 키우는 것도 많았다. 마늘을 캐고 양파를 캐고 밭을 매다.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농사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한 주에 한번 씩 학생총회를 한다. 학생총회는 고등과 중등 나누어서 하는데 중등 학생총회는 회장이 진행을 해서 진행된다. 중등이 13명 뿐이라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단 자치적인 일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하는 자리인 듯 했다. 산만한 학생총회였다. 마치 학급회의 같았다. 제천간디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다. 그럼 규칙들은 어디서 논의를 할까? 했는데 그 자리가 학생총회 다음 시간에 있었다. “야단법석”이라고 했고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했다. 전체 진행을 5학년 학생이 하였고 한 선생님이 맡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야단법석”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하지 말자”라고 정했던 일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논의와 진행 상황, 혹은 당사자의 입장과 사과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 토의를 했다. 이날은 “언어폭력, 욕”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회의를 하면서도 제천간디학교의 가족회의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는 게 느껴졌다. 사람이 적으니 그만큼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 같았다.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의 감정을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해 많이 꺼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보였다. 사람이 적으면 빠른 시간 안에 타협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점심에는 ‘발우공양’을 한다. 실상사 작은 학교, 이름만 들었을 때 학교에서 불교의 냄새가 많이 묻어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한 주를 생활하면서 “이래서 실상사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은 거의 없었다. ‘발우공양’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느껴졌던 것 같다. 발우공양은 좋은 시간이었다.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먹다보면 나도 모르게 급하게 먹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실상사는 고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밥이 정말 맛있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음식을 남기지 않았다. 자기가 먹고싶은 만큼 퍼서 다 먹었다. 고춧가루 하나까지 놀랍다고 생각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항상 잔반이 많다. 하는데 이곳은 많이 다르구나 생각했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 한 주를 생활하면서 많이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이곳 사람들이 다 편했고 이곳 사람들도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좋았다. 사람이 적어서 좋았다. 사람이 많아서 어딜 가든 사람이 있고 시끌시끌한 제천간디학교와 달라서 좋았다.

보고서를 쓰다보니 다시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 다시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영경

6월 13일 월요일

- 대중문화, 학년회의

오전에는 길 학교 학생들이 타대안에 갔다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나랑 유경이는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가기로 했다. 처음만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엄청 떨리고 무서웠는데 유경이가 늦게 오는 바람에 혼자 있어서 더 무서웠다. 혼자 먼저 와서 반에 모여 있는 같은 나이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토하는 줄 알았다. 그 이후 소개 시켜주기로 했던 남자애 두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코로 먹는 느낌이었다. 중간에 혀를 씹어서 엄~청 아팠지만 무서워서 계속 씹는 척도 했다. 업은 우리학교처럼 선택수업, 필수수업으로 나뉘져 있다. 나랑 유경이가 오후에 들은 수업은 대중문화 수업이었다. 어뷰징(?)기사에 대해 배웠는데 밥을 먹은 다음이라 그런지 잠이 왔다. 학년회의는 진짜 시끄러웠다. 우리 반은 따로따로 작게 많이 떠들어서 시끄럽다면 여기는 진짜 대놓고 크게 말했다. 아까 유경이는 인사를 못해서 이 수업 때 다시 인사를 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질문해줘서 좋았고 다들 선후배가 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6월 14일 화요일

-부서활동, 한국문학, 에코라이프, 전체회의

부서활동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길학교는 전교생이 필수로 부서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규모가 작으니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싶었다. 수업은 재미있는 게 많아보였다. 에코라이프는 중3과정인 큰나무의 필수 수업인데 환영에 대한 ucc동영상을 만든다. 이 수업을 하면서 옆자리 여자애랑 나름 말을 많이 했다. 전날보다는 편해졌다. 전체회의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집행부같은 기관이 없어서 안건은 회장(여기서는 학생대표라고 부른다.)의 재량으로 바로바로 올렸다. 조금 학급회의 같았지만 그래도 학교가 잘 굴러가는 것이 좋게 보였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나가서도 인사를 했다. 진짜 힘들었다.

6월 15일 수요일

-자유와 권리, 만화야 놀자, 바느질 작업장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또 등교시간이 출근시간에 겹쳐서 지하철에 사람이 붐벼 힘들다. 그래서 늦잠을 부리다 3,4분 지각을 했다.

오전 수업 두 개 중 자유와 권리는 문화철학이랑 비슷한 수업인데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동성애와 저작권(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알아온걸로 얘기를 했다.

그 다음 만화야 놀자 수업은 만화가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지도해주시는 수업인데 다들 이마 만화를 그리고 있어서 우리 둘은 별로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A4용지에 14학년 애들 몇몇과 은지선생님을 그렸는데 유경이가 완전 좋아했고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다. 솔직히 밥은 우리학교가 조금 더 맛있다. 반찬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하다. 오후에 한 작업장 수업은 전학년이 들었다. 여러 작업장이 있었는데 나는 바느질 작업장을 들었다. 다른 작업장은 잘 모르겠지만 바느질 작업장은 바느질을 해서 팔지 않고 전시만 한다. 작업장수업은 내가 바느질을 좋아해서 그런지 정말 재미있었다. 열정적으로 했다. 나는 핀쿠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지마평에 있는 오리와 닭이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6일 목요일

-페이퍼, 소박한 밥상, 생활체육(배드민턴)

출근시간대의 지하철은 너무 너무하다. 진짜 끔찍하다.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 버스를 한 정류장 지나쳐버려서 또 늦었다.

길 학교에도 논문 같은 과정이 있다. 그게 페이퍼인데, 우리학교와 다르게 공식성, 공공성을 따지지 않는다. 큰나무 필수수업이라서 같이 듣기는 했지만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아직 주제 선정 중인 것 같다. 다음 수업인 소박한 밥상은 한 반이 둘로 나뉘어 한쪽은 밥을 만들고 한쪽은 텃밭을 관리한다. 나랑 유경이는 밥을 만드는 팀이었다. 메뉴는 생선까스였다. 만들 때, 사람도 꽤 있었는데도 바빠서 확실히 전교생의 밥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칼질을 잘한다는 것도 알았다. 점심에 은지선생님이 잠깐 오셨는데, 제주도 보고서를 안낸 게 생각나서 숨어있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선생님을 봐서 반가웠다. 오후에는 부서 중 하나인 생활체육부가 하는 생활체육수업을 들었다. 수업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나랑 유경이는 배드민턴을 했다. 와 진짜 남학생들이 너무 잘했다. 다들 잘하는데 우리 둘만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전 학년이 운동 할 수 있는건 좋다고 생각한다. 배드민턴을 나가서 쳤기 때문에 일찍 집에 올 수 있어서 좋았다. 후후 길 학교는 전체적으로 수업이 중등, 고등 나뉘져 있지 않아서 다들 친하고 화목한 분위기다.

6월 17일 금요일

-페이퍼, 동아시아사, 고전읽기

마지막 날인데 이 때 가서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 졌다.

유경이가 또 늦어서 혼자 전체아침열기에 나가서 인사했다. 긴장을 해서 손톱만 보면서 말했다. 아 망할 최유경 이번 페이퍼시간에도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낙서를 했다.그 다음에 들은 수업인 동아시아사는 여러 나라의 역사를 조금씩 한꺼번에 배웠다. 재미있었지만 졸았다.. 점심을 먹고 길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수업인 고전읽기는 진짜 좋았다. 길 학교에서 배운 수업 중 가장 좋았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다. 책을 읽는다고보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다. 타대안의 전체적인 감상은 길학교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해줘서 고맙고 나도 교류생오면 짱 잘해줘야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교생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다. 사실 좀 시끄럽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야 말을 좀 터서 아쉽고 길 학교에 가서 재미있었다.

최유경

타대안 탐방으로 길을 선택한 이유라면 일단은, 도시형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라는 자체가 나에게서 색달랐다. 초등 때부터 내가 접했던 대안학교는 삼간디밖에 없었고, 모두 아주 시골이니 당연히 기숙사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나에게 대안교육, 대안학교라는 이미지는 시골에 있는 기숙사형 학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2학년 때 우연히 기회가 있어 가본 금산간디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자유로이 사용하고, 옆에 편의점이 있는 상가건물의 대안학교는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 곳에서 모든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가치가 제대로 자리잡아 있을지도 궁금했고 말이다. 그런 이유들에서 길은 적합한 학교라고 생각했고, 령경이와 연락해 가게 되었다.

첫날은 아주아주아주 어색했다. ㅎㅎ. 의왕시 내손 2동,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30분의 거리다. 그 전 주에 길 학생들도 교류를 다녀오고 그 날 처음 다시 만나는 거라고 해서 점심

때쯤 오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에 너무 많이 헤매는 바람에 20분 여 정도 늦게 되었다. 너무 창피했다... 후 길은 생각보다도 더 작았다. 여기저기 음악이 틀어져 있었고, 가자마자 점심을 먹었다. 밥은 우리 학교가 훨씬 맛있었다. 밥을 먹고 우리 학년에 해당하는 큰나무의 담임이신 상상께서 (여기는 모두 별명으로 쌤들을 불렀다.) 다목적실로 내려가 수업을 선택했다. 여기는 공강이 따로 없고 선택수업이라고 해봤자 두세개의 수업 중 선택하는 시스템였다. 나중에 들어보니 어느정도의 학점을 이수해야 공강을 사용할 수 있고, 공강 이래봤자 대체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에 무얼 할지 이야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수업들을 골랐고, 3교시에 고른 대중문화라는 수업에 들어갔다. 광고와 미디어에 관한 수업이었다. 어뷰징 기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졸리긴 했어도 우리 학교에서 들은 적 없는 새로운 수업이어서 참 색다르고 좋았다. 그리고 일주일 간 항상 느낀 건데 모든 수업들이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편이었다. 4교시에는 학급회의가 있었다. 정말정말정말 시끄러웠다. 여기는 일과를 모두 마친 후 청소를 하고 하루 닫기라는 것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던 첫 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들었던 수업들이 모두 기억나진 않는다. ㅎㅎ-헹헹헹헹헹헹-헹

화요일은 전체 회의가 있었다. 맨 위층인 4층에서 진행했는데, 식당 겸용이었다. 가볍게 교류생 인사를 듣고 시작했고, 규모가 작아선지 내내 정말 가벼운 분위기였다. 엉뚱한 발언이 나와도 이상해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학년 구분을 잘은 못하지만 역시 1, 2학년은 조용했다. 상당히 시끄러운 사람들도 많고 가벼운 분위기가 오히려 산으로 가는 회의 내용을 만들기도 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구나 싶었다. 그래도 길의 전체 회의를 겪고 나니 우리 학교의 가족 회의는 좀 많이 무겁게 진지한 편이구나 싶었다. 회의가 꼭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생각한 날이었다. 오후에는 부서 활동을 했던 것 같다. 세 개의 큰 부서가 있고, 그 산하로 또 자잘한 부서들이 있었다. 우리의 잘살, 법무부, 오지랴 등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학기 초에 지망을 써서 내고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 분주했다.

셋째 날은 작업장 수업이 있었다. 우리처럼 경제교육에 많이 가깝지는 않고 중등도 참여하는 만큼 조금 더 쉬운 느낌이었다. 령경이는 바느질 수업, 나는 앙트칩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앙트칩은 상당히 특이한 수업이었다. 창업에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교사 대표이신 허실이 진행하셨다. 학기 초반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매년 진행되는 창업 대회에 직접 아이টে임을 구상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3년 전에도 이 수업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 때 제출한 아이টে임이 저렴한 웨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 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제출한 팀이 있어 예선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팀이 최계바라 기획사의 참웨딩인 걸 알고 소름이 돋았다.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조를 나눠서 창업 아이টে임을 구상하는 단계까지 가 있었다. 나는 그 중 한 조에 들어가 진행하는 회의에 참관했는데, 그다지 잘 되는 것 같진 않았다. 결국 조금 듣다가 허실과 학교를 돌며 동시간대에 진행 중인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우리 학교에 대해 말씀 드렸다.

넷째 날은 예쁜 은지쌤이 오셨다. 2교시에 소밥 시간이 있었다. 소박한 밥상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절반은 옥상 텃밭을 가꾸고, 절반은 전교생이 먹을 밥을 했다. 다섯 학년이 돌아가며 2교시에 소밥 시간이 있어서 매 학년이 돌아가며 밥을 하는 게 참 신기했다. 우와아앙. 먹지도 않는 생선까스였지만 열심히 만들었다. 되게 재미있었다. 큰나무 애들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 좋았다. 점심을 은지쌤과 먹었다. 잠시 나가 사주신 아이스크림도 먹고 쌤을 배웅했다. 좋았다~ 3교시는 만화야 놀자라는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너무 무섭고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이령경과 우리 반 애들 얼굴을 그

리고 놀며 정말 재밌었다. 직접 만화가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수업이었다. 새삼 느끼지만 강사의 접근성이 좋으니 수업도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벌써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야 애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윗 학년과도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아쉬웠다. 점심에는 령경이와 교사대표 허실 인터뷰를 했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으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아 좋았다.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배드민턴 수업을 갔다. 금요일 오후는 모두 야외 운동 수업인 것 같았다. 한 20분 정도 걸어서 배드민턴장을 갔다. 딱히 수업이라기보단 그냥 배드민턴장에서 자유롭게 배드민턴을 치는 시간인 것 같았다. 오빠들은 엄청 무섭게 치고 나랑 이령경은 솔솔 언니 두명과 짝지어서 넷이서 소심하게 쳤다. 나중에는 오빠들이 와가지고 다같이 편 나누어서 쳤다. 먼저 많이 다가와줘서 좋았고, 즐거웠다. 오는 길에 언니들과 이야기하면서 오고, 어떤 오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주었다.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아쉽고 좋았다.

교류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길은 다시 가고 싶을만큼 좋았다. 확실히 인원이 적어서인지 우리 학교에서 항상 말하는 '가족'이라는 느낌도 훨씬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말을 한 시간이 너무 적어 우리가 초반에 더 먼저 다가갔음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다. 후반에는 다들 익숙해져서 말도 많이 하고 잘 챙겨주고 수업도 모두 재밌었다.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에 놀라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점들도 많이 생각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박 5일 타 대안 교류, 좋았다!!!!!!!

이창범

나는 월요일 날 12시까지 산돌학교로 예찬이형과 같이 출발했다. 갔더니 한 선생님과 민정과 하진이가 먼저와 있었다. 첫날에는 적응이 안돼서 예찬이 형과 농구만 하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서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예찬이형 방에만 있다 혼자 돌아다 이기만 했다. 그러다 예찬이형과 같은 방인 김담진 이라는 친구를 만났고 담진이는 제천간디 학교 2차 캠프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잠을 잘 때도 예찬이형은 친구들과 놀았고 나는 담진이와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기상 시간이 6시 15분이라서 무척 피곤했다. 우리학교에 비하면 엄청 빨리 이러나서 3일까지는 적응이 잘 안된 것 같다. 일어나서 만보기 라는 힘든 것을 했다. 화요일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했다. 그리고 30분을 쉬고 밥을 먹었다. 먹고 또 30분을 쉬었다. 그리고 아침 조회를 했다. 우리학교에서는 15분은 책읽고 15분은 단임쌤이 알림하고 할 예기 하시는데 거기서는 책만 1시간을 읽어서 정말 힘들었다. 끝나고 1교시에 나는 풍물 수업을 들었다. 재미 있었지만 가락이 우리학교와 많이 달라서 따라 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1교시가 끝나고 2교시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무척 많이 잤던 것 같다.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는다. 거기는 밥먹는 조가 있다. 아침을 빼고 점심 저녁은 조와 함께 밥을 먹는다. 나는 어떤 4학년 누나와 1학년 유담이랑 밥을 먹었다. 밥을 다먹고 나서 할 짓이 없어서 3시간동안 운동만 했다.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담진이가 못자게 작고 장난을 쳐서 12에 잠을 잤다. 그래서

다음날 이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산돌에는 새벽농사를 하는데 수요일 아침에 2학년이 새벽농사라서 일어나보니 담진이가 농사를 가고 없었다. 내일은 3학년이 새벽농사라서 무섭다. 오늘은 오전엔 조선왕조실록 오후에는 즐거운 스포츠를 하는 날이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다. 탁구 당구 암벽 농구 풋살 쌍절곤 등등 아는 풋살을 들었다. 풋살을 잘 못해서 긴장했는데 한 3명 빼고 다 나보다 못해서 나도 되게 잘 했다. 풋살을 갔다가 돌아와서 준원이랑 담진

이랑 초코비수를 만들었다. 개인 프로젝트 같은 수업 인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 먹고 매일 청소하고 묵학을 한다. 우리는 되게 자유롭지만 산돌학교는 신관이라는 건물에서 1학년 따로 2~3학년 같이 4학년 따로 해서 묵학을 1시간 30분정도 한다. 그것도 무척 힘들다.

다행이 목요일 날 비가 와서 새벽농사는 못했다. 정말 다행이다. 목금은 3학년은 하루 종일 창업이라서 가죽 팔지. 끈 팔지. 쿠키. 레몬청. 커피. 가있다. 나는 가죽을 들었다. 가죽은 김단 진주원 이재운 나영민 이친구들과 했다. 영민이는 안하고 놀기만 하고 재운이는 하다안하다 했다. 여자에 들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5개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에는 재운이와 친해져서 재운이 랑만 다녔다. 재운이와 학교 밖으로 나가서 라면도 먹고 왔다.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친해졌다. 그중에 **이 전남자친구도 있었다.

금요일에는 가죽친구들이 팔지를 팔러 나가서 레몬청을 하는 친구들과 같이 창업을 했다. 근데 거의다 끝나서 할게 없었다. 그리고 2시에 친구들과 인사하고 부천 산학교로 출발했다.

전하진

6/13 월: 오늘 산돌학교에 왔다. 오기 전에 너무 떨렸다. 한 마디도 안하고 타대안이 끝나는데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 가자마자 학교 수업과 일정 설명을 들었다. 나는 포토그래피, 기초중국어, 캘리그리피를 듣기로 했다. 학교 수업, 일정 설명이 끝나고 기숙사로 올라가 짐을 풀었다. 나는 202호를 쓰게 되었고 최민정은 212호를 쓰게 됐다. 기숙사에 들어와서는 별로 사람이 없었지만 산돌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를 여기서 지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들었다. 그래서 왠지 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낼지 걱정도 됐다. 점심을 먹고 3학년 5반 6반이 모였다. 3학년이 6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1,2학년 섞어서 1,2,3,4반 3학년은 5,6반 인거 같았다. 나는 혼자 5반 이창범이랑 최민정은 같이 6반이 되었다. 5반에 혼자 가기는 싫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2명 있어서 살짝 안심이 되었다. 아침부터 일어나 짐 싸고 많은 버스를 갈아타고 걸으며 캐리어를 힘들게 들고 산돌학교에 도착해서 그런지 너무 졸렸다. 그래서 학습모임이 끝나고 기숙사에서 좀 잤다. 자고 일어나서 저녁밥을 먹으러 내려갔다. 청소를 하러 기숙사에 올라갔다. 나와 같은 방이 4학년에 이유나 언니와 3학년에 김가온이 라는 친구 였는데 유나언니가 방 청소이고 가온이가 학교 화장실 청소여서 나는 청소 할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서있기만 했다. 나만 청소 안 하는것도 미안했다. 내일부터 가온이랑 같이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하면 된다 해서 마음이 놓였다. 청소 시간이 끝나고 여자기숙사 모임을 했다. 매일 매일 여기숙사 모임을 하는 거 같은데 모임에서는 안건, 알림 등을 얘기 했다. 그 때 자기소개를 했다. 모임이 끝나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소등(10시) 때 잤다. 여기 소등은 스탠드 하나도 없이 아예 불을 다 끄고 잔다. 우리학교와 아주 달랐다. 10시 되면 최대한 자야 되고 밤 묵학 이라고 11시 까지 1시간 동안 밖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11시 이후로는 다 불을 끈 방에 들어가야 된다 했다. 신기하고 불편했다. 산돌은 매일 아침 6시15분에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자지 않으면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 됐다.

6/14 화: 오늘 일찍 일어났다. 산돌을 아침마다 만보기 시간이라고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다. 6시 30분 까지 기숙사 거울 방 (5반)에 가야된다. 근데 기상 당번이 깨웠는데도 지각을 했다. 한 5분 정도...하하 시간을 봤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확실히 집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게는 안 일어나서 적응이 안됐다. 당연히 한번 일어나고

적응이 될 리가 없지만! 그렇게 겨우 일어나 만보기 시간을 했는데 요가를 했다. 근데
 요가보단 준비운동에 가까운 거 같다. 여자기숙사 전부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동작을 하면
 그걸 모두가 따라하면서 진행됐다. 굉장히 졸리고 그냥 따라했다. 만보기 시간이 7시에
 끝났다. 보통은 7시30분까지 쉬고 내려가서 밥먹고 올라와서 씻는다 했는데 나는 그냥 7시에
 씻고 준비하고 내려갔다. 밥을 먹고 여기숙사로 올라와서 쉬다가 반 모임을 갔다. 아침독서를
 1시간정도 했다. 그렇게 반 모임이 끝났는데 친구들이 내가 춤추는걸 보고 싶다고 춰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 혼자 서서 그냥 뚫다. 뺄뚄하긴 했지만 그냥 뚫다. 하하 그러다 포토그래피
 시간을 5분 늦었다. 오늘 아침부터 왜 다 5분씩 늦는지 모르겠다. 수업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주변 사진을 찍었다. 사실 어떻게 찍어야 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혔다. 그래서 막
 찍었다. 원래는 찍고 맘에 드는 사진 3장을 골라 이 사진의 목적을 얘기하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랑 최민정은 안 했다. 사실 처음 듣는 수업에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 앞에서 그렇게
 발표하기가 낯설었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예배 시간이다. 진짜 교회이면 하는거와 비슷했다.
 근데 좀 길어지니까 졸렸다. 앉아 있는거도 힘들었고 졸려지니까 말씀하시는 말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다. 거의 끝날쯤에 정신을 차린 듯 하다. 점심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조와
 먹어야 됐다. 부회장인 4학년 남자분이랑 동하라는 4학년 언니와 2학년? 전에스더 라는
 사람이랑 밥조가 되어서 점심,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다. 초반엔 어색해서 체 할거 같았다.
 근데 먹다보니 그냥 어색이 아니라 아무생각이 없게 먹었다. 점심 쉬는시간에 너무 할 게
 없어서 흔들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렇게 대충 점심 쉬는 시간을 때우고 기초 중국어
 수업을 들으러 갔다.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재밌었다. 침밀밀의 워아이니 라는 노래를 배웠다.
 많이 들어본 음이 였다. 처음 중국어를 배워봐서 뭔가 생소한 느낌이 였다. 좋았다. 수업이
 끝나고 작구모라는 우리학교에 가족회의 같은 시간이 있었다. 우리학교 가족회의 보단
 분위기가 가벼웠다. 안건으로 잔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알림시간에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름, 학년, 사는 곳(이건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ㅋㅋ) 산돌학교에 왜
 왔는지를 말했다. 나는 초등 6학년 때 학교 탐방으로 산돌학교에 왔었는데 한번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산돌로 교류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소개가 끝났는데 부회장 분이 산돌은 원래 금요일 3시에 작구모 시간이 있는데
 교류오면 그때 공연을 해야 된다고 공연 준비하라고 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다. 상상 하기
 싫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 그냥 입학식 때 찾던 씨니를
 추자했다. 그렇게 말하고 공연 준비는 하나도 안 했지만.... 기숙사 올라가서 묵학을 했는데
 진짜 할 거 없어서 노래 가사나 썼다. 별로 필요없는 어깨동무 한 학기 평가 한 거 다시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선 언니 필리핀 간 다음에 뭘 했는지도 정리 했다. 그렇게 시간을 겨우
 채웠다. 오늘 밤에 기숙사에서 그네가 막 움직여서 킁킁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귀신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 무서웠다. 같은 방인 유나언니는 나는 귀신을 믿는다며 귀신일수도
 있다해서 더 무서웠다. 난 귀신을 안 믿는다. 없다. 없다 믿을거다. 근데 그네가 움직여서
 킁킁거리는 소리치고는 너무 일정하게 소리가 났다. 멈추는 간격은 다른데 킁킁대는 소리는
 일정하게 났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일정하게 소리가 난다면 그네는 아닐테니까아..ㄷㄷ
 무서워서 심장이 막 쿵쿵쿵 뛰었다. 어제부터 들렸다는데 나는 모르고 살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 진짜 계속났다. 한번 들으니까 계속 듣게되고 들렸다.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잤다.

6/15 수: 오늘 6시15분에 일어나서 만보기를 했다. 원래 오늘 산책인데 비가 왕창 와서 어제

했던 요가를 다시 하게 되었다. 오전에 캘리그래피를 들었다. 막바지 수업이어서 다들 작품을 만들고 있어서 나는 그냥 붓으로 글씨 쓰며 놀았다. 선생님이 잘 쓴다고 작품으로 하는 엽서 써 보는거 어떠냐고 했는데 안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점심밥을 먹으러 갔는데 참치 비빔밥이 였다. 짭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ㅎㅎ 산돌엔 야채가 아주 잘게 나와서 야채를 아주 많이 먹은 거 같다. 우리학교도 그렇게 잘게 나오면 잘 먹을 자신 있는데... 오후는 내내 즐거운 스포츠라는 필수 수업을 들었다. 나는 요가를 들었다. 오랜만에 요가를 해서 그런지 엄청 뻗뻗해지고 살짝 벅찼다.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근육이 뻥기는 느낌이 좋았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틈이 있었는데 그때 소강당에서 볼 꺼놓고 1시간 정도 잤다. 자도 졸렸다. 밥 먹기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때 도서관에 가서 산돌학교 졸업생 07학번 인도보고서와 졸업 작품집을 읽었다. 인도 보고서를 보고 충격 먹었다. 바닥에 똥이 있어서 바닥만 보고 다녀야 된다 했고 쥐도 막 나오고 설사를 막 쏜다 그랬다. 바퀴벌레가 많은 필리핀이 더 낫다 생각했다. 근데 바퀴벌레도 싫다. 벌레는 그냥 다 싫다. 저녁밥을 먹고 우리반이 너무 보고 싶었다. 다 낮선사람 낮선 곳에 있으니까 우리반이 너무 보고 싶었다. 은지쌤이 너무 그리워서 은지쌤 한테 전화를 했다. 내일 산돌에 오신다 하셔서 너무 좋았다. 저녁엔 묵학시간 대신 문화생활 시간으로 영화를 봤다. 원래 천공의성 라퐁타를 보기로 해서 다운로드 하는데 오래 걸려서 잠깐 아이돌 영상을 틀었었다. 방탄소년단 이랑 엑소랑 세븐틴 영상을 틀었는데 내가 웬만해선 아이돌 영상 보며 소리 지르진 않는데 MP4가 안되고 전산실은 공적 외엔 안 돼서 영상을 계속 못 봐서 그런지 소리를 막 지르고 너무 행복하게 아이돌 영상을 봤다. ㅋㅋ내 모습이 웃겼을 것이다. 근데 다들 소리 질러서 딱히 민망하진 않았다. 다운을 기다리다 천공의 성 라퐁타를 다 받아서 볼려고 하니까 자막이 또 안되서 그냥 있던 "플립"이라는 첫사랑 이야기 인 영화를 봤다. 재밌었다. 별로 재미없다 해서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후반되서 꽤 재밌었다. 초반엔 잠이 들어서 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재밌었다:) 다 보고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어제 들은 킁킁 소리가 들릴까봐 맘 졸이며 기숙사를 올라갔다. 제발 올라갈 때만 나지 말아줘 이러면서 올라갔다. 다행히 안 나서 좋았다. 휴.. 그리고 기숙사 올라가서 4학년은 인도를 가기위해 체력훈련 삼아 설악산을 가서 내일 아침에 간다 했다. 그래서 유나언니가 짐 싸느라 10시 소등이 지났는데도 불을 키고 있었다. 불 키고 있어서 좋았다.

6/16 목: 오늘도 전에 일어나듯 일찍 일어났다. 만보기는 예수 기도 였다. 무언가를 읽으며 절을 했다. 한 30배 정도 한거 같다.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다. 다들 예수기도 할 바엔 산책한다 그래서 힘들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진 않았다. 오전 내내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필수 수업이다. 우리학교가 3학년 때 논문 쓸 때 산돌 학교는 창업을 한다. '가랑비'라는 가족으로 팔찌같은 물건을 만드는 팀, '미청'이라고 레몬청 만드는 팀, '아이원두'라는 커피 만드는 팀, '사방팔방'이라고 실팔찌를 만드는 팀, '헬로쿠키' 라고 쿠키 만드는 팀이 있었는데 나는 아이원두 커피에 가서 활동했다. 김예은, 김가은, 장채빈 이라는 아이들이 있었다. 재밌었다. 예은이는 원래 초등학교 친구여서 편했고 가은이는 지금 같은 방을 써서 친해진 상태여서 팀에 있을 때 편하게 있었던 거 같다. 그렇게 오전 내내 프로젝트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4학년이 없어서 밥조로 먹진 않았다. 점심 메뉴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콩국수 였다.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된다 해서 국물과 함께 삼키는데 모래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진짜 콩이 갈려 있었다. 하하 힘들게 삼켰다. 그렇게 콩국수를 다 먹고 오후에 또 프로젝트를 했다. 오전과 같이 커피를 볶았다. 3시쯤에 오신대서 프로젝트 하는 내내 밖에만 보고

있었는데 한 4시쯤 돼서야 택시 한 대가 들어왔다. 은지쌤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뛰쳐나갔다. 너무 반가웠고 좋았다:)

한 3~40분 있다 은지쌤이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에이스를 줬다. 원래 산돌은 외부음식이 안되는데 몰래 받았다. 은지쌤이 가시고 다시 프로젝트를 하러 갔다. 그리고 밥을 먹고 기숙사에서 청소하고 묵학하고 소등했다. 예은이가 4학년이랑 같은 방이 였는데 4학년이 가서 우리 방에 와서 잤다. 이걸 진짜 비밀인데 오늘 은지쌤 받은 에이스가 있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가온이가 밤묵학을 한다 해서 11시까지 기다렸다. 누워있었는데 점점 졸려오고 킁킁 소리는 들리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자고 하고 난 먼저 잤다.

6/17 금: 오늘 만보기는 산책을 했다. 이따 오후쯤이면 산어린이 학교로 mt를 간다. 막상 갈 생각 하니까 아쉽긴 했다. 근데 그 아쉬움 보다 우리반을 보고싶은 게 더 컸다. 나와 최민정, 이창범은 오늘 반 모임을 빠지고 대표교사 분을 인터뷰 했다. 질문 짜간게 얼마 안됐는데 잘 말씀 해주셨고 질문 말고도 많은 얘기해주시고 나눠서 좋았다. 오전엔 또 프로젝트 수업이다. 오늘은 커피를 볶지 않고 커피를 갈고 커피 드립을 했다. 어제는 구경만 했다면 오늘은 옆에서 잡일을 도와줬다. 신기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산어린이로 가기 전 윤별, 우민아를 인터뷰 했다. 동아리/자치활동과 규칙에 대해서 인터뷰 했다. 끝나고 우리는 부천까지 꽤나 멀어서 2시쯤 출발해야 됐다. 그래서 3시쯤 하는 주마모 시간을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는 공연도 안하고 롤릴페이퍼도 못 받았다. 힘들게 덩게 산어린이 학교로 가는 길에 신도림역에서 중동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타대안 무빙으로 꽃피는 학교에 간 소정, 경재, 승훈이랑 맞추쳤다. 류소정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막 소리지르며 안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봤다. 조금 쪽팔리긴 했는데 경재든 승훈이든 소정이든 너무 반가웠다. 너무 오랜만인 기분이어서 경재가 장난을 치는데 장난 치는 거조차 반가웠다.ㅋㅋ 같이 산어린이 학교에 도착했다. 약속시간이 6시인데 5시쯤 도착해서 매점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싸다. 바가 500원이었다. 오오 이런 이런 아이스크림 가격으로 덕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ㅎㅎ 다시 산어린이 학교로 가서 쉬다가 저녁으로 치킨과 피자를 먹었다. 치킨집 이름이 특이 했다. 부천남자였다. 그 치킨집 양념치킨이 굉장히 맛있었다. 선호쌤과 동석쌤, 은지쌤, 우리 반 전부를 봐서 좋았다:) 역시 우리학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민정

6.13

산돌에 12시까지 입소해서 담당 선생님과 만나고 핸드폰과 지갑과 규칙에 어긋나는것들을 다 반납했다 학교를 구경하고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었다 수업 선택을 했는데 월요일 오후에는 듣지 않고 기숙사로 올라가 조금 쉬었다 저녁을 먹고 사생회의(기숙사회의)를 했다 기숙사 회의에 안건은 “학교 철학과 맞게 샴푸를 유기농 샴푸로 사용하자” 이었는데 어느 학교를 가도 고학년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학교는 다양한 학년에서 의견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10시에 취침과 소등을 했는데 첫날부터 방사람들과 많이 친해졌다 우리학교는 너무 교류생에게 차가웠다는걸 느꼈다

6.14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만보기를 했다 다들 비몽사몽 한 상태로 요가를 진행하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다 1교시부터 하는 포토그래피 수업을 하러 갔는데 학교에서 사진수업을 못들은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포토그래피 수업이 산돌에서 들었던 수업중에 제일 재밌던 수업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기독교 학교에 맞게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에 색다른 느낌이 들었었다 점심을 먹었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이 친해지기 위해서 한조에 4~5명정도 있는 밥조로 같이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빨리 먹어야 할것 같아 힘들었지만 먹을수록 느긋하게 먹을 수 있었다

6.15

이날도 만보기로 요가를 했다 아침을 먹고 조선왕조실록을 들으러 갔다 수업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게된 사실들이 있어서 기뻐다 선생님을 인터뷰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이메일로 하게 되어 아쉬웠다 조선왕조실록을 하고 즐거운 스포츠라는 전교생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있는데 나랑 하진은 요가를 선택했다 내가 생각하던 요가와 다르게 좀더 과격한 동작들을 하셔서 놀랐지만 설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다 저녁을 먹고 묵학시간에 여자기숙사끼리 문화생활로 영화 “플립”을 보았다 보고 취침을 했다

6.16

이날 드디어 만보기로 노래부르면서 절하는 예수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내 프로젝트를 하는 시간인데 3학년은 창업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다 가랑비.레몬청.사방팔방.아이원두커피.헬로쿠키 이렇게 팀이 있는데 나는 사방팔방에 가서 천팔찌 생산을 도왔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수입도 꽤 많이 생긴다고 했다 고등작업장도 우리학교에서만 팔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은지쌤이 오셨다 내가 별로 안 반가워할줄 알았는데 쌤이 오시니까 너무 반가웠었다 쌤과의 짧은 만남을 가지고 나는 다시 천팔찌를 생산했다 저녁을 먹고 묵학시간에 일지를 작성하고 숙제들을 하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

전하늘

6/13(월요일)

7시30분에 집에서 성미산학교로 출발했다

8시40분에 집에서 도착했다.9시까지 아침열기를 했다.

9시부터 10시40분까지 시민사회수업을 들었다.11시부터 말과글수업을 들었다

12시30분부터 1시30까지 점심을 먹었다.

1시30분부터 4시까지 합창수업을 듣고 4시에 집으로 왔다

6/14

7시30분에 집에서 성미산학교로 출발했다 8시에 도착해서 1시간동안 명을때리다가 시부터

9시10분까지 아침열기를 했다.9시10분부터 12시30분까지 영어수업과 수학수업을 들었다.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을 먹었다.1시30분부터 4시까지 한국사수업을 듣고

4시에 집으로 왔다.

6/15

7시30분에 집에서 성미산학교로 출발했다. 8시에 도착해서 1시간동안 명을때리다가 시부터 9시10분까지 아침열기를 했다. 9시10분부터 12시30분까지 영어수업과 수학수업을 들었다.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을 먹었다. 1시30분부터 4시까지 한국사수업을 듣고 4시에 집으로 왔다.

6/16

8시에 출발했다. 8시40분에 성미산학교에 도착했다

8시40분부터 9시까지 아침열기를 했다.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영어수업과 수학수업을 들었다. 12시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었다. 1시30분부터 체육수업을 들었다. 3시30분에 집으로 왔다.

6/17

8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9시에 1교시는 프로젝트수업이었는데 내가들은 프로젝트수업이 발에가는 프로젝트라서 성미산학교의 발인 버뮤다라는 발에도 도착했다.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을 먹고 1시30분부터 4시까지 프로젝트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4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 산 어린이학교로 왔다

소감 통학이어서 좋았고 수업도 재밌었고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해서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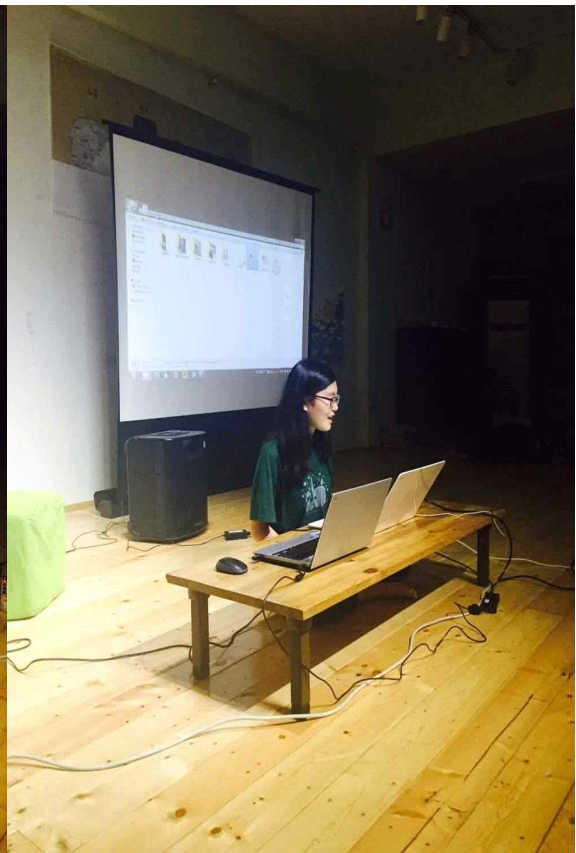
최문형

부산에 있는 우다다학교에 다녀왔다. 처음 타대안을 어딜 갈지 정할 때 여러 경험담을 들으려 다녔다. 꽤 많은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 우다다에 다녀온 언니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그 곳에 지내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산청, 산돌 여러 가지 학교를 추천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우다다학교에만 향하고 있던 거 같다. 이한결과 여러번의 연락을 통해 우다다에 가게 되었다. 제주도가 끝날 때 까지도 사실 교류에 대한 기대도 걱정도 되지 않았다. 별 생각 없었다. 우다다학교 문 앞에 와서 까지도 말이다.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결, 문형 환영해' 이런 말들의 포스터(?)들이 붙어있었다. 뭔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당황하면서도 너무 좋았다. 들어갔는데 로비에 게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반갑게 인사 해주었다. 월요일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수업을 하나도 못 들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잘 챙겨주시는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갔다. 생활관에 와서는 역시나 잘 해주셨지만 불편했다. 밥도 다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뭔가를 해야 할 거 같지만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뻘쬘했던 거 같다. 나 때문에 3개만 사도 되는 걸 4개 사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 조금은 불편했던 밤이 지나고 설레지만 두려운 두 번째 날이 왔다. 같이 사는 언니들의 준비가 늦은 바람에 지각을 했다. 첫날부터 지각을 해서 너무 짝떨었지만 이 학교는 지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듯 했다. 학교에 가니 역시 모든 분들은 볼 때 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다.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괜히 왔다갔다 거렸다. 계단에 전교생 사진이 붙어있어서 열심히 보며 이름을 외우곤 했다. 할게 없을 때마다 거

기에서 이름을 외웠던 거 같다. 너무 잘 해주시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름을 외우는 것밖에 없을 거 같았다. 덕분에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은 다 외운 거 같다. 수업은 딱히 특별한 수업은 없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다 재밌었다. 어색해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계속 맞춰주시려고 했다. 소문으로는 정말 완벽할 거만 같았던 우다다에도 그들끼리 사는데 문제는 존재했지만 교류 생을 모두의 손님으로 생각하여 잘해주는 모습은 정말 좋았다. 사실 그게 당연한 거 같다. 5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학교에 오셨던 교류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앞으로는 우다다처럼 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사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5일이었지만 짧다는 생각에 더 빨리 많이 친해질 수 있던 거 같다. 마지막에 송별회까지 해주시면서 끝까지 정말 너무 큰 대접을 받았던 거 같다. 마지막에 자치회의를 못 듣고 나와서 너무 아쉬웠다. 수업이나 그 외 다른 활동들도 재밌었지만 그냥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우다다 사람들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생각밖엔 들지 않는 거 같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우리학교에 온 교류 생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야 할지는 정말 많이 생각 할 수 있는 학교 였던 거 같다. 이 학교에 손님이 아닌 학생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온 거 같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왔지만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게 미안했다. 보고서에 내용은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가 다인 거 같지만 정말 기억나는 게 고맙고 미안한 거밖에 없다. 우리 학교와는 정말 많은 게 다르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그만큼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 같다.

움직이는 학교를 마치며







<탐라는 제주행성 두모악에서 보낸 편지 - 은지T 편>

2016. 06. 07

2016년 응격이는 학교
'탐라는 제주행성'
16명의 아이들과 9박10일 제주일정을
보내라는 건 대양 포화한 수월맞은 아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언가'는 느끼고 배울 아이들을
기대하며 한걸음, 두걸음 달려 나간다.
제주에 흔려 이곳을 만들어가셨던 김영갑선생님
덕분에 아이들과 나 또한 '무언가'는 가슴에
새기고 가지 않은가싶다.
살아 있음에, 보고 있음에,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 감사로 가슴에 새기고 갈 수 있는 아이들과 내가
되기를 ... 다음번 이곳엔 누구라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될까?
사랑하는 우리 배바반 아이들,
서기성을 바라봄에 있어 온갖 2층의 지혜와 불행이 있길 ...
승훈, 예현, 소정, 다빈, 영경, 재현, 한결, 정범 - 제천간디후드 가운더 -
승영, 한울, 전재, 하늘, 하연, 문형, 민정, 유정, 동성, 은리

